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실태 및 개선방안

김기홍 김선태
최은하 이연담

기본연구	2010-37
보안등급	일반과제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실태 및 개선방안

김기홍 김선태
최은하 이언담

머 리 말

교정시설 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범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가 사회에 복귀한 후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종 직업에 취업하는 데 필요한 기능과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훈련을 의미한다.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직업훈련은 사회의 일반인 대상 직업훈련과 달리 노동시장이나 직업세계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간 정부차원에서도 교정시설의 수형자 직업훈련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정부의 수형자 직업훈련은 그 중요성에 비하여 범정부적인 관심이 부족하고,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사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대책이 수립 제시되었다더라도 추진 및 시행 과정에서 현실화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교정시설 수형자의 직업훈련 현황과 문제점을 정밀진단하고 실태 및 요구조사 분석을 통해 향후 수형자 직업훈련 체제의 재정비와 직업훈련 참여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들은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체제를 강화·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실행방안들을 구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궁극적 목적은, 출소자의 대부분이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기 때문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출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즉, 이는 출소자들의 대부분이 기능과 기술도 없고, 전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적 생활의 제약과 취업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재소 중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훈련을 통하여 기능·기술을 습득하고, 필요 시 연계된 국가 및 민간 자격증을 취득케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교정시설 수

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정부의 거시적 지원 방향의 설정과 더불어 수형자 직업훈련 체제의 재정립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기홍 박사가 연구책임자로서, 김선태 박사, 한국사이버대학교의 최은하 교수, 법무부 교정본부 이연담 박사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과정에서 직접 자문을 해 준 27개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담당자와 연구지원을 성실하게 수행해 준 최원석 연구원에게 감사를 표한다.

끝으로 본 연구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10년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권 대 봉

목 차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3. 연구의 질문 · 4
4.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 4

제2절 연구내용 · 5

제3절 연구방법 · 7

1. 문헌연구 · 7
2. 수행자 직업훈련 실태와 인식 및 요구 조사 · 8
3. 전문가협의회 및 자문회의 개최 · 10

제2장 수행자 직업훈련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수행자 직업훈련의 인권적 접근 · 13

1. 자유권과 수행자 직업훈련 · 13
2. 평등권과 직업훈련 · 14
3. 직업훈련의 법률적 근거 · 15

제2절 사회국가의 원리 속에서 수행자 직업훈련 · 17

1. 사회국가원리의 개념적 의미와 구현방법 · 17
2. 사회국가원리와 수행자 직업훈련 · 18

ii 목차

제3절 수형자 처우모델과 직업훈련 · 19

1. 수형자 처우 모델의 발전 · 19
2. 수형자 직업훈련과 처우 모델 · 23

제4절 종합 시사점 · 24

제3장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현황 분석

제1절 수형자 직업훈련제도 · 27

제2절 수형자 직업훈련 운영 현황 · 31

1. 교정시설 수형자와 직업훈련 및 취·창업 현황 · 31
2. 수형자 직업훈련 운영기관과 과정 현황 · 33
3. 직업훈련 참여 수형자의 수료와 중도탈락의 현황 · 38
4. 직업훈련 이수자의 자격증 취득 현황과 수상실적 · 39
5. 수형자 직업훈련 전담인력 현황 · 40

제3절 수형자 직업훈련 운영의 문제점 · 40

1. 수형자 직업훈련 운영체제와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 · 40
2. 직업훈련 전담인력의 문제점 · 42
3. 직업훈련시설과 예산 · 43
4. 직업훈련과정과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 · 44
5. 직업훈련 이수 후 자격증 취득과 취업지원의 문제점 · 45

제4절 종합 시사점 · 46

제4장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실태조사 분석

제1절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 · 47

1. 교정시설 직업훈련의 인적 특성 · 47
2. 수형자 직업훈련 운영현황 및 인프라 · 48
3. 교정시설의 직업훈련 지원 및 전담인력의 현황 · 52
4. 교정시설의 직업훈련운영의 문제점 · 56
5. 교정시설의 직업훈련제도 및 정책 개선 · 57

제2절 직업훈련 참여 수형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조사 · 58

1. 직업훈련 참여자 특성 · 58
2. 직업훈련의 참여목적 · 64
3. 수형자의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효과 · 67
4. 수형자의 직업훈련 만족도 및 개선점 · 73

제3절 논의 및 시사점 · 77

1. 수형자 직업훈련기관 실태조사의 결과요약 및 시사점 · 77
2. 수형자 직업훈련 만족도 와 요구조사의 결과요약 및 시사점 · 80

제5장 수형자 직업훈련 개선방안

제1절 수형자 직업훈련 개선전략과 기본방향 · 85

제2절 수형자 직업훈련 개선방안 · 90

1. 수형자 직업훈련 인프라 구축 강화 · 90
2. 수형자 직업훈련 이수과정과 프로그램 강화 · 98
3. 직업훈련교사에 대한 지원 강화 · 101
4. 수형자에 대한 지원 강화 · 102
5. 수형자 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 · 105

제3절 정책방안의 추진주체와 추진계획 · 107

1. 추진주체별 정책방안 · 107

iv 목차

2. 정책방안 추진계획(안) · 108

제4절 결론 및 제언 · 109

1. 결론 · 109

2. 제언 · 110

SUMMARY · 113

<부록 1>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기관 운영 실태 의견조사 설문지 · 119

<부록 2> 교정시설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조사 설문지 · 131

<부록 3> 교정시설 수형자의 직업훈련 만족도 및 요구조사 결과 · 135

(혼인여부 및 교정횟수)

참고문헌 · 143

〈표목차〉

- <표 1-1> 수형자 직업훈련 관련 주요 연구들 · 5
- <표 1-2> 수형자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 내용 · 9
- <표 1-3> 직업훈련 수형자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 · 9
- <표 1-4> 조사 대상기관 수와 직업훈련생 수 · 10
- <표 1-5> 전문가자문협의회 및 포럼 개최 · 11

- <표 3-1> 수형자 직업훈련의 구분 · 29
- <표 3-2> 교정시설 수형자 현황 · 31
- <표 3-3>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현황 · 32
- <표 3-4> 직업훈련 이수자의 출소 후 취창업 현황 · 32
- <표 3-5> 수형자 직업훈련의 과정 영역 · 33
- <표 3-6> 수형자 직업훈련직종 조정 현황 · 34
- <표 3-7> 수형자 직업훈련 운영 기관별 과정(1) · 36
- <표 3-8> 수형자 직업훈련 운영 기관별 과정(2) · 37
- <표 3-9> 수형자 직업훈련 과정 변화 추이 · 37
- <표 3-10> 수형자 직업훈련 인원 및 수료인원 변화 추이 · 38
- <표 3-11> 수형자 직업훈련 중도탈락률 변화 추이 · 38
- <표 3-12> 수형자 직업훈련 이수자 자격취득 변화 추이 · 39
- <표 3-13>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실적 · 39
- <표 3-14> 수형자 직업훈련 전담인력의 현황 · 40

- <표 4-1> 교정시설 직업훈련기관의 인적 특성 · 48
- <표 4-2> 전담관리인력, 직업훈련교사, 외부강사 규모의 적정성 여부 및 인원 · 49
- <표 4-3> 전담관리인력의 증원 이유 · 49
- <표 4-4> 직업훈련 관련 교강사의 증원 이유(1순위) · 50
- <표 4-5>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지원에 있어 현재 정부의 예산지원수준의

- 적정성 · 50
- <표 4-6> 직업훈련 내실화를 위한 예산지원 분야 · 51
- <표 4-7> 수형자 직업훈련과 관련한 유관기관 간의 연계협력 · 51
- <표 4-8> 직업훈련 전담인력의 업무비중 · 52
- <표 4-9> 수형자들의 직업훈련 시작 사유 · 52
- <표 4-10> 직업훈련 이수 후 출소자를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부 · 53
- <표 4-11> 직업훈련 이수 후 출소자를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 54
- <표 4-12> 담당관리인력의 전문성 확보 여부 · 54
- <표 4-13> 담당관리인력의 재교육이나 연수참여 여부 및 방법, 실시빈도 · 55
- <표 4-14> 전담인력과 직업훈련교사의 재교육 및 연수 시 필요한 내용 · 55
- <표 4-15> 수형자 직업훈련 운영 시 예산 및 전문인력 외 문제점 · 56
- <표 4-16> 수형자 직업훈련의 정부지원 시 우선 요구항목 · 57
- <표 4-17> 수형자 직업훈련 인프라와 제도개선 · 58
- <표 4-18> 수형자 직업훈련 참여자의 인적 특성 · 59
- <표 4-19> 수형자 직업훈련 참여특성 · 60
- <표 4-20> 수형자 직업훈련과정의 성별 참여특성 · 61
- <표 4-21> 수형자 직업훈련과정의 연령별 참여특성 · 62
- <표 4-22> 수형자 직업훈련과정의 학력별 참여특성 · 63
- <표 4-23> 수형자의 직업훈련기간 참여특성 · 64
- <표 4-24> 수형자의 직업훈련 참여목적(참여과정) · 65
- <표 4-25> 수형자의 직업훈련 참여목적(참여기간) · 66
- <표 4-26> 취업특강 지원 · 67
- <표 4-27> 단기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지원 · 68
- <표 4-28> 취업박람회 지원 · 68
- <표 4-29> 자기이해 및 각종 진단검사 · 69
- <표 4-30> 직업상담(취·창업, 직업훈련, 자격증 등) 지원 · 70
- <표 4-31> 특화된 직업정보 제공 · 71
- <표 4-32> 인터넷 활용 취업지원 시스템 운용 · 71
- <표 4-33> 수형자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 72

- <표 4-34> 수형자의 직업훈련 만족도 · 74
- <표 4-35> 수형자의 직업훈련과정 이수 후의 가능성 정도 · 75
- <표 4-36>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요구와 개선점 · 76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 내용과 방법 및 절차 · 7

〈그림 3-1〉 수형자 직업훈련 과정도 · 30

〈그림 3-2〉 수형자의 자격 취득 단계와 직업훈련기간 · 30

〈그림 5-1〉 수형자 직업훈련 개선방향의 흐름도 · 89

〈그림 5-2〉 수형자 직업훈련 지원체제 재정비 방안 · 96

〈그림 5-3〉 취업약정제 프로그램 도입 · 100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교정시설 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범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가 사회에 복귀한 후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종 직업에 취업하는데 필요한 기능과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훈련을 의미한다.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궁극적 목적은 출소자의 대부분이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기 때문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출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성년 가석방자 4만 8,767명에 대한 재복역률에 따르면, 재복역한 인원은 5,659명(11.6%)으로 나타났으나, 수형 기간 동안 기능자격을 취득한 뒤 가석방된 5,735명의 경우 재복역 인원이 431명(7.5%)으로 낮다는 점이다. 특히 기사장 혹은 기능장 같은 고급 기술자격 취득자의 재복역 사례는 없다는 점이다(이연담, 2009).

그러나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직업훈련은 사회의 일반인 대상 직업훈련과 달리 노동시장이나 직업세계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설사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대책이 수립·제시되었더라도 추진 및 시행 과정에서 현실화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정시설의 수형자 대상 직업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 연구나 관련 중·장기 발전에 대한 정책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차원에서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밀진단하고 실태 및 요구조사 분석을 통하여 향후

직업훈련체제의 재정비와 수행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개 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2. 수행자 직업훈련 현황 및 조사분석

1) 직업훈련기관

전담관리인력, 직업훈련교사, 외부강사 등의 규모에 대해 수행자 직업훈련 관련 담당자 중 44.4%가 적정하다고 인식한 반면, 55.6%는 적정하지 않다고 보았다.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수행자 직업훈련 관련 담당자는 전담관리인력 1명, 정규직업훈련교사 2명, 외래강사 1명 수준에서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전담관리인력의 충원이 필요한 것은 직업훈련관리 외 행정업무가 과다하여 이를 분산하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였으며, 직업훈련 관련 교·강사의 증원 이유는 직업훈련교사의 최소정원을 확보하여 수업의 내실화를 꾀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또한 수행자 직업훈련 관련 담당자의 51.8%가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지원에 있어 현재 정부의 예산지원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직업훈련 내실화를 위해 예산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전담인력과 교사의 충원을 꼽았다. 그리고 현재 직업훈련 전담인력의 업무에서는 수행자 직업훈련 관련 담당자의 66.7%가 수행자 직업훈련과 관련된 행정업무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편 수행자 직업훈련 관련 담당자들은 수행자들이 출소 후 취·창업과 구직기술의 연마를 위해 직업훈련을 시작한다고 보았다.

직업훈련이수 후 출소자를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취업특강(92.2%), 직업상담(취·창업, 직업훈련, 자격증 등)(92.2%), 취업박람회

회(92.2%)가 활성화된 반면, 단기적응훈련 프로그램(48.1%), 인터넷 활용 활용 취업지원 시스템 운용(44.4%)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약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관리인력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관련 담당자의 63.0%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관리인력의 재교육이나 연수 교육 등에는 직업훈련 관련 담당자의 44.4%가 참여하고 있었으며, 참여방법은 주로 자체 프로그램의 연수(41.7%)와 정부교육 및 연수기관(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교육원, 대학의 연수기관 등)(41.7%)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교육이나 연수의 참여빈도는 직업훈련 관련 담당자의 75%가 “연 1~2회” 정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담인력과 직업훈련교사의 재교육 및 연수 시 가장 필요한 내용으로는 담당과정에 대한 신기술 연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업정보(직종, 자격, 훈련 등) 수집과 탐색 및 평가방법, 수형자 대상 전문상담 및 각종 검사 기법과 결과 해석기술, 구직 및 구인방법 안내, 취업처인 기업체와의 교류 능력순이었다.

이상의 수형자 직업훈련기관의 실태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수형자 직업훈련 관련인력의 충원을 통해 기존 직업훈련 담당인력의 업무분담 및 역할에 대한 안배가 필요하다.

둘째,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예산지원을 통해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셋째, 수형자 직업훈련과 관련한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직업훈련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직업훈련이수 후 출소자를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취업특강

이나 취업박람회 등 실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응에 필요한 단기훈련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담당관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재교육 및 연수과정이 필요하다.

2) 수형자

수형자 직업훈련과정의 참여특성을 보면, 성별로는 남성의 76.7%, 여성의 88.7%가 훈련에 참여하고 있고, 연령별로는 30~40대, 학력별로는 고졸(61.8%)이 가장 많았다. 수형자 직업훈련과정의 훈련기간별 참여특성을 보면, 기능사 과정에서의 6개월~1년 과정(76.9%)이 가장 많았다. 직업훈련과정별 수형자의 직업훈련 목적은 출소 후 취·창업을 하기 위해(50.6%)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형자는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중 취업특강(62.5%), 직업상담(취·창업, 직업훈련, 자격증 등)(60.5%), 단기사회적응훈련(51.6%)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취업박람회(45.5%), 자기이해 및 각종 진단검사(46.6%), 특화된 취업정보 제공(46.9%), 인터넷 활용 취업지원 시스템 운용(34.5%)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형자가 직업훈련지원 프로그램 지원효과에 대해 느끼는 정도는 ‘직업상담(취·창업, 직업훈련, 자격증 등) 지원’이 3.6점으로 다른 6개 프로그램보다 가장 높았다.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성이나 훈련방법”(3.7점)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업훈련기관”(3.5점), “직업훈련과정의 내용과 프로그램의 질”(3.4점)순이었다. 반면, 수형자는 “전문취업지원 상담”(2.7점)에 가

장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자의 직업훈련 과정 이수 후의 가능성 정도에 대해서는 “사회복귀 적응 및 재범방지 가능성”이 3.4점으로 다른 요인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행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요구나 개선의견을 보면, “직업훈련 이수 후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4.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업훈련이수 후의 취업지원 및 상담 강화”(4.2점), “직업훈련생에 대한 처우 및 지원 개선”(4.2점), “기업체 맞춤형 직업훈련 및 현장실습의 강화”(4.2점)순이었다.

이상의 수행자의 직업훈련 참여 속도 및 요구조사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수행자들의 관심분야, 취업욕구, 연령 및 학력, 재범횟수 등을 고려한 직업훈련생 모집 및 특화된 훈련제공이 요구된다.

둘째, 수행자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은 수행자가 출소 후 취·창업이 가능하도록 적성, 흥미, 습득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지원 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수행자에게 전문취업지원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과의 취업관련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기업체와의 협약체결을 통해 수행자의 취업향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행자가 직업훈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 조성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수행자의 직업훈련은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훈련직종의 제공과 함께 이를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업체 대상 직업훈련 및 현장실습이 필요하다.

4. 개선 방안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형자 직업훈련 인프라 구축 방안으로 교정청별 직업훈련교도소 확대, 교정청별 직업훈련 특성화, 직업훈련기준에 준하는 직업훈련교사의 확보 및 직업훈련 교육시설과 장비의 확보, 직업훈련 예산의 확보 및 일반회계로의 전환, 수형자 직업훈련 유관기관간의 협력망 구축, 수형자 직업훈련에 대한 진로 상담 및 취업지원 체제,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표준화, 수형자 직업훈련 전담지원 체제 구축, 취업능력카드제의 도입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수형자 직업훈련 이수 과정과 프로그램 강화로 단계별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화, 단순기능사 과정에서 다기능 과정으로의 확대, 취업유망 직종을 고려한 직업훈련 직종의 개발,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 실습 프로그램 연계 강화, 취업률 제고를 위한 '맞춤형 취업 약정제' 프로그램운영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직업훈련교사에 대한 지원으로 직업훈련교사의 일반직화와 직급 조정, 직업훈련교사의 연수 강화 지원, 우수 직업훈련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이다.

넷째, 수형자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행정 성적 반영, 국가기술자격과 취득과 학점은행제와의 연계한 전문학사 과정 개설, 다기능 기술자격 취득 기회 제공, 취업자에 대한 사후지도 및 창업지원, 수형자의 자기주도적인 취업능력 강화 등이다.

다섯째, 수형자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정부의 보증과 세제 혜택 부여, 수형자 채용기업에게 자금지원 등이다.

5. 정책제언

현재의 수형자 직업훈련은 기본적인 지원 인프라 체제의 미흡, 직업훈련시설과 예산의 부족, 전담관리인력과 적정 직업훈련교사의 미확보, 자격증 취득 후의 취업상담 및 알선 지원 미흡 등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시스템이 사회의 노동시장 현실과 괴리가 있고, 또한 수형자에 대한 사회인들의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직업훈련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출소자의 재범률은 직업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일반 재소자의 재범률보다 낮다는 점이다.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다른 어떠한 교육보다 직업훈련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수형자 직업훈련을 활성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와 법무부 및 관련부처는,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인 직업훈련의 강화는 국가의 책무이며, 수형자의 직업훈련을 통해서 재범률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국가적 사업임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수형자 직업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단기적 정책 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단계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향후 수형자 직업훈련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세워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형자 직업훈련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반의 직업훈련 인프라 구축과 개선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수형자 직업훈련의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적·재정적·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직업훈련 참여 수형자 개인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관

련부처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며, 정부와 기업 및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직업훈련 이수 수형자의 취업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제 1 장 서론

김기홍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교정시설 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범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가 사회에 복귀한 후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종 직업에 취업하는 데 필요한 기능과 기술을 습득시키는 교육훈련을 의미한다.

행형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하면,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수형자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현재 수형자의 직업훈련의 종류는 시행방법에 따라 집체훈련, 지원직업훈련, 외부출장직업훈련, 작업병행직업훈련 등으로 구분되며, 기술습득 과정에 따라 양성훈련과 향상훈련으로 구분된다(법무부 예규 제845호, 수형자 직업능력개발개발훈련 운영지침).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궁극적 목적은, 출소자의 대부분이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기 때문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 출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즉, 이는 출소자들의 대부분이 기능과 기술도 없고, 전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적 생활의 제약과 취업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재소 중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훈련을 통하여 기능·기술을 습득하고 필요 시 연계된 국가 및 민간 자격증을 취득케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데 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성년 가석방자 4만 8,767명에 대한 재복역률에 따르면 재복역한 인원은 5,659명(11.6%)으로 나타났으나, 수형기간 동안 기능 자격을 취득한 뒤 가석방된 5,735명의 경우 재복역 인원이 431명(7.5%)으로 낮다는 점이다. 특히 기사장 혹은 기능장 같은 고급 기술자격 취득자의 재복역 사례는 없다는 점이다(이연담, 2009). 이처럼, 교정시설 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수형자가 출소 후 다시금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의 차원도 할 뿐만 아니라, 취업을 통한 사회적응의 효과도 매우 크다. 현재 수형자는 3만 2,000명 정도로 56개 교정시설에서 분산 수용되어 있고, 매년 3,700명 정도가 26개 교정시설에서 다양한 직업훈련을 받으며,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교정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1만 6,585명 중,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술사 등 기술자격을 취득한 인원이 1만 4,257명으로 합격률은 약 86%에 이른다. 또한, 같은 기간 전국 및 지방 기능경기대회에 참여하여 입상한 수용자는 779명에 이르고 있다.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직업훈련을 마치고 출소한 수형자의 취업률을 보면, 평균 취업률은 33.1%이며, 자격증을 취득한 수형자의 취업률은 미취득자에 비해 10% 이상 높은 편이다.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직업훈련은 사회의 일반인 대상 직업훈련과 달리 노동시장이나 직업세계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간 정부차원에서도 교정시설의 수형자 직업훈련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정부의 수형자 직업훈련은 그 중요성에 비하여 범정부

적인 관심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사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대책이 수립·제시되었더라도 추진 및 시행 과정에서 현실화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정시설의 수형자 대상 직업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연구나 관련 중장기 발전에 대한 정책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교정시설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연구도 드물지만,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인 쟁점에 대한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김영식 외 2009; 김용구 외 2009; 변동윤, 1998; 이영근, 2001; 장규원 2007; 장희숙, 2009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교정시설 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정부의 거시적 지원방향의 설정과 더불어 수형자 직업훈련체제의 재정립을 위한 종합적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차원에서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밀진단하고 실태 및 요구 조사 분석을 통하여 향후 직업훈련체제의 재정비와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었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과 직업세계의 빠른 변화에 직면하여 소외계층의 하나인 교정시설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재정립과 직업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다.

둘째, 교정시설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분석하였다.

셋째, 교정시설 직업훈련 기관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직업훈련 체제 구축현황, 직업훈련 성과에 대한 인식, 직업훈련에 대한 개선점과 요구점, 그리고 수형자에 만족도와 요구점 등을 통해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4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실태 및 개선방안

에 종합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넷째, 교정시설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체제 재정비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종합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3. 연구의 질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교정시설 수형자의 직업훈련이 왜 필요하고, 그 중요성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둘째,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기관의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또한, 수형자 직업훈련기관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발전적인 시사점은 무엇인가?

셋째, 현재 교정시설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이를 수형자 중심의 직업훈련을 위한 개선점은 무엇인가?

넷째,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을 내실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및 강화방안 무엇인가?

4.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기존의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과 관련한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아직 수형자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실태조사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정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대한 연구는 교정시설에 있는 직접적인 관련인을 제외하고는,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장희숙(2009)의 '교도소 직업훈련생들의 만족도와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도 1개 기관만을 조사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표 1-1> 수형자 직업훈련 관련 주요 연구들

선행 연구	주요 조사 및 내용	정책대안 및 프로그램
변동운(1998). '범죄방지 와 수형자 직업훈련제도'	·단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제도 소개와 운영실태를 기술	·수형자 직업훈련제도, 직업훈 련의 범죄방지 효과, 결론
이영근(2001). '수형자 직 업훈련에 관한 발전 방향'	·단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제도 소개와 운영실태를 기술	·수형자 직업훈련 연역, 직업 훈련관계법령 분석, 직업훈 련의 현황, 문제점과 개선 방향
오원선(2003). '수형자 직 업교육훈련의 개선 방안 에 관한 연구'	·단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제도 소개와 운영실태를 기술	·수형자 직업훈련의 이론적 배경, 수형자 직업훈련의 현 황, 수형자 직업훈련의 문제
오원선(2004). '한미 수형 자 직업훈련에 관한 비교 연구'	·단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제도 소개와 운영실태를 기술	·교정시설과 지역의 다양한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수형자 직업훈련의 개방성과 직업훈련기관 간의 연계성, 직업훈련성과 측정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 그램 병행 실시
김용구·김재경(2009). '수 형자 교정교육 프로그램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단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제도 소개와 운영실태를 기술	·자격증 취득 위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직업훈련과 더불어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과 창업관련 과 정의 제공 필요
장희숙(2009). '교도소 직 업훈련생들의 만족도와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직업훈련 참여 수형자 259명(1 개 기관 조사) 실시 ·수형자 도덕적 가치관, 자기의 식, 자존감, 사회적 지지, 충동 적 비순응성 변화에 조사	·수형자 직업훈련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자 선별과 적성에 맞는 직종 선택이 우 선해야 함.

제2절 연구내용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가지고 추진하였다.

첫째,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다. 수형자의 사회
복귀 지원 이론으로 ① 기존의 교화 개선(개선, 의료) 모델, ② 재통합

(reintegration) 등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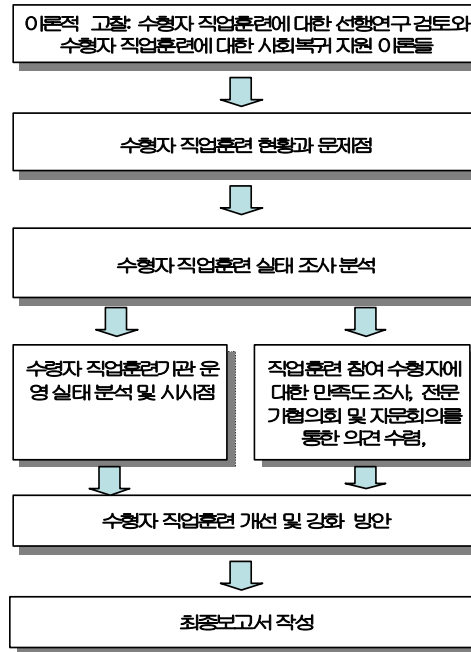
둘째,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에 대한 현황분석이다. 수형자 직업훈련 현황과 문제점(직업훈련제도, 수형자 직업훈련기관의 운영현황, 수형자 직업훈련 참여 및 자격증 취득 현황, 취업성과) 등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형자 직업훈련 기관에 대한 운영실태의 조사는 전체 교정시설 56개 교도소 중 수형자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는 27개 교도소 직업훈련 담당자(기관 직업훈련 운영현황과 문제점, 개선점과 요구점)와 직업훈련 참여 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 만족도 및 요구 조사(720명)를 하였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수형자 직업훈련 만족도 조사는 27개 직업훈련기관 중에 천안교도소는 외국인 전용시설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넷째,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종합 개선 및 강화 방안이다.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개선 및 강화 방향과 수형자 직업훈련 개선 및 강화의 구체적 지원정책과 개선방안(관련 주체별 법적·제도적 개선과 정책적 지원 및 강화 방안)을 기술하였고, 또한 결론 및 제언을 통해 향후 수형자 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 내용과 방법 및 절차



제3절 연구방법

이 연구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문헌연구, 현장 면담조사, 전문가협의회 및 실태조사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1. 문헌연구

이 연구에서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강화방향의 준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문헌 및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가능한 한 1차 자료 위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차 자료도 활용하였다.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의 의의와 필요성 및 현황분석을 위한 각종 기초 통계 확보

-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 이론적 고찰
- 주요국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실태분석

2. 수형자 직업훈련 실태와 인식 및 요구 조사

가. 조사지 개발과 조사 내용

설문조사지는 관련문헌 및 자료의 분석과 전문가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1차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1차로 작성된 설문조사 내용은 공동연구진 및 원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수정·보완한 후 2010년 8월 15일부터 8월 10일까지 예비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설문조사 대상으로는 수형자 직업훈련기관의 담당자 5명과 직업훈련생 10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예비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내용을 상세화하였다.

구체적인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조사내용은 일반적인 운영현황과 인프라,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및 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 수형자 직업훈련 운영애로 및 요구사항, 수형자 직업훈련 인프라 개선, 기관과 응답자의 일반현황과 특성에 대한 질문 등이며, 조사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학계 및 관련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과 협의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내용을 조정하였다.

<표 1-2> 수형자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 내용

질문 범주	세부 내용(설문지 문항 번호)
일반적인 운영 현황과 인프라	·직업훈련 과정의 변화 추이(1), 직업훈련 수료자 변화 추이(2), 직업훈련 참여자의 중도탈락률(3), 직업훈련 이수자의 자격증 취득원과 취득률(4), 직업훈련 전담관리인력과 직업훈련교사 현황(5), 직업훈련 시설 현황(6), 직업훈련장비 현황(7), 직업훈련 운영 재원(8),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10), 전담인력의 업무(11), 수행자의 직업훈련 참여 이유(12)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및 전담 인력의 전문성 강화	·취업지원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1),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2), 담당관리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재교육이나 연수 참여 여부(3),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재교육이나 연수 참여 여부(4)
수형자 직업훈련 운영 애로 및 요구사항	·문제점 사항과 심각성 정도(①-⑮), 정부지원에 대한 요구사항(2)
수형자 직업훈련 인프라 개선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 과제(①-⑬)
기관과 응답자의 일반 현황과 특성에 대한 질문	·소속기관명(1), 성별(2), 직책과 주요 담당업무(3), 연령대(4), 학력(5), 관련 자격증 소유 여부(6), 업무 담당 근무경력(7)

또한, 직업훈련 수행자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조사 내용은 참여 직업훈련,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만족도, 일반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표 1-3> 직업훈련 수행자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

질문 범주	세부 내용(설문지 문항 번호)
참여 직업훈련	·참여 직업훈련의 등급과정(1), 참여 직업훈련 기간(2), 직업훈련 참여목적과 이유(3)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만족도	·취업지원 프로그램(①~⑧), 직업훈련 만족도(①~⑩), 직업훈련과정 후의 가능성 정도(①~③), 직업훈련 개선점(①~④)
응답자 일반 현황	·성별(1), 연령대(2), 학력(3), 결혼 유무(4), 교정생활 횟수(5)

나. 조사 설계 및 실시

직업훈련기관에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는 전수조사를 하였고, 직업훈련 참

여 수형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연구수행상의 인적·물적 자원의 제약 등에 의해 전체 표본집단 대상기관의 일부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 연구를 수행하였다. 표본집단 대상에 대한 문제는 전문가협의회에서 논의하였고, 그 결과 대략 3,700명 중에 조사대상은 직업훈련생의 수에 따라 총 7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접근 방법은 우편을 통해 진행하였다.

<표 1-4> 조사 대상기관 수와 직업훈련생 수

구분	기관 수	조사 훈련생	비고
대상기관	26개	740명	·기관은 전수조사 ·조사 훈련생의 선정은 100명 이상의 직업훈련이 있는 경우 40명, 100명 미만인 경우는 20명을 선정

표본집단 추출방법으로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견지에 의해 전체 집단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낼 것이라 판단되는 유목적적 추출방법(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이는 이 설문조사의 목적이 어떤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에 있다기보다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람들의 가치판단을 조사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연구는 전체 집단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나 어떤 표본집단 단위가 선택될 확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조사대상 참여 훈련생을 연구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추출하였다.

3. 전문가협의회 및 자문회의 개최

이 연구 전반, 즉 연구방향과 연구내용의 체계성과 상세화 및 적절성 검토, 연구방법 및 절차방식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문가협의회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교정시설 직업훈련의 실태 및 문제점 파악, 연구결과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였다.

<표 1-5> 전문가자문협의회 및 포럼 개최

협의회 유형	일시	참석자 및 주요 협의 내용	
전문가자문 협의회	8. 10(화)	참석자	·이연담, 박삼재(법무부), 최은하(한국사이버대학교), 노경선(영등포교도소)
		주요내용	·수형자 직업훈련 실태조사 설문지 검토
전문가자문 협의회	9.15(수)	참석자	·이연담, 이일환, 박삼재(법무부), 최은하, (한국사이버 대학교), 김시현, 이규용(대전교도소), 박중연, 박종근 (대전교도소), 김화중, 전영선(영등포교도소)
		주요내용	·수형자 직업훈련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
전문가자문 협의회	10.21(목)	참석자	·최은하(한국사이버대학교), 장희태, 최승유(경북직업훈 련교도소), 이철우(경북북부3교도소), 이희진, 이세환 (경북북부1교도소), 박광택 외 8명
		주요내용	·수형자 직업훈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전문가 포럼	11.12(금)	참석자	·최은하(한국사이버대학교), 윤옥경(경기대학교), 박정선, 곽대경(동국대학교), 오재돌(춘천교도소) 외 10명
		주요내용	·수형자 직업훈련 실태 및 개선방안
결과 보고회	11월 말	참석자	·최은하(한국사이버대학교), 이연담, 이일환(법무부) 등 20명
		주요내용	·수형자 직업훈련 개선방안 보완

제 2 장 수형자 직업훈련의 이론적 배경

최은하·김기홍

제1절 수형자 직업훈련의 인권적 접근

인간은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어야만 한다. 인간이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자유'와 '평등'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성을 위해 요구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상정해 보면 적어도 자유와 평등은 그러한 조건들 가운데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일 때에만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이준일, 2007).

1. 자유권과 수형자 직업훈련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는 자유 전체를 의미하는 일반적 자유와 일반적 자유를 구체화하는 개별적 자유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어떠한 형태의 자유든 자유는 다양한 권리들을 통해 보장될 필요가 있다.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에 는 방어권, 보호권, 절차권, 사회권이 있다. 자유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리 없는 자유는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 한편, 평등 또한 평등 전체를 의미하는 일반적 평등과

일반적 평등을 구체화하는 개별적 평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 평등은 다양한 차별사유나 차별영역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요청되는 평등을 말한다. 이러한 일반적 평등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과 같은 다양한 차별사유에 따라,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영역과 같은 다양한 차별영역에 따라 개별적 평등으로 구체화된다.

자유란 행위 여부를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관적 지위를 말한다. 자유는 어떤 행위를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규범적 상태를 전제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개인에게 행위여부를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주관적 지위를 부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는 행위 여부를 결정에 관한 형식적 자유이다. 이에 반하여 실질적 자유는 단순히 의무를 제거한 상태가 아니다. 실질적 자유는 자유를 실현하는 현실적 기초나 물질적 토대를 보장한다. 그리고 개인에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을 요구하는 주관적 지위를 보장한다. 물론 자유는 무엇보다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보장된다. 하지만 자신의 자유를 실현하는 경제적 여력이 없으면 자신에게 보장된 자유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완전한 자유는 의무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형식적 자유에 대한 제한은 의무라는 규범적 성격의 것이다. 반면에 실질적 자유에 대한 제한은 경제적 장애라는 사실적 성격의 것이다. 경제적 장애를 제거한 실질적 자유를 사실적 자유라고도 한다. 수형자에게 주어지는 직업훈련은 사실적 자유 보장을 위한 사회적 기본권 또는 사회권이라고 할 수 있다.

2. 평등권과 직업훈련

평등은 모든 것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다.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평등을 상대적 평등으로 이해하는 경우에 문제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무엇을 같게 대우하고 무엇을 다르게 대우할 것인지도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없게 된다. 또한 평등은 법적 평등뿐만 아니라 사실적 평등을 포함한다. 평등은 단순히 기회나 가능성이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평등은 법적 평등을 주장하는 쪽이 아니라 사실적 평등을 주장하는 쪽에서 자신의 주장을 논증해야 하는 부담을 진다. 사실적 평등은 법적 불평등(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

수형자 직업훈련에 있어 모든 수형자가 평등한 가운데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또는 기회에 따라 달리 주어지는 상대적 평등 그리고 사실적 평등을 의미한다.

3. 직업훈련의 법률적 근거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이념 때문에 이른바 많은 사회적 기본권(생활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헌법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즉,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국민생활의 상향식 평준화를 이룩하여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는 헌법전문이 정신을 구체화하는 여러 규정들로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절대시하고 행복추구를 권리화한 것을 비롯하여, 평등권, 직업의 자유, 사유재산권보장과 재산권의 사회기속성강조, 사영기업의 국·공유화금지, 교육의 기회균등, 근로의 권리와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노동3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 환경권과 보건권,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구조제도, 여자의 복지와 권익 및 기회균등의 보장, 연소근로자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그것이다. 헌법에 나타난 이러한 사회적 기본권은 주관적 권리만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거의 그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헌법의 객관적 질서로서의 사회국가원리가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원리로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객관적 질서로서의 사회국가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

정책·노동정책·경제정책·조세정책 등은 이들 사회적 기본권에 내포되고 있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 때문에 어디까지나 국민의 자유·평등·정의를 무시하거나 경감시키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고 한다(허영, 2008).

범죄를 저지르고 형 집행을 마친 출소자가 재범에 이르는 비율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출소 후 3년 이내 다시 교도소에 수용되는 재범역률은 22.5%로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형자가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성공적인 사회적응력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론을 제기할 논지는 많지 않다고 본다. 무엇보다 사회복귀의 큰 장애요인은 전과자라는 부정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실제 그들이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 기능을 갖추지 못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교육과 교화정책 중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교도소에서 직업훈련을 수료하고 출소한 수형자와 그렇지 않은 수형자의 재범률 분석 결과 취업률에 있어 전자의 경우 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응능력이 현저히 차이가 난 점을 감안하면 직업훈련에 대한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수형자 직업훈련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 중에서 직업훈련생을 선발하여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추구하는 교정 프로그램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수형자직업훈련의 법적 체계는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동법 제69조, 동법 시행규칙 제2절 제124조에서부터 128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외 법무부령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법령체계는 수형자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건전한 국민으로 육성하여 성공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기 위한 헌법상 기본권원리인 사회국가원리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수형자 처우에 대한 역사적 모델은 수형자 처우 모델에서 그 기원과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제2절 사회국가의 원리 속에서 수형자 직업훈련

1. 사회국가원리의 개념적 의미와 구현방법

사회국가원리는 인간의 존엄에 적합한 기본적 생활수요를 보장하고 국민의 생활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면서 그것에 대한 요구가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국가원리이다. 사회국가원리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에서 경제적 강자는 경제적인 힘을 이용해 경제적 약자를 인격적으로 종속시키고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였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강자와 경제적 약자 간의 계약자유원칙은 경제적 약자의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은 사회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붕괴시킬 정도로 심각해졌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주의 이론과 사회국가원리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를 완전히 다른 생산체제로 바꾸려 하였으나 사회국가원리는 자본주의를 안에서 개량적으로 사회분제를 해결하려는 원리로 등장한 것이다.

독일은 바이마르 헌법에서 사회적 기본권을 최초로 명문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회국가원리를 채택하였고, 독일기본법에서는 사회적 법치국가, 사회적 연방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최초로 수용하였다.

사회국가원리의 규범적 성격의 인정여부에 따라 헌법이 사회국가원리를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사회국가조항은 국민에게 주권적 공권을 주지 않으므로 규범적 효력이 없다는 부정설과 헌법상 사회국가원리는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국가목표규범이라고 하는 긍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사회국가원리는 현대사회국가 헌법이 추구하는 핵심원리이므로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헌법상 규범으로 보는 것이 통설적 입장이다.

국가는 헌법상 사회국가원리를 실현할 법적 의무를 지는데, 사회국가를 구

체화시키는 일차적 책임은 입법자에게 있고 사회국가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하여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사회국가의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주어져 있다. 사회국가원리 구현 방법으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사회적 기본권 보장, 사회적 강자의 재산권, 계약의 자유 제한, 사회보장제도 및 교육제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국가원리 또한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과 사회의 자율을 우선하여 개인과 사회의 노력이 기능하지 않을 때에만 국가는 부차적으로 도움을 주고 배려한다는 보충성 원칙과 국가는 합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적 강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한 한계, 법률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과잉금지원칙,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원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기본권 보장상 한계, 급부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재정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국가재정상의 한계를 들 수 있다.

현행 우리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고, 사회국가규정은 없으므로 사회국가원리로부터 주관적 권리를 도출할 필요성이 없다. 사회국가원리는 주관적 권리가 아니므로 사회국가원리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다만 사회국가원리는 헌법상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규범이므로 재판규범으로서는 원용할 수 있다고 본다.

2. 사회국가원리와 수형자 직업훈련

범죄로 인하여 형이 확정되어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가 사회적 약자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지 않다. 다만, 대부분의 수형자들이 충분한 교육의 기회가 없었다거나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일반적 상식에 해당된다. 더구나 범죄 전력이 있는 수형자의 사회복귀는 더욱 그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특히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 수형자 재범률은 12% 정도(직업훈련 수형자의 재범률은 7.5%이며, 기능장이나 고급기술사 자격

취득자의 재복역 사례는 없음.)에 이르는 등 범죄 문제는 크나큰 사회적 문제로 인식이 된 지 오래다. 이러한 사회진출을 위한 약자적 위치에 있는 수형자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사회적응력을 기르기 위한 직업훈련의 수요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정시설에 있어서 직업훈련의 이론적 배경을 사회국가원리에서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하겠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면서(동법 제1조)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의 일환으로 교육 및 교도작업 그리고 직업훈련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 제69조에서는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형자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교정에 있어서의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절 수형자 처우모델과 직업훈련

1. 수형자 처우 모델의 발전

일반적으로 수형자의 교정시설에서의 처우 목적은 수형자 개개의 심리적·행동적 문제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교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수형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범죄성을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게 하는 데 있다(김용구·김재철, 2009). 수형자 처우 모델은 구금 모델, 의료 모델, 적응 모델, 정의 모델, 재통합 모델 등이 있다. 여기서는 상세한 이론적 설명보다는 간략하게 직업훈련의 연계만을 기술하도록 한다.

가. 구금 모델

범죄인에 대한 처벌은 범죄결과에 대한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형벌관으로 18세기 후반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고전학과 형벌관이라 하는데, 현대에 와서도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미국의 부정기형제도의 폐지나 강제적 정기형의 강조, 보호관찰부 가석방의 폐지 또는 1993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최초 입법화된 3진법(3 strikes-out), 즉 3번째에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종신형의 부과 등 형사정책의 복고화 현상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 모델은 범죄행위 그 자체와 범죄자의 자유의지에 초점을 맞추고 범죄의 원인이나 범행의도, 범죄자의 특수한 상황이나 외부적 요인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므로 운용이 용이하고 범행의 해악정도에 상응하는 엄격하고 정확한 처벌을 중시한다(김종덕, 2003).

그러나 범죄에 대한 억압만으로는 범죄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처벌모형은 더욱 비인간적이고 불공정한 형사사법제도를 만들게 되고,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제반 사회적 문제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교정시설에 있어서의 구금 모델은 교화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나. 의료 모델(medical model)

알렌(F. Allen)은 “인간의 행위는 선례적 원인의 산물이며, 이러한 선례적 원인을 밝혀냄으로써 인간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으며, 범죄자를 처우하기 위해서 채택된 방안들은 범죄자 자신의 만족, 건강 그리고 행복을 위하여 범죄자의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Francis A. Allen, 1964).

의료 모델에 의하면 범죄의 원인은 밝혀질 수 있으며, 따라서 치료하고 완

치시킬 수 있는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처벌은 범죄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되며, 오히려 범죄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관념을 재강화시키기 때문에 범죄자의 처벌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범죄자에 대한 지식과 진단능력을 기초하여 형사사법제도에서 폭넓은 의사결정권을 가질 것을 주장하며, 범죄자의 치료를 위해서 다양한 정신 건강시설의 폭넓은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송광섭, 2004).

이 또한 수형자를 심리적·정신적 환자로 보기 때문에 상담 등을 통한 심리적 개선을 위한 치료대상으로 볼 뿐 적극적으로 사회복귀의 일원으로 직업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적응 모델(adjustment model)

1960~1970년대 들어 의료 모델에 대한 불만이 새로운 교화개선 모델의 출현을 부채질하였다. 물론 이 새로운 모델도 의료 모델과 같이 범죄자는 비범죄자와 다른 병자이고, 그들은 처우를 필요로 하며 치료될 수 있다고는 믿고 있지만, 범죄자도 자신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고 법을 준수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적응 모델은 범죄자들이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데 주요 관심을 두기 때문에 시설수용의 지나친 이용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처우기법으로는 시설 내 처우인 현실요법(reality therapy), 교류분석(transactional analysis), 집단지도상호작용(Guided Group Interaction : GGI), 환경요법(milieu therapy), 요법처우공동체(therapeutic community), 그리고 행동수정(behavior modification) 등이 있다.

이 모델은 상당 부분 수형자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직업훈련 등 적극적인 자기개선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라. 정의 모델

교화개선 모델은 교정시설에서의 잔혹성을 숨기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재소자들은 처우되고 있기 때문에 적법절차를 요하지 않고 많은 교정사고의 원인이 바로 교화개선이 전제로 하는 부정기형의 산물이지만 부정기형은 재소자의 행기를 장기화하여 재소자를 더욱 불안에 처해 있게 하였으며, 재소자의 사회복귀의 측면은 그다지 효과적인 결과를 성취하지 못하였다. 결국 차별적 형사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아 가면서 추진한 교화개선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도 못할 바에는 형사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도 추구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데에서 정의 모델은 출발하였다.

정의 모델은 범죄자를 처벌하되 인간적인 방법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처우할 것을 권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다. 이는 교정의 기본목표로서 교화개선사상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더는 미련을 갖지 않으려는 강경대응(get-tough)의 분위기 때문에 교화개선보다는 사회적으로 쉽게 수용될 수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맥아내니(McAnany)는 범죄의 경중을 결정하는 일이 일종의 정치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의 모델의 실현에 적지 않은 장애요인이 된다고 비판하였다. 한편, 정의 모델은 실제로 형사사법기관의 특성상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정의 모델의 주장은 일종의 구두선에 그치기 쉽다는 것이다. 쿨렌과 길버트(Cullen & Gilbert)는, 응보적 원칙에 뿌리를 둔 정의 모델은 범죄자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형사사법체제에 비해 더 정의롭고, 공정하며, 인본주의적이고, 효과적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Cullen, Francis T./ Ginert, Karen E., 1982).

이는 현대적 구금 모델로 이해되기 쉬우나 수형자를 적법절차에 따라 처우해야 한다는 처우관념을 담고 있다. 따라서 그것이 강제적이지 않는 범위에서 스스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직업훈련의 기회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용납이 된다고 할 것이다.

마. 재통합 모델(reintegration model)

재통합 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은 범죄자의 문제는 범죄문제가 시작된 바로 그 사회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모델이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실적으로 교정당국에서 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범죄자의 교화개선은 물론이고 교화개선된 범죄자가 더 이상 문제 없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범죄문제를 유발하였던 그 사회도 변화·개선되고, 교화개선된 범죄자를 수용하여 사회와 범죄자가 다시 통합되어야만이 범죄자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정갑섭, 1996, 최영신, 2007))

그러므로 범죄자는 일반시민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가족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이러한 전제와 가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초한 교정(community-based corrections)을 강조한다. 즉, 핵심적인 주요 강력범죄자를 제외하고는 지역사회 교정이 바람직하며, 시설수용이 어쩔 수 없는 일부 강력범죄자에게도 가능한 한 다양한 사회복귀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주희중, 1999).

재통합 모델은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 모델 중 직업훈련 정책에 가장 적합한 근거를 제공해주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2. 수형자 직업훈련과 처우 모델

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능력을 기른다는 의미에서 그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직업훈련의 필요성은 기존의 수형자에 처우 이론들인 의료 모델, 적응 모델이나 사회재통합 모델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의료 모델이 심리적·정신적 치료에 중점을 둔 교정의 객체적 위치에서 수형자의 개선을 도모한다면, 적응 모델이나 사회재통합 모델은 수형자를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그들의 자발적 노력에 의한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처우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사회 자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요구하는 사회재통합 모델은 사회의 일원으로 수형자를 받아들여 그들의 사회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처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교정 처우 모델은 재통합 모델을 중심으로 하면서 일부 교정모델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회의에서 정의 모델이 강조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어느 경우이든지 수형자는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교정시설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닌 한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능력개발은 주요한 교정정책이 되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범죄문제는 단순히 교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환경의 문제이고, 이는 모든 국가 사회자원의 관심 없이는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담보할 수 없는데 인식을 함께 하여야 한다.

제4절 종합 시사점

상기의 수형자 직업훈련과 관련된 이론적 고찰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이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자유권'과 '평등권'으로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된다는 점이다. '자유권'과 관련하여 '자유'라는 행위 여부를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관적 지위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자유는 어떤 행위를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규범적 상태를 전제하며, 이러한 상태는 개인에게 행위 여부를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주관적 지위를 부여한다. 이러

한 의미에서 자유는 행위 여부의 결정에 관한 형식적 자유이다. 이에 반하여 실질적 자유는 단순히 의무를 제거한 상태가 아니라, 자유를 실현하는 현실적 기초나 물질적 토대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완전한 자유는 의무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으므로 수형자에게 주어지는 직업훈련은 사실적 자유 보장을 위한 사회의 기본권이라는 점이다. 이와 유사하게 '평등권'과 관련하여 평등은 법적 평등뿐만 아니라 사실적 평등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평등은 단순히 기회나 가능성이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까지 포함하며, 수형자 직업훈련에 있어 모든 수형자가 평등한 가운데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또는 기회에 따라 달리 주어지는 상대적 평등 그리고 사실적 평등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국가원리는 인간의 존엄에 적합한 기본적 생활수요를 보장하고, 국민의 생활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면서 그것에 대한 요구가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원리라는 점이다.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형자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교정에 있어서의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규정이라는 점이다.

셋째, 수형자 처우 모델은 구금 모델, 의료 모델, 적응 모델, 정의 모델, 제통합 모델 등이 있다. 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능력을 기른다는 의미에서 이들 모델의 중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직업훈련의 필요성은 기존의 수형자에 처우 이론들인 의료 모델, 적응 모델이나 사회재통합 모델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의료 모델이 심리적·정신적 치료에 중점을 둔 교정의 객체적 위치에서 수형자의 개선을 도모한다면, 적응 모델이나 사회재통합 모델은 수형자를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그들의 자발적 노력에 의한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처우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사회자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요구하는 사회재통합 모델은 사회의 일원으로 수형자를 받아들여 그들의 사회정착

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처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 3 장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현황 분석

김기홍 · 김선태 · 이언담

제1절 수형자 직업훈련제도

교정시설 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1594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징치장에서 노동이 근대 교정을 여는 첫 번째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다만, 근대적인 수형자 직업훈련은 그 노동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산업사회의 요청에 기초하여 발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형자의 직업훈련은 근로정신의 함양과 기술습득으로 출소 후 직업의 안정을 도모함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인식해 왔다. 수형자의 직업훈련은 1950년대 말까지 일반 교도작업과 동일하게 운영되어 왔으나, 1961년 직업훈련을 특과훈련(特科訓練), 기술훈련(技術訓練), 실무실습(實務實習)으로 구분하고,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기술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법무부 교정본부, 2010: 대한민국교정사 제1권).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중요하고 긴급하게 요구되었던 고급 산업인력의 육성이라는 목표를 매우 성공적으로 달성해왔다는 사실은 세계 기능경기대회에서 수십 년간 1위를 고수해 온 것으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교정시설이 국가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된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한 축으로 학교와 더불어 그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직업훈련은 「직업훈련법」(1967. 1. 16.)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에게 직업훈련과 기능검정을 실시하여 산업전선에 필요한 기능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교정시설에서의 현대적 의미의 직업훈련은 1969년 5월 30일 노동청장의 공공직업훈련 인가를 받아 같은 해 6월 3일 전국 21개 교정시설에 공공직업훈련소를 처음으로 설치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 후 직업훈련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거듭하였고, 1977년 현대조선중공업과 대구교도소, 대우중공업과 인천소년교도소, 동아건설과 영등포교도소, 충남방직과 대전교도소 등이 연계되어 지원 직업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보다 양질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1979년 9월 영등포교도소 등 3개 교도소에 종합 정예직업훈련소를 운영하게 되었고, 1984년 수원교도소에서는 모범수형자 12명을 대상으로 삼성전자 수원공장 훈련원에 출장훈련을 실시하여 그중 일부가 취업을 하기도 하였다.

현재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직업훈련은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법무부 예규 제845호, 2009. 8. 28.)’에 의거 시행되고 있다.

직업훈련의 종류로는 설치기준에 따른 구분과 시행방법에 따라 달리 구분하고 있다. 수형자 직업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훈련기준에 따라 각종 기술자격취득을 목표로 실시하는 공공직업훈련과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교정기관장이 교화상 필요한 경우 각 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실시하는 일반 직업훈련으로 구분된다. 공공직업훈련은 훈련의 목적에 따라 양성훈련과 향상훈련 및 정예훈련으로 구분하고, 일반 직업훈련은 양성훈련, 향상훈련, 공급훈련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양성훈련은 기초적인 직무수행능력과 기능사자격취득을 목표로, 향상훈련은 보다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과 산업기사자격취득을, 정예훈

련은 기초적 직무수행능력 및 정예화된 직무수행능력을 위해 기능사 및 산업기사 자격 취득을 목표로 직업훈련이 실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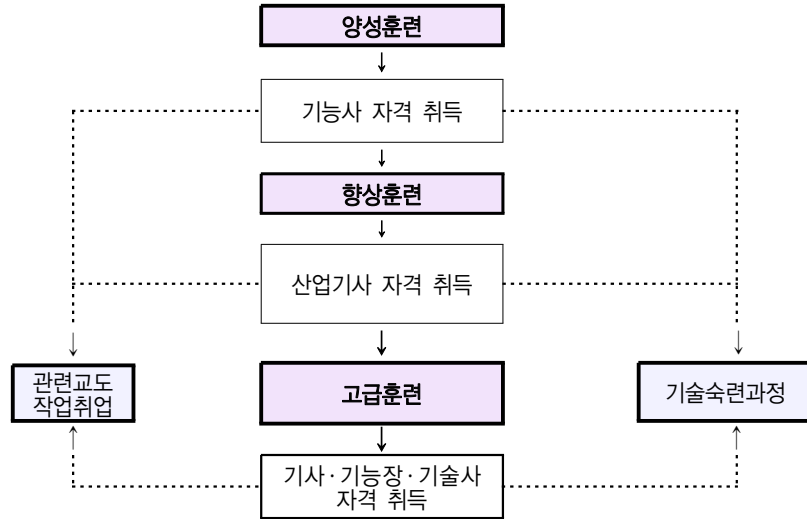
<표 3-1> 수형자 직업훈련의 구분

훈련 종류	목표	내용
공공 직업훈련	양성훈련	기능사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향상훈련	산업기사 ·양성훈련을 받은 자 또는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정예훈련	기능사 산업기사 ·보다 정예화된 기능 습득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직업훈련 전담 교도소에서 실시하는 집체훈련
일반 직업훈련	양성훈련	기능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자소의 실정에 맞도록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향상훈련	산업기사 ·산업기사 취득을 목표로 양성훈련을 받은 자와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
	고급훈련	기사 이상 ·지식산업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첨단고급직종을 선택하여 고급자격취득을 목표로 하는 장기직업훈련

자료: 법무부(2006), 수형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운영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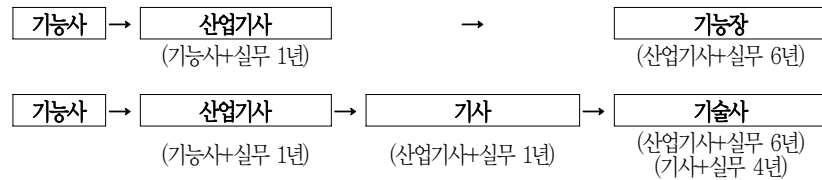
시행방법에 따라 집체훈련, 지원직업훈련, 외부출장 직업훈련, 작업병행 직업훈련 등으로 나누고 있다. 여기서 집체훈련이란 직업훈련 전담 교정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집중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하고, 지원직업훈련이란 산업체 등으로부터 훈련에 필요한 훈련교사, 장비, 재료, 비용 등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의미한다. 수형자 직업훈련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직업훈련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1> 수형자 직업훈련 과정도



수형자의 직업훈련 과정은 양성훈련, 향상훈련, 고급훈련의 3단계로 나누어지고, 이는 직업훈련 직종의 수준과 자격취득 단계에 따라 기능사와 기능장, 산업기사와 기술사로 구분하여 이루어진다. 직업훈련기간을 보면, 산업기사는 기능사 자격취득과 더불어 실무 1년의 직업훈련이 필요하며, 기능장은 산업기사 자격 취득과 더불어 실무 6년간의 기간이 요구된다. 또한, 기사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과 더불어 실무 1년의 기간이 필요하며, 기술사는 기사 자격 취득과 더불어 실무 경력 4년이 요구된다.

<그림 3-2> 수형자의 자격 취득 단계와 직업훈련기간



수형자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훈련교사는 초기에는 외부인사를 초빙하다가 점차 작업교사의 정원을 확대하여 자체 교사진을 확보하고 있다.

2000년 이전에서는 직업훈련 직종이 전통적인 기능사 자격을 위한 직종이 많았으나, 지식정보화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에 따라 사양 직종의 직업훈련은 연차적으로 폐지하고, 출소 후 취업에 용이한 첨단직종으로 개편하고 있다. 특히 기술자격 취득 수형자를 대상으로 기술숙련과정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청주여자교도소를 여성 수형자 직업훈련 전담기관으로 지정 운영하여 기관의 전문화와 훈련직종의 특성화를 기하고 있다.

제2절 수형자 직업훈련 운영 현황

1. 교정시설 수형자와 직업훈련 및 취·창업 현황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의 추이를 보면,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7년에 4만 5,647명, 2008년에 4만 7,966명, 2009년에 4만 8,228명, 2010년 8월 현재 4만 6,461명이다. 2007년을 제외하고는 전체 수용자 중에 소년 수형자는 10% 정도이다.

<표 3-2> 교정시설 수형자 현황

(단위: 명)

연도	성인 수형자		소년 수형자		계
	남	여	남	여	
2007년	42,226	2,394	995	32	45,647
2008년	44,947	2,498	485	36	47,966
2009년	45,153	2,603	441	31	48,228
2010년 8월 현재	43,452	2,486	474	49	46,461

자료 : 법무부(2010년). 수형자 현황. 내부자료.

교정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한 수형자의 현황을 보면, 2007년에 3,279명(남: 3,108명, 여: 171명), 2008년에 3,470명(남: 3,222명, 여: 248명), 2009년에 3,537명(남: 3,311명, 여: 326명)이다. 전체적으로 교정시설에서의 직업훈련 이수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3-3>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현황

(단위: 명)

연도	직업훈련 이수자		
	남	여	계
2007년	3,108	171	3,279
2008년	3,222	248	3,470
2009년	3,311	226	3,537

자료: 법무부(2010. 직업훈련 현황. 내부자료)

직업훈련 이수자의 출소 후 취·창업의 현황을 보면, 2006년 이후 직업훈련을 이수한 4,959명이 출소하여 1,643명(33.1%)이 취·창업을 하였고, 미취업자는 3,316명(66.9%)이다. 이들 취·창업자들 중에 취업자는 1,465명(89.0%), 창업자는 178명(11.0%)으로 나타났다.

<표 3-4> 직업훈련 이수자의 출소 후 취·창업 현황

(단위: 명)

연도	수료 후 출소인원	취업인원			미취업인원 (미취업률)	비고
		소계	창업	취업		
계	4,959	1,643 (33.1%)	178 (11.0%)	1,465 (89.0%)	3,316 (66.9%)	
2006년	1,322	528 (40.0%)	62 (12.0%)	466 (88.0%)	794 (60.0%)	
2007년	1,860	684 (37.0%)	78 (11.0%)	606 (89.0%)	1,176 (63.0%)	
2008년	1,777	431 (24.3%)	38 (9.0%)	393 (91.0%)	1,346 (75.7%)	

자료: 법무부(2010년). 취·창업 현황. 내부자료.

* 창업인원은 전화조사를 통해 확인된 인원임. 취업인원은 직장의료보험 등이 적용되는 사업체에 등록된 인원임. 또한, 직업훈련 이수자와 출소자 개념이 다름. 직업훈련을 이수했다고 해서 곧바로 출소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됨. 이러한 직업훈련을 마치고 매년 출소한 자에 대한 취업률을 나타낸 것임.

2. 수형자 직업훈련 운영기관과 과정 현황

2010년도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과정 영역은 <표 3-5>와 같다. 기술 분야는 크게 IT 관련 분야(기계, 건축, 정보처리, 산업응용, 통신)와 비 IT 관련 분야(기계, 전기, 건축, 섬유, 국토개발, 농림, 공예, 음식료, 위생, 기타)로 구분된다. 직업훈련 과정은 기능사 과정이 39개, 산업기사 과정이 14개, 기사 이상의 과정이 8개, 그리고 전문숙련 과정이 9개이다. 전체적인 직업훈련 참여인원은 3,700명으로 IT 관련 분야의 과정에 589명, 비 IT 관련 분야에 3,111명이 배정되어 있다.

<표 3-5> 수형자 직업훈련의 과정 영역

기술분야 \ 등급		인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이상	전문숙련훈련
총계		3,700	39개 과정	14개 과정	8개 과정	9개 과정
소계		589	8개 과정	2개 과정	2개 과정	1개 과정
IT 관 련	기계	139	컴퓨터응용선반, 전산응용기계제도	컴퓨터응용기계	기계가공, 기능장	
	건축	45	전산응용건축제도			
	정보처리	105	정보처리, 네트워크관리	정보처리	정보처리기사	
	산업응용	55	광고디자인, 승강기			
	통신	245	정보기기운용			컴퓨터수리응용
소 계		3,111	31개 과정	12개 과정	6개 과정	8개 과정
비 IT 관 련	기계	877	자동차정비, 용접, 자동차판금, 도장, 배관, 산업설비, 전기용접, 공조냉동	자동차정비·검사, 산업설비, 용접 정밀측정	보일러시공기 능장5용접기 능장	자동차정비 산업설비 용접
	전기	162	전기공사	전기		전기
	건축	914	플라스틱창호, 조적, 타일, 미장, 건축도장, 건축목공, 실내건축, 인테리어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기능장, 건축기사실무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표 계속>

기술분야 \ 등급	인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이상	전문숙련훈련
섬유	183	양복, 양장	양복 패션디자인		
국토개발	40	조경, 실내조경			
농림	60	원예, 화훼장식	원예실무		
공예	55	도자기공예, 가구창호, 귀금속공예			
음식료	526	제과제빵, 식품조리, 한식조리, 조리			제과제빵
위생	219	이용, 미용			이용
기타	75	피부미용	가스		

수형자 직업훈련 직종은 노동시장의 변화에 준하여 그리고 수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매년 직업훈련 직종의 신설과 폐지를 통해 훈련직종을 기관별로 특성화하거나 일부 정예화된 훈련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조정을 하고 있다.

<표 3-6> 수형자 직업훈련직종 조정 현황

청별	기관별	신설 및 폐지 직종	이유
서울청	안양(교)	·사무자동화, 보일러시공 폐지 ·정보처리 기능사 신설	·통폐합 계획에 의거
	화성직훈(교)	·건축일반시공, 정밀측정, 건축목공, 양복, 건축설비 신설	·화성(직) 운영계획에 의거 신설
	영등포(교)	·타일,미장 신설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폐지	·통폐합 계획에 의거
	여주(교)	·이용 폐지 ·PC정비→정보기기운용으로 통합	·통폐합 계획에 의거
	강릉(교)	·조적, 양복, 이용, 정보기기운용, 폐지	·통폐합 계획에 의거
대구청	대구(교)	·양복, 정보처리, 네일아트(여자) 폐지 ·건축목재시공기능장 신설	·통폐합 계획에 의거 ·고급과정 신설
	김천(교)	·전기공사, 산업설비 폐지 ·용접, 제과제빵 신설	·교정시설 기능전환 계획에 의거
	진주(교)	·자동차정비 폐지	·통폐합 계획에 의거
	청송제3(교)	·정보기기운용 폐지	·통폐합 계획에 의거

<표 계속>

청별	기관별	신설 및 폐지 직종	이유
대전청	대전(교)	·이용 폐지	·통폐합 계획에 의거
	청주(교)	·수치제어밀링 폐지 ·컴퓨터응용기계, 산업설비 신설	·통폐합 계획에 의거
	천안(교)	·자동차정비, CNC선반, 전기용접, 건축도장, 정보기기운용 폐지 ·원예, 이용, 배관 신설	·교정시설 기능전환 계획에 의거
	천안(개)	·자동차정비, PC정비 폐지	·통폐합 계획에 의거
	공주(교)	·건축목공 폐지	·통폐합 계획에 의거
	홍성(교)	·특수용접, 정보기기운용 폐지	·통폐합 계획에 의거
광주청	광주(교)	·사무자동화 폐지 ·PC정비→정보기기운용으로 통합 ·정보기기운용 신설	·통폐합 계획에 의거
	전주(교)	·건축목공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폐지	·통폐합 계획에 의거
	순천(교)	·가스 산업기사 신설 ·정보처리산업기사 신설 ·건축도장, 여자한식조리(하반기 폐지) ·산업설비, 정보처리 기능사 폐지	·취업 유망 직종 신설 ·정보분야 자격취득 ·통폐합 계획에 의거
	목포(교)	·자동차정비, 이용, 정보기기운용 폐지	·통폐합 계획에 의거
	장흥(교)	·정보기운용, 건축목공, 건축시공 폐지	·통폐합 계획에 의거 폐지

현재 수형자 직업훈련 운영 기관은 26개 교정시설에서 94개 과정의 양성 훈련(기능사과정)과 28개 과정의 향상훈련(산업기사 과정), 그리고 9개 과정의 전문숙련훈련(기능사, 산업기사)을 제공하고 있다.

<표 3-7> 수형자 직업훈련 운영 기관별 과정(1)

소별	구분	공공직업훈련	
		양성훈련(기능사 과정)	향상훈련(산업기사 과정) / ◆ 전문숙련훈련(기능사, 산업기사)
총 계		(94개 과정)	(37개 과정) / (향상훈련 : 28개과정), (◆ : 9개 과정)
소계		(29개 과정)	(11개 과정)
서울 지방 교정 청	안양	건축목공, 타일(미장, 조적 병행), 도자기 공예, 정보처리(PC정비 병행), 정보기기 운용(PC정비 병행)	
	화성(직)	[자동차도장판금, 공조냉동, 이용, 네트 워크관리, 제과제빵, 조리]	[자동차정비검사(①, ②), 컴퓨 터응용가공(①, ②), 전기(①, ②), 용접(①,②), 건축일반시 공①, 정밀측정①, 건축설비①, 건축목공①, 양복①]
	여주	자동차정비(자동차검사 병행), 정보기기운용 (PC정비 병행), 양복	[한식조리(여자, 하반기)]
	의정부	실내조경, 조경	
	영등포 (교)	[(건축도장), (식품조리), 컴퓨터응용선반, 광고디자인, 전산응용건축, 프라스틱창호, 자동차정비, 타일미장]	
	춘천	승강기(PC정비 병행), 자동차정비(건설 기계기관정비 병행)	
	원주	원예, 가구창호	건축일반시공①, 원예실무②
소계	(28개 과정)	(5개 과정)	
대구 지방 교정 청	대구	용접(특수용접병행), 타일미장, 건축목공, 이용, 정보기기운용(PC정비 병행)	건축일반시공②, 용접②, 건축 목공①
	청송(교)	조적, 미장, 양복, 정보기기운용	
	부산(교)	전기용접, 양복, 이용, 정보기기운용(PC정 비 병행)	
	마산	정보기기(PC정비 병행), 제과제빵	건축일반시공②
	포항	용접, 전기, 실내건축	
	진주	이용, 건축도장	건축목공②
	청송(직)	◆전문숙련훈련◆	자동차정비 I, 자동차정비, 산업설비, 용접, 건축일반시 공, 건축도장, 전기, 컴퓨터수리응용, 이용, 제과제빵
	안동	건축목공(숙련), 양복(숙련), 이용(숙련)	
김천(소)	용접, 제과제빵, 자동차정비		
청송3(교)	(인테리어시공), 자동차정비, 산업설비		

<표 3-8> 수형자 직업훈련 운영 기관별 과정(2)

소별	구분	공공직업훈련		
		양성훈련(기능사 과정)		향상훈련(산업기사 과정) / ◆ 전문숙련훈련(기능사, 산업기사)
대전지방교정청	소계	(16개 과정)		(5개 과정)
	대전	공조냉동, 전산응용기계제도, 자동차정비	[(피부미용, 여자)]	건축일반시공②
	청주	[(건축도장), 전산응용건축제도, 정보기기운용(PC정비 병행), 산업설비, 전기]	이용, 양복	[건축일반시공②, 자동차정비검사①, 건축목공①, 컴퓨터응용기계①]
	천안(교)			
	청주(여)	[(한식조리), (미용), (제빵), 양장, 화훼장식]		
광주지방교정청	소계	(21개 과정)		(7개 과정)
	광주	정보기기운용(PC정비 병행), 이용		자동차검사②, 산업설비②
	전주	(타일,조적), (한식조리), 이용, 건축목공		
	순천	[(한식조리), (건축도장, 상반기만 운영), 전기공사, 한식조리8(여자, 상반기 종료)]		[건축일반시공②, 건축목공②, 가스①, 정보처리①]
	목포	건축목공		
	군산	[한식조리(장애인), 제과제빵(장애인), 양복(장애인), 귀금속공예(장애인)]	자동차정비, 건축도장, 이용	
제주	자동차정비, 자동차도장, 이용		자동차정비①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과정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표 3-10>과 같다. 전체적으로 과정은 감소하고 있으나, 참여인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3-9> 수형자 직업훈련 과정 변화 추이

연도별	과정별	총계 (A)	공공직업훈련			일반직업훈련				
			계 (B)	양성훈련 (집체훈련)	향상훈련 (집체훈련)	전문숙련 훈련	계 (C)	양성 훈련	향상 훈련	고급 훈련
2007년		190	155	118	21	16	35	15	13	7
2008년		173	139	114	22	3	34	14	11	9
2009년		165	135	110	21	4	30	13	11	6
2010년 예정		155	129	95	27	7	26	11	7	8

* 연도별 각 직업훈련기관에서 제공한 과정의 총합

3. 직업훈련 참여 수형자의 수료와 중도탈락의 현황

교정시설 직업훈련 참여자의 수료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3,202명 중 2,253명이 수료했으며, 2008년도에 3,225명 중 2,794명이, 그리고 2009년도에 3,218명 중 2,708명이 수료했다.

<표 3-10> 수형자 직업훈련 인원 및 수료인원 변화 추이

(단위 : 명, %)

연도별	직업훈련 인원					수료 인원				
	계 (A)	기능장 (B)	기사 (C)	산업 기사 (D)	기능사 (E)	계 (F)	기능장 (G)	기사 (H)	산업 기사 (I)	기능사 (J)
2007년	3,202	35	11	537	2,619	2,553	15	11	282	2,245
2008년	3,225	25	14	438	2,748	2,794	4	7	288	2,495
2009년	3,218	30	10	470	2,708	2,584	6	6	204	2,368

* 연도별 각 직업훈련기관의 총합과 평균

직업훈련 참여 수형자의 중도탈락 비율을 보면, 2007년에는 19%이고, 2008년에는 13%, 2009년에는 19% 정도 나타나고 있다. 일반 직업훈련과 달리 특수한 상황에서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도탈락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중도탈락의 비율을 줄일 수 있는 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3-11> 수형자 직업훈련 중도탈락률 변화 추이

(단위 : 명, %)

연도별	직업훈련 참여자(A)	중도탈락자(B)	중도탈락률 ((B/A)×100)
2007년	3,202	639	19
2008년	3,225	431	13
2009년	3,218	634	19

* 연도별 각 직업훈련기관의 총합과 평균

4. 직업훈련 이수자의 자격증 취득 현황과 수상실적

직업훈련 이수자의 자격증 취득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2,553명의 수료자 중 2,133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중 기능사가 1,917명으로 89.9%에 달한다.

<표 3-12> 수형자 직업훈련 이수자 자격취득 변화 추이

(단위 : 명, %)

연도별	취득 인원					취득률			
	계 (A)	기능장 (B)	기사 (C)	산업 기사 (D)	기능사 (E)	기능장	기 사	산업 기사	기능사
2007년	2,133	10	5	201	1,917	0.5	0.2	9.4	89.9
2008년	2,373	12	2	249	2,110	0.5	0.1	10.5	88.9
2009년	2,424	7	2	170	2,245	0.3	0.1	7.0	92.6

※ 취득인원(A)는 B+C+D+E이며, 취득률은 B/A×100.

2008년도에는 2,794명이 이수하였고, 이중 2,373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기능사 자격이 88.9%에 달한다. 2009년도에는 2,584명의 이수자 중 2,424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이중에 기능사 자격이 92.6%에 달하였다.

<표 3-13>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실적

연도별	총 계					전 국 대 회					지 방 대 회				
	계	금	은	동	우수	계	금	은	동	우수	계	금	은	동	우수
2009년	128	30	39	30	29	10		4	2	4	118	30	35	28	25
2008년	121	31	34	30	26	9	1	1	5	2	112	30	33	25	24
2007년	153	43	39	38	33	17	4	3	6	4	136	39	36	32	29
2006년	173	46	42	43	42	14	4	1	5	4	159	42	41	38	38
2005년	204	53	53	49	49	17	3	3	3	8	187	50	50	46	41

자격을 취득한 수형자 중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지방과 전국 기능경기 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그간 매년 전국대회와 지방대회에서 100개 이상의 메달을 따고 있다.

5. 수형자 직업훈련 전담인력 현황

26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투입되는 전담인력의 현황을 보면, 전담관리인력은 현원이 34명이지만, 13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규 직업훈련교사의 경우 현원이 116명이나 30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수형자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전담인력과 직업훈련교사의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 3-14> 수형자 직업훈련 전담인력의 현황

구분	2010년		
	현원	과부족(+, -)	비고(과부족 사유)
전담 관리 인력(B)	34	-13	
정규 직업훈련교사(C)	116	-30	
외부 교강사(D)	69	-3	
합계(A)	219	-46	

제3절 수형자 직업훈련 운영의 문제점¹⁾

1. 수형자 직업훈련 운영체제와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

교정시설 수형자의 직업훈련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과는 달리 일정 시설에 구금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형자의 구금 확보 차등으로 자율성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최근의 수형자 직업훈련은 이전과 달리 직업훈련 직종의 특성화와 직업훈련기관의 전문화를 위해 투자를 하고 있으나, 일부 많은 직업훈련생을 가지고 있는 경북직업훈련교도소나 화성

1) 이 연구에서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내용은 기존의 선행 연구가 미흡하여 전문가 자문협의회에서 수형자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현장 전담관리인력과 직업훈련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을 정리한 것임.

직업훈련교도소 외는 직업훈련 환경의 여건상 전문화 추진이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체제의 재구성과 지역사회의 연계 및 현장 활용 가능한 직종 운영에 검토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수형자 직업훈련체제의 발전과 재정비를 위해서는 교정청별 1개 특성화된 직업훈련전담 교도소를 설치·운영하여 수형자 직업훈련을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수형자 직업훈련 전담기관의 정비와 더불어 직업훈련의 특성화와 전문화는 수형자의 선호 직종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시장에서 인력부족의 문제를 갖고 있는 단기간 양성이 어려운 기능·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우선 직업훈련 직종'을 선정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취업과 연계를 강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직업훈련 대상자의 선정은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과 법무부의 수형자 직업능력개발 운영계획에 의거 선정하며, 수형자의 자율적인 지원으로 선발된다. 다만, 직업훈련을 통한 자기능력개발 의지를 가진 수형자 선발의 미흡과 선발 시 직종에 따른 학력, 연령 등을 고려하는 선발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간 계획 인원 확보에 치중한 나머지 부적격 대상자 선정에 따른 훈련 중 중도탈락의 비율이 높고, 장기 수형자의 경우 직업훈련을 통해서 기술습득보다는 시간 때우기 위해 참여하여 타 훈련생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직업훈련 대상자 선발은 실적위주의 훈련생 선발을 지양하고, 과정 수준에 준하는 기초수학능력에 맞는 훈련생 선발과 연령별 수준에 맞는 직종 선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수형자에게 형이 선고되면, 분류과에서 수형자의 적성 및 소질을 분류심사하고, 형기를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직업훈련을 유도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훈련생 선발을 위한 직종 안내 등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교정시설의 수형자는 일반 사회와 차단된 특수한 환경에서 생활하다가 훈련생으로 선발되어 자기보호적 본능이 과잉된 성향을 보이고, 주변의 사소한 환경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일반적으로 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숙련과정 훈련생들은 일선 교도소의 기

능사 자격취득반의 운영실태를 그대로 답습하려는 경향이 있어 실습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보안상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훈련 시간 외에 자율적인 일과 생활이 보장될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2. 직업훈련 전담인력의 문제점

교정시설 수행자 직업훈련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전담관리인력과 직업훈련교사로 구분된다. 여기서 전담관리인력은 일반 교정직렬의 공무원이고, 직업훈련교사는 별정직 공무원이다. 전담관리인력과 관련해서는 잦은 순환으로 원활한 행정업무의 진행이 미흡하며, 훈련인원에 비해 전담관리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직종별 직업훈련교사의 부족으로 주 1~2회 정도 외부강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전국 119명의 직업훈련교사 외에 대략 130명의 외래강사를 훈련에 투입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 직업훈련교사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직업훈련교사의 인력이 현재 직업훈련 기준에 의한 최소 기준에 맞추거나 혹은 그 이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 준비 및 교육, 각종 과중한 업무처리 등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교사는 별정직이기 때문에 승진의 기회, 신분보장, 소수로의 소외감, 명예퇴직 등 다양한 처우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7급 상당으로 시작된 직급이 평생을 해도 최고 5급까지 밖에 승진할 수 없고, 승진을 하더라도 보직(직위)이 주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현재, 임의적으로 5급을 중심으로 훈련실장으로 호칭하며 사실상의 직업훈련교사 감독을 행하게 하고 있으나, 화성직업훈련소의 직업훈련과장만이 직업훈련교사 5급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정시설 수행자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전담 관리 인원과 직업훈련교사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전담관리인력과 직업훈련교사에 대한 직업훈련 이해증진 및 업무능력 보유 및 향상을 위한 연수 실시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수행자 직업훈련의 제도화

를 위해서는 별정직인 직업훈련교사를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여 직업안정성의 보장과 인센티브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3. 직업훈련시설과 예산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을 위한 시설은 직업훈련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직업훈련을 위해 전문적인 시설을 갖춘 교소도는 경북직업훈련교도소와 화성직업훈련교도소뿐이며, 이외의 교도소들은 훈련인원에 비해 협소한 장소와 장비의 부족으로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교정시설 직업훈련을 위한 일반회계와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직업훈련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 극히 적게 편성되어 있어 충분한 훈련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1년 약 3억 5,000만 원의 시설장비 구입비가 편성되어 있다.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으로 직업훈련비용은 수용자의 교화개선을 위한 교육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일반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교도작업에 의한 수입원인 교도작업특별회계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38억에 이르는 직업훈련에 따른 작업장려금 등 비용은 교도작업에 투입되어야 할 비용으로 사실상 교도작업의 재정악화와 교도작업의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예산을 일반회계예산으로 일원화하고, 예산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수형자 직업훈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무부 외에 다른 정부부처의 연계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숙련과정은 고도로 숙련된 기술과 직업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직업훈련생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형자 직업훈련생 직업훈련 장려금은 5만 원 정도로 고용노동부의 우선선정직종 훈련수당 31만 원과 재취업과정 20만 원보다 매우 낮다. 이는 경북직업훈련

교도소의 연간 직업훈련생 450명 기준(매월 2,250만원× 12개월 = 2억 7,000만 원)으로 고용노동부의 정부위탁예산으로 할 때 (연간 50명 정도) 교육훈련비 지원에 불과하다. 직업훈련과 관련된 정부기관으로서 법무부는 안정된 수용생활과 출소 후의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교화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출소자가 구직에 들어가는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분담해야 한다. 따라서 수형자 직업훈련 예산의 현실화와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사업 혹은 전문보조 기능공예 대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수형자 직업훈련 지원예산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4. 직업훈련과정과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

직업훈련을 위한 대상자 선발과정에서는 장래 희망직종이나 전망을 생각하고 지원하기보다는 인기직종 위주의 지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수 과정에서 지나치게 질서를 강조함으로써 작은 실수에도 징계 등을 실시하여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도 탈락하는 수용자가 매우 많은 편이다. 따라서 단순한 기능사 과정은 다기능 과정으로 확대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실제 대부분의 과정들이 자격취득을 위한 훈련에 치중하고 있지만, 실제 산업체현장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이 미흡하다. 이와 더불어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기술위주로 짜여 있어 올바른 근로의식이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수형자 직업훈련이 긍정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이전에 수형자에 대한 전문적인 성향 파악과 단기 및 장기 수형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5. 직업훈련 이수 후 자격증 취득과 취업지원의 문제점

직업훈련 이수 수형자의 자격증 취득률은 높은 편이나, 상당수 수형자들이 직업훈련을 가석방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즉, 배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목표보다는 취득한 자격증을 가석방에 필요한 절차 충족의 요건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다. 또한, 잔여형기가 많이 남아 있는 수형자의 경우 습득한 기능의 유지 및 숙련을 위한 활용방법이 미흡하다. 장기적으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취득과 학점은행제와 연계한 전문학사 과정의 개설도 수형자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서는 요구된다.

수형자의 특성상, 심층적 상담의 종착점은 훈련생의 범죄행적(입소 계기)과 연관이 되어 있으며, 사업장 내 재범발생 우려 등으로 취업가능 사업장이 소수로 한정되는 문제가 있고, 사업장에서 전과자 신분 노출로 채용기피나 근로조건에 대한 타협점을 찾기 어려워 취업의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형기 종료 전에 취업면접이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실제 교정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한 수형자의 상담과 취업지원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통상적인 전문 상담이나 취업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형자의 전과사실의 표출 우려로 교정기관에서의 취업알선을 기피하는 경우도 많으며, 수형자 자신이 습득한 기능에 대한 자신감 결여로 적응에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지역고용센터 등에서는 교정시설 직업훈련생이 출소 후에 구인업체 이력제출, 면접, 상담 등을 전문적으로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관 간 연계협력도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직업훈련 이수 수형자에 대한 교육상담, 진로상담, 취업지원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제4절 종합 시사점

수형자 직업훈련 현황 분석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종합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형자 직업훈련체제의 재구성과 지역사회의 연계 및 현장 활용 가능한 직종 운영에 검토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수형자 직업훈련체제의 발전과 재정비를 위해서는 교정청별 1개 특성화된 직업훈련전담교도소를 설치·운영하여 수형자 직업훈련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수형자 직업훈련의 특성화와 전문화는 수형자의 선호직종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시장에서 인력부족 문제를 갖고 있는 단기간 양성이 어려운 기능·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우선 직업훈련 직종'을 선정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취업과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수형자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적정한 전담관리인원과 직업훈련교사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전담관리인력과 직업훈련교사에 대한 직업훈련 이해 증진, 업무능력 보유 및 향상을 위해 연수 실시가 필요하며, 수형자 직업훈련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별정직인 직업훈련교사를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여 직업안정성의 보장과 인센티브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넷째, 수형자 직업훈련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수형자 직업훈련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현실화와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사업 혹은 전문보조 기능공에 대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수형자 직업훈련 지원 예산의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기술위주로 짜여 있어 올바른 근로의식이나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에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여섯째, 직업훈련 이수 수형자에 대한 교육상담, 진로상담, 취업지원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제 4 장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실태조사 분석

김기홍 · 김선태 · 이언담

제1절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

1. 교정시설 직업훈련의 인적 특성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에 대한 기관운영을 파악하기 위해 총 27개 교정기관의 직업훈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7개 교정기관에서 직업훈련 담당교사 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27개 교정시설에서 설문에 참여하였다. 먼저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기관의 인적 특성을 보면, 남자 26명, 여자 1명으로 성별 응답자는 남자가 전체 응답자의 96.3%를 차지하였고, 30대 4명, 40대 20명, 50대 이상 3명으로 연령별 응답자는 40대가 전체 응답자의 74.1%를 차지하였다. 학력별 특성은 전문대졸 이하 5명, 대졸 19명, 대학원 이상 3명으로 대졸이 전체 응답자의 70.4%를 구성하고 있으며, 자격증 소지여부는 '예' 4명, '아니요' 23명으로 자격증 미소지자가 전체 응답자의 85.2%였다. 끝으로 교정시설 직업훈련 담당자의 평균 근무연수는 6년 11개월이었다. 이러한 응답자의 인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4-1>과 같다.

<표 4-1> 교정시설 직업훈련기관의 인적 특성

(단위: 명, %)

변인	구분	응답기관
성별	남	26(96.3)
	여	1(3.7)
	합계	27(100.0)
연령	30대	4(14.8)
	40대	20(74.1)
	50대 이상	3(11.1)
	합계	27(100.0)
학력	전문대졸 이하	5(18.5)
	대졸	19(70.4)
	대학원 이상	3(11.1)
	합계	27(100.0)
자격증 소지여부	예	4(14.8)
	아니요	23(85.2)
	합계	27(100.0)
근무경력	평균 6년 11개월	

2. 수형자 직업훈련 운영현황 및 인프라

전담관리인력, 직업훈련교사, 외부강사 등의 규모가 적정한지 설문한 결과, 수형자 직업훈련 관련 담당자 전체 27명 중 44.4%인 12명이 '예'라고 응답하였으며, 55.6%인 15명이 '아니요'라고 응답하였다.

전담관리인력, 직업훈련교사, 외부강사 등의 규모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수형자 직업훈련관련 응답자 15명에게 적정 충원인원을 설문한 결과, 전담관리인력은 1명, 정규직업 훈련교사는 2명, 외래강사는 1명이라고 보았다.

먼저 전담관리인력의 경우, 전체 15명 중 86.7%인 13명이 1명이라고 응답하였고, 2명(13.3%)만이 2명의 전담관리인력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정규직업 훈련교사의 경우, 전체 15명 중 40%인 6명이 2명의 정규직업 훈련교사가 적정하다고 보았고, 그 다음으로는 1명(5명, 33.3%)이라고 응답하였다. 끝으로 외래강사의 경우, 전체 15명 모두가 1명의 외래강사가 적정하다고 보았다.

<표 4-2> 전담관리인력, 직업훈련교사, 외부강사 규모의 적정성 여부 및 인원

(단위: 명, %)

구분	예	아니요		전체
훈련관리인력의 적정성 여부	12(44.4)	15(55.6)		27(100.0)
전담관리인력 적정 충원인력	12(44.4)	1명	13(86.7)	27(100.0)
		2명	2(13.3)	
		소계	15(100.0)	
정규직업 훈련교사 적정 충원인력	12(44.4)	1명	5(33.3)	27(100.0)
		2명	6(40.0)	
		3명	2(13.3)	
		4명	2(13.3)	
		소계	15(100.0)	
외래강사 적정 충원인원	12(44.4)	1명	15(100.0)	27(100.0)
		소계	15(100.0)	

전담관리인력의 증원 이유 1순위는 전체 15명 중 73.3%인 11명이 '직업훈련관리 외 행정업무 과다'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일반교도작업과 병행'(3명, 20.0%)이었다. 전담관리인력의 증원 이유 2순위는 전체 15명 중 66.7%인 10명이 '직업훈련과 관련 전담부서나 팀의 구성'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직업훈련을 하려는 수형자의 증가'(3명, 20.0%)였다.

<표 4-3> 전담관리인력의 증원 이유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직업훈련관리 외 행정업무 과다	11(73.3)	-
일반 교도작업과 병행	3(20.0)	1(6.7)
직업훈련을 하려는 수형자의 증가	-	3(20.0)
직업훈련과 관련 전담부서나 팀의 구성	-	10(66.7)
기타	1(6.7)	1(6.7)
전체	15(100.0)	15(100.0)

직업훈련 관련 교·강사의 증원 이유 1순위는 전체 15명 중 66.7%인 10명이 '직업훈련교사 최소 정원 확보'라고 응답하였고, 직업훈련 관련 교·강사의 증원 이유 2순위는 전체 15명 중 40.0%인 6명이 '직업훈련지원과 관련

상담업무 증가'라고 응답하였다.

<표 4-4> 직업훈련 관련 교·강사의 증원 이유(1순위)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직업훈련 외 행정업무 과다	2(13.3)	2(13.3)
직업훈련지원과 관련 상담업무 증가	1(6.7)	6(40.0)
직업훈련교사 최소정원 확보	10(66.7)	2(13.3)
직업훈련을 하려는 수형자의 증가	1(6.7)	1(6.7)
직업훈련과 관련 전담부서나 팀의 구성	-	2(13.3)
새로운 직업훈련과정이나 프로그램 확대 필요	1(6.7)	2(13.3)
전체	15(100.0)	15(100.0)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지원에 있어 현재 정부의 예산지원수준이 적정 한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전체 27명 중 51.8%인 14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4-5>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지원에 있어 현재 정부의 예산지원수준의 적정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전혀 충분하지 않음.	1(3.7)
충분하지 않음.	13(48.1)
보통임.	6(22.2)
충분함.	7(25.9)
전체	27(100.0)

직업훈련 내실화를 위한 예산지원 분야는 전체 27명 중 51.9%인 14명이 '전담인력과 교사의 충원지원'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직업훈련 이수 후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지원'(8명, 29.6%), '직업훈련과 관련 시설 확충지원'(5명, 18.5%)순이었다.

<표 4-6> 직업훈련 내실화를 위한 예산지원 분야

(단위: 명, %)

구분	전체
전담인력과 교사의 충원지원	14(51.9)
직업훈련 이수 후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지원	8(29.6)
직업훈련과 관련 시설 확충지원	5(18.5)
전체	27(100.0)

수형자 직업훈련과 관련한 유관기관 간의 연계협력은 전체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교류가 2.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보 교류(2.7점), 교육훈련 프로그램(2.7점) 순이었다.

<표 4-7> 수형자 직업훈련과 관련한 유관기관 간의 연계협력

(단위: 평균 점)

구분	전체 평균	표준편차
인적 교류	2.9	.989
물적 교류(시설 및 장비)	2.2	.879
정보교류	2.7	.993
교육훈련 프로그램	2.7	.859
취업지원 전산망 연계	2.2	.892

주: 1: 매우 미흡함 2: 미흡함 3: 보통 4:충분함 5: 매우 충분함

직업훈련 전담인력의 업무비중 1순위는 전체 27명 중 66.7%인 18명이 “수형자 직업훈련과 관련 행정업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형자 직업훈련과 관련 직업지도”(6명, 22.2%), “수형자 직업훈련과 관련 상담 및 적성검사 업무”(2명, 7.4%)순이었다. 직업훈련 전담인력의 업무비중 2순위는 전체 27명 중 25.9%인 7명이 “수형자 직업훈련과 관련 행정업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형자 직업훈련과 관련 직업지도”(6명, 22.2%), “수형자 직업훈련과 관련 상담 및 적성검사 업무”와 “수형자 직업훈련과 관련 취업알선 업무”(5명, 18.5%)순이었다.

<표 4-8> 직업훈련 전담인력의 업무비중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수형자 직업훈련과 관련 행정업무	18(66.7)	7(25.9)
수형자 직업훈련과 관련 직업지도	6(22.2)	6(22.2)
수형자 직업훈련과 관련 상담 및 적성검사 업무	2(7.4)	5(18.5)
수형자 직업훈련과 관련 취업알선 업무	1(3.7)	5(18.5)
수형자 직업훈련과 관련 집단 프로그램 제공	-	2(7.4)
기타	-	2(7.4)
전체	27(100.0)	27(100.0)

수형자들의 직업훈련 시작 사유 1순위로는 전체 27명 중 33.3%인 9명이 “출소 후 취·창업을 하기 위해”서라고 보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장기간의 교도소 생활을 견디기 위해”(6명, 22.2%), “좀 더 조기가석방을 위해”(5명, 18.5%), “구직기술을 배우기 위해”(5명, 18.5%)순이었다. 수형자들이 직업훈련을 시작사유 2순위로는 전체 27명 중 33.3%인 9명이 “구직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보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좀 더 조기가석방을 위해”(7명, 25.9%), “출소 후 취/창업을 하기 위해”(6명, 22.2%)순이었다.

<표 4-9> 수형자들의 직업훈련 시작 사유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출소 후 취·창업을 하기 위해	9(33.3)	6(22.2)
좀 더 조기가석방을 위해	5(18.5)	7(25.9)
장기간의 교도소 생활을 견디기 위해	6(22.2)	3(11.1)
구직기술을 배우기 위해	5(18.5)	9(33.3)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2(7.4)	2(7.4)
전체	27(100.0)	27(100.0)

3. 교정시설의 직업훈련 지원 및 전담인력의 현황

직업훈련 이수 후 출소자를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설문한 결과, 취업특강지원은 전체 27명 중 92.2%인 25명, 단기적응훈련프

로그램 지원은 전체 27명 중 48.1%인 13명, 취업박람회 지원은 전체 27명 중 92.2%인 25명, 자기이해 및 각종 진단검사의 지원은 전체 27명 중 59.3%인 16명, 직업상담(취·창업, 직업훈련, 자격증 등)은 전체 27명 중 92.2%인 25명, 특화된 직업정보 제공은 전체 27명 중 66.7%인 18명, 인터넷 활용 취업지원 시스템 운용은 전체 27명 중 44.4%인 12명, 취업지도 담당자 연수는 전체 27명 중 55.6%인 15명이 지원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10> 직업훈련 이수 후 출소자를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부

(단위: 명, %)

구분	지원 여부		전체
	있다	없다	
취업특강	25(92.6)	2(7.4)	27(100.0)
단기적응훈련 프로그램	13(48.1)	14(51.9)	27(100.0)
취업박람회	25(92.6)	2(7.4)	27(100.0)
자기이해 및 각종 진단검사	16(59.3)	11(40.7)	27(100.0)
직업상담(취·창업, 직업훈련, 자격증 등)	25(92.6)	2(7.4)	27(100.0)
특화된 직업정보 제공	18(66.7)	9(33.3)	27(100.0)
인터넷 활용 취업지원 시스템 운용	12(44.4)	15(55.6)	27(100.0)
취업지도 담당자 연수	15(55.6)	12(44.4)	27(100.0)

직업훈련 이수 후 출소자를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약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상담(취·창업, 직업훈련, 자격증 등)”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3.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특화된 직업정보 제공”(3.6점), “취업특강”(3.5점), “취업지도 담당자 연수”(3.5점)순이었다.

<표 4-11> 직업훈련 이수 후 출소자를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단위: 평균 점)

구분	전체 평균	표준편차
취업특강	3.5	.823
단기적응훈련 프로그램	3.2	.801
취업박람회	3.3	.891
자기이해 및 각종 진단검사	3.4	.814
직업상담(취창업, 직업훈련, 자격증 등)	3.7	.748
특화된 직업정보 제공	3.6	.784
인터넷 활용 취업지원 시스템 운용	3.4	.996
취업지도 담당자 연수	3.5	.516

주: 1: 전혀 효과 없음 2: 별로 효과 없음 3: 보통 4: 다소 효과 있음 5: 매우 효과 있음

담당관리인력의 전문성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27명 중 55.6%인 15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전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를 합할 경우, 전체 27명 중 63.0%인 17명이 담당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담당관리인력의 전문성 확보 여부

(단위: 명, %)

구분	전체
전혀 충분하지 않음.	2(7.4)
충분하지 않음.	15(55.6)
보통임.	9(33.3)
충분함.	1(3.7)
전체	27(100.0)

담당관리인력의 재교육이나 연수 참여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전체 27명 중 44.4%인 12명이 “예”라고 응답하였다. 담당관리인력의 재교육이나 연수 참여방법으로는 자체 프로그램의 연수 실시(5명, 41.7%)와 정부교육 및 연수 기관(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교육원, 대학의 연수기관 등)(5명, 41.7%)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교육이나 연수의 실시빈도는 전체 12명 중 75%인 9명이 ‘연 1~2회’정도 받았으며, 25%인 3명이 비주기적으로 재교육이나 연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담당관리인력의 재교육이나 연수참여 여부 및 방법, 실시빈도

(단위: 명, %)

참여여부		예	아니요	전체
		12(44.4)	15(55.6)	27(100.0)
참여 방법	자체 프로그램의 연수 실시	5(41.7)	15(55.6)	27(100.0)
	민간 취업지원 전문업체	1(8.3)		
	소속관련 단체(각종 협회 등)의 연수	1(8.3)		
	정부교육 및 연수기관(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교육원, 대학의 연수기관 등)	5(41.7)		
	소계	12(100.0)		
실시 빈도	연 1-2회	9(75.0)	15(55.6)	27(100.0)
	비주기적으로	3(25.0)		
	소계	12(100.0)		

전담인력과 직업훈련교사의 재교육 및 연수 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9개 항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가장 필요한 재교육 및 연수 내용으로는 “담당과정에 대한 신기술 연수”가 4.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업정보(직종, 자격, 훈련 등) 수집과 탐색 및 평가방법”(4.1점), 수형자 대상 전문상담 및 각종 검사기법과 결과 해석기술(4.0점), 구직 및 구인 방법 안내(4.0점), 취업처인 기업체와의 교류능력(4.0점)순이었다.

<표 4-14> 전담인력과 직업훈련교사의 재교육 및 연수 시 필요한 내용

(단위: 평균 점)

구분	전체 평균	표준편차
담당과정에 대한 신기술 연수	4.4	.792
수형자에 대한 자기이해 탐색(능력, 흥미, 가치관 등) 지원	3.9	.616
취업지원 정책 및 제도 이해	3.9	.662
수형자 대상 전문상담 및 각종 검사기법과 결과 해석기술	4.0	.706
직업정보(직종, 자격, 훈련 등) 수집과 탐색 및 평가방법	4.1	.616
구직 및 구인방법 안내	4.0	.679
취창업 계획 수립	3.7	.813
취업처인 기업체와의 교류 능력	4.0	.759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능력	3.9	.874

주: 1: 전혀 필요하지 않음 2: 필요하지 않음 3: 보통 4: 필요함 5: 매우 필요함

4. 교정시설의 직업훈련운영의 문제점

수형자의 직업훈련 운영 시 예산 및 전문인력 외 문제점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자체 등 관련기관 간의 공조 및 네트워크”가 2.0점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업훈련 대상자 선발에서 인기직종 위주의 지원”(2.3점), “자격증 취득 출소자의 적합한 구인처 확보”(2.3점)순이었다.

<표 4-15> 수형자 직업훈련 운영 시 예산 및 전문인력 외 문제점

구분	(단위: 평균 점)	
	전체 평균	표준편차
직업훈련을 위한 별도 예산/재정 확보	3.3	.823
시설장비	2.8	1.001
정규직업 훈련교사 확보	2.8	1.219
정규직업 훈련교사의 직업안정성	2.9	1.423
가석방보다는 가석방을 위한 자격증 취득	2.7	1.031
수형자가 원하는 취창업 직업훈련 과정의 제공	2.8	.786
직업훈련 대상자 선발에서 인기직종위주의 지원	2.3	.724
직업훈련 과정별 훈련기간(6개월 혹은 1년 단위)	3.4	.971
산업체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제공	2.8	.879
전문 취업지원 상담	2.7	.877
정책결정자의 이해 및 관심	3.0	.980
자격증 취득 출소자의 적합한 구인처 확보	2.3	.912
정부, 지자체 등 관련기관 간의 공조 및 네트워크	2.0	.759
기관의 직업훈련에 대한 홍보	3.0	.759

주* 1:매우 심각함 2: 심각함 3: 보통 4: 심각하지 않음 5: 전혀 심각하지 않음

수형자 직업훈련의 정부지원 시 우선 요구항목 1순위는 전체 27명 중 37.0%인 10명이 “전담관리인력과 교사의 충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 다음으로는 “직업훈련예산 및 경비지원 확대”와 “직업훈련시설 및 장비 지원”(각각 5명, 18.5%)순이었다. 수형자 직업훈련의 정부지원시 우선 요구항목 2순위는 “직업훈련시설 및 장비 지원”, “새로운 직업훈련과정의 확대”, “전담관리인력과 교사의 충원”(각각 5명, 18.5%)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직

업훈련예산 및 경비지원 확대”와 “직업훈련 이수 출소자 취업지원 네트워크 강화”(각각 4명, 14.8%)순이었다. 수형자 직업훈련의 정부지원 시 우선 요구항목 3순위는 전체 27명 중 29.6%인 8명이 “직업훈련 이수 출소자 취업 지원 네트워크 강화”가 가장 중요한 정부지원 항목이라고 보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업훈련시설 및 장비 지원”(6명, 22.2%), “직업훈련 전담인력과 교사의 연수 제공”(5명, 18.5%)순이었다.

<표 4-16> 수형자 직업훈련의 정부지원 시 우선 요구항목

구분	(단위: 명, %)		
	1순위	2순위	3순위
직업훈련예산 및 경비지원 확대	5(18.5)	4(14.8)	1(3.7)
직업훈련시설 및 장비 지원	5(18.5)	5(18.5)	6(22.2)
새로운 직업훈련과정의 확대	1(3.7)	5(18.5)	2(7.4)
전담관리인력과 교사의 충원	10(37.0)	5(18.5)	3(11.1)
직업훈련 전담인력과 교사의 연수 제공	2(7.4)	2(7.4)	5(18.5)
직업훈련 이수 출소자 취업지원 네트워크 강화	2(7.4)	4(14.8)	8(29.6)
기관/프로그램/인력에 관한 DB구축 및 보급	1(3.7)	2(7.4)	2(7.4)
기타	1(3.7)	-	-
전체	27(100.0)	27(100.0)	27(100.0)

5. 교정시설의 직업훈련제도 및 정책 개선

수형자의 직업훈련 인프라와 제도개선에 대한 설문한 결과, “적정 정규 직업훈련교사 및 직업안정성 확보”가 4.2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체제 구축”, “직업훈련을 위한 별도의 일반 예산 확보”, “직업훈련과정에서 통합적 인성교육 강화”(각각 3.9점)순이었다. 반면, “수형자 직업훈련 매뉴얼 개발 발굴”은 3.4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각 수형자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많은 예산투입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에는 동의하나 실질적인 실행여부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7> 수형자 직업훈련 인프라와 제도개선

(단위: 평균 점)

문항	전체 평균	표준편차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체제 구축	3.9	.949
지역청별 직업훈련의 특성화/전문화	3.8	.786
직업훈련을 위한 별도의 일반예산 확보	3.9	.949
적정 정규직업훈련교사 및 직업안정성 확보	4.2	1.001
직업훈련 대상자 선발 및 진로상담 지원시스템 구축	3.7	.961
직업훈련과정에서 통합적 인성교육 강화	3.9	.675
지역단위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3.6	.801
수형자가 원하는 취창업 과정의 제공	3.6	.751
일정 지역산업과 연계된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3.6	.747
수형자 직업훈련 매뉴얼 개발 보급	3.4	.801
직업훈련 우수기관에 대한 지원금 확대(운영 및 진로상담인력 확보)	3.5	1.122
직업훈련 이수 수형자 취업지원기관과 전담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3.6	1.047

주: 1: 전혀 타당하지 않음 2: 타당하지 않음 3: 보통 4: 타당함 5: 매우 타당함.

제2절 직업훈련 참여 수형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조사

1. 직업훈련 참여자 특성

교정시설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총 26개 교정기관(천안교도소 제외²⁾)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6개 교정기관에서 740명의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704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먼저 수형자 직업훈련 참여자의 인적 특성을 보면, 남자 651명, 여자 53명으로 성별 응답자는 남자가 전체 응답자의 95.2%를 차지하였고, 20대 이하 10명, 20대 87명, 30대 248명, 40대 257명, 50대 이상 102명으로 연령별 응

2) 천안교도소는 개방형 교정시설로 내국인보다는 외국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설문에서 제외시킴.

답자는 30~40대가 전체 응답자의 41.7%를 차지하였다. 학력별 특성은 중졸 이하 113명, 고졸 435명, 대졸 146명, 대학원 이상 10명으로 고졸이 전체 응답자의 61.8%를 구성하고 있으며, 혼인여부는 기혼 247명, 미혼 322명, 이혼 122명, 기타 13명(사별 포함)으로 미혼이 전체 응답자의 45.7%였다. 끝으로 교정횟수에 의한 특성은 1회(초범) 392명, 2회 125명, 3회 99명, 4회 88명으로 1회(초범)이 전체 응답자의 55.7%였다.

<표 4-18> 수형자 직업훈련 참여자의 인적 특성

변인	구분	응답자(단위: 명, %)
성별	남	651(92.5)
	여	53(7.5)
	전체	704(100.0)
연령	20대 이하	10(1.4)
	20대	87(12.4)
	30대	248(35.2)
	40대	257(6.5)
	50대 이상	102(14.5)
	전체	704(100.0)
학력	중졸 이하	113(16.1)
	고졸	435(61.8)
	대졸	146(20.7)
	대학원 이상	10(1.4)
	전체	704(100.0)
혼인여부	기혼	247(35.1)
	미혼	322(45.7)
	이혼	122(17.3)
	기타	13(1.8)
	전체	704(100.0)
교정횟수	1회 (초범)	392(55.7)
	2회	125(17.8)
	3회	99(14.1)
	4회	88(12.5)
	전체	704(100.0)

수형자의 직업훈련 참여 특성을 보면, 기능사 546명, 산업기사 108명, 기사 이상(전문숙련훈련과정 포함) 50명으로 훈련과정별 응답자는 기능사과정

이 전체 응답자의 77.6%를 점유하였고, 6개월 과정 81명, 6개월~1년 과정 435명, 1년 과정 이상~2년 과정 153명, 2년 이상 53명으로 훈련기간별 응답자는 6개월~1년 과정이 전체 응답자의 61.8%를 차지하였다.

<표 4-19> 수형자 직업훈련 참여특성

변인	구분	응답자(단위: 명, %)
훈련참여과정	기능사	546(77.6)
	산업기사	108(15.3)
	기사 이상(전문숙련훈련과정 포함)	50(7.1)
	전체	704(100.0)
훈련참여기간	6개월 과정	81(11.5)
	6개월~1년 과정	435(61.8)
	1년 과정 이상~2년 과정	153(21.7)
	2년 이상	35(5.0)
	전체	704(100.0)

이하에서는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대해 직업훈련과정(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이상)을 설명변인, 인적 특성(성별, 연령별, 학력별)과 참여특성(참여기간)을 비교변인으로 하여 수형자의 직업훈련 참여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수형자 직업훈련과정의 성별 참여특성을 보면, 남성의 경우 전체 651명 중 76.7%인 499명, 여성의 경우 전체 53명 중 88.7%인 47명이 기능사 과정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사 과정은 남성의 경우 전체 651명 중 16.4%인 107명, 여성의 경우 전체 53명 중 1.9%인 1명이 차지하고 있으며, 기사이상은 남성의 경우 전체 651명 중 6.9%인 45명, 여성의 경우 전체 53명 중 9.4%인 5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형자의 직업훈련 참여과정에 따른 성별 참여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χ^2 통계값은 8.11, 유의확률은 .017로서 유의수준 .05에서 직업훈련과정에 따른 성별 참여특성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4-20> 수형자 직업훈련과정의 성별 참여특성

(단위: 명, %)

성별 \ 참여과정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이상 (전문숙련훈련 과정 포함)	전체
남	499 (76.7)	107 (16.4)	45 (6.9)	651 (100.0)
여	47 (88.7)	1 (1.9)	5 (9.4)	53 (100.0)
전체	546 (77.6)	108 (15.3)	50 (7.1)	704 (100.0)

$$\chi^2 = 8.11 \quad (df=2, p=.017)$$

수형자 직업훈련과정의 연령별 참여특성을 보면, 전 연령에서 기능사 과정의 참여자 및 참여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30~40대의 경우 전 과정에서 참여자 및 참여비중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고, 그중에서도 40대가 30대보다 직업훈련과정 참여자 및 참여비중이 높았다. 수형자 직업훈련과정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인 40대의 경우 전체 257명 중 기능사 과정 191명(74.3%), 산업기사 과정 47명(18.3%), 기사 이상 과정 19명(7.4%)이 참여하였고, 그 다음으로 많은 연령대인 30대의 경우 전체 248명 중 기능사 과정 184명(74.2%), 산업기사 과정 44명(17.7%), 기사 이상 20명(8.1%)을 차지하였다. 수형자의 직업훈련 참여과정에 따른 연령별 참여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χ^2 통계값은 16.3, 유의확률은 .039로서 유의수준 .05에서 직업훈련과정에 따른 학력별 참여특성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4-21> 수형자 직업훈련과정의 연령별 참여특성

(단위: 명, %)

연령 \ 참여과정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이상 (전문숙련훈련 과정 포함)	전체
20대 이하	10 (100.0)	-	-	10 (100.0)
20대	76 (87.4)	9 (10.3)	2 (2.3)	87 (100.0)
30대	184 (74.2)	44 (17.7)	20 (8.1)	248 (100.0)
40대	191 (74.3)	47 (18.3)	19 (7.4)	257 (100.0)
50대 이상	85 (83.3)	8 (7.8)	9 (8.8)	102 (100.0)
전체	546 (77.6)	108 (15.3)	50 (7.1)	704 (100.0)

 $\chi^2=16.3$ ($df=8$, $p=.039$)

수형자 직업훈련과정의 학력별 참여특성을 보면, 고졸학력이 전체 704명 중 61.8%인 435명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각 과정별로도 다른 학력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고졸학력의 각 과정별 분포는 전체 435명 중 기능사 과정이 74.3%인 32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기사 과정에서는 80명(18.4%), 기사 이상 과정에서는 32명(7.4%)으로 각 과정에서의 참여자 및 참여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고졸학력 다음으로는 대졸학력이 전체 704명 중 20.7%인 146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학력의 각 과정별 분포는 전체 146명 중 기능사 과정이 78.1%인 1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기사 과정에서는 21명(14.4%), 기사 이상 과정에서는 11명(7.5%)으로 각 과정에서의 참여자 및 참여비중이 고졸 학력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형자의 직업훈련 참여과정에 따른 학력별 참여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χ^2 통계값은 14.1, 유의확률은 .029로써 유의수준 .05에서 직업훈련과정에 따른 연령별 참여특성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4-22> 수형자 직업훈련과정의 학력별 참여특성

(단위: 명, %)

참여과정 \ 학력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이상 (전문숙련훈련 과정 포함)	전체
중졸 이하	99 (87.6)	7 (6.2)	7 (6.2)	113 (100.0)
고졸	323 (74.3)	80 (18.4)	32 (7.4)	435 (100.0)
대졸	114 (78.1)	21 (14.4)	11 (7.5)	146 (100.0)
대학원 이상	10 (100.0)	-	-	10 (100.0)
전체	546 (77.6)	108 (15.3)	50 (7.1)	704 (100.0)

$\chi^2=14.1$ ($df=6$, $p=.029$)

수형자 직업훈련과정의 훈련기간별 참여특성을 보면, 기능사 과정은 6개월~1년 과정, 산업기사 과정은 1년 이상~2년 과정, 기사 이상 과정은 2년 과정이 참여자 및 참여비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능사는 6개월~1년 과정이 전체 546명 중 76.9%인 4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6개월 과정(76명, 13.6%), 1년 이상~2년 과정(48명, 8.8%)순이었다. 산업기사 과정은 1년 이상~2년 과정이 전체 108명 중 85.2%인 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년 이상(15명, 13.9%), 6개월 과정(1명, 0.9%)순이었다. 기사 이상과정은 2년 과정 이상이 전체 50명 중 36.0%인 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6개월~1년 과정(15명, 30.0%), 1년 이상~2년 과정(13명, 26.0%), 6개월 과정(4, 8.%)순이었다. 수형자의 직업훈련 참여 과정에 따른 훈련기간별 참여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χ^2 통계값은 488.9, 유의확률은 .000으로서 유의수준 .05에서 직업훈련 과정에 따른 훈련기간별 참여특성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4-23> 수형자의 직업훈련기간 참여특성

(단위: 명, %)

참여기간 \ 참여과정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이상 (전문숙련훈련 과정 포함)	전체
6개월 과정	76 (13.9)	1 (0.9)	4 (8.0)	81 (11.5)
6개월~1년 과정	420 (76.9)	-	15 (30.0)	435 (61.8)
1년 이상~2년 과정	48 (8.8)	92 (85.2)	13 (26.0)	153 (21.7)
2년 이상	2 (0.4)	15 (13.9)	18 (36.0)	35 (5.0)
전체	546 (100.0)	108 (100.0)	50 (100.0)	704 (100.0)

 $\chi^2 = 488.9$ ($df=6, p=.000$)

2. 직업훈련의 참여목적

직업훈련과정별 수형자 직업훈련 참여목적의 1순위는 전체 704명 중 50.6%인 356명이 “출소 후 취·창업을 하기 위해”라고 응답하였고, 2순위는 전체 704명 중 28.1%인 198명이 응답한 “새로운 구직기술을 배우기 위해”였다. 직업훈련과정별로 보면, 기능사 과정은 전체 546명 중 50.9%인 278명이 “출소 후 취·창업을 하기 위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새로운 구직기술을 배우기 위해”(162명, 29.7%), “좀 더 조기석방을 위해”(52명, 9.5%)였다. 산업기사 과정과 기사 이상 과정도 기능사과정과 같은 비슷한 참여목적에 대한 응답결과가 나타났다. 직업훈련과정별 수형자의 직업훈련 참여목적(참여과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χ^2 통계값은 20.7, 유의확률은 .055로서 유의수준 .10에서 직업훈련 참여목적(참여과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4-24> 수형자의 직업훈련 참여목적(참여과정)

(단위: 명, %)

참여이유 \ 참여과정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이상 (전문숙련 훈련과정 포함)	전체
출소 후 취/창업을 하기 위해	278 (50.9)	53 (49.1)	25 (50.0)	356 (50.6)
좀 더 조기가석방을 위해	52 (9.5)	20 (18.5)	7 (14.0)	79 (11.2)
지루한 수용생활의 변화를 위해	45 (8.2)	7 (6.5)	3 (6.0)	55 (7.8)
새로운 구직기술을 배우기 위해	162 (29.7)	24 (22.2)	12 (24.0)	198 (28.1)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2 (0.4)	-	-	2 (0.3)
면회자의 편의를 위해	2 (0.4)	-	-	2 (0.3)
기타	5 (0.9)	4 (3.7)	3 (6.0)	12 (1.7)
전체	546 (100.0)	108 (100.0)	50 (100.0)	704 (100.0)

$$\chi^2 = 20.7 (df=12, p=.055)$$

직업훈련기간별 수형자 직업훈련 참여목적의 전체 1순위와 2순위 응답은 직업훈련과정별 결과와 같다. 직업훈련기간별로 보면, 6개월 과정은 전체 81명 중 58%인 47명이 “출소 후 취/창업을 하기 위해”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구직기술을 배우기 위해”(18명, 22.2%), “지루한 수용생활의 변화를 위해”(7명, 8.6%)순이었다. 6개월~1년 과정은 전체 435명 중 48.5%인 211명이 “출소 후 취/창업을 하기 위해”를 직업훈련참여의 목적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구직기술을 배우기 위해”(131명, 30.1%), “좀 더 조기가석방을 위해”(51명, 11.7%)순이었다.

<표 4-25> 수형자의 직업훈련 참여목적(참여기간)

(단위: 명, %)

참여이유	참여기간	6개월 과정	6개월~ 1년 과정	1년 이상 ~2년 과정	2년 이상	전체
출소 후 취·창업을 하기 위해		47 (58.0)	211 (48.5)	79 (51.6)	19 (54.3)	356 (50.6)
좀 더 조기가석방을 위해		5 (6.2)	51 (11.7)	20 (13.1)	3 (8.6)	79 (11.2)
지루한 수용생활의 변화를 위해		7 (8.6)	37 (8.5)	10 (6.5)	1 (2.9)	55 (7.8)
새로운 구직기술을 배우기 위해		18 (22.2)	131 (30.1)	37 (24.2)	12 (34.3)	198 (28.1)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	2 (0.5)	-	-	2 (0.3)
면회자의 편의를 위해		2 (2.5)	-	-	-	2 (0.3)
기타		2 (2.5)	3 (0.7)	7 (4.6)	-	12 (1.7)
전체		81 (100.0)	435 (100.0)	153 (100.0)	35 (100.0)	704 (100.0)

$$\chi^2 = 36.2 (df=18, p=.007)$$

1년 이상~2년 과정은 전체 153명 중 51.6%인 79명이 “출소 후 취·창업을 하기 위해”로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구직기술을 배우기 위해”(37명, 24.2%), “좀 더 조기가석방을 위해”(20명, 13.1%)순이었다. 2년 이상 과정은 전체 35명 중 54.3%인 19명이 “출소 후 취·창업을 하기 위해”를 직업훈련참여의 목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구직기술을 배우기 위해”(12명, 34.3%), “좀 더 조기가석방을 위해”(3명, 8.6%)순이었다. 직업훈련기간별 수형자의 직업훈련 참여목적(참여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χ^2 통계값은 36.2, 유의확률은 .007로서 유의수준 .05에서 직업훈련 참여목적(참여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3. 수형자의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효과

가.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지원

수형자에게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중 취업특강을 받고 있는지 설문한 결과, 전체 704명 중 62.5%인 440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26> 취업특강 지원

(단위: 명, %)

지원여부 \ 참여과정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이상 (전문숙련훈련과정 포함)	전체
지원받고 있음.	348(63.7)	50(46.3)	42(84.0)	440(62.5)
지원받지 않음.	198(36.3)	58(53.7)	8(16.0)	264(37.5)
전체	546(100.0)	108(100.0)	50(100.0)	704(100.0)

$$\chi^2 = 22.3 \quad (df=2, p=.000)$$

직업훈련과정별로 보면, 기능사 과정 수형자는 전체 546명 중 63.7%인 348명, 산업기사 과정 수형자는 전체 108명 중 46.3%인 50명, 기사 이상 과정 수형자는 전체 50명 중 84.0%인 42명이 지원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수형자의 참여과정에 따라 취업특강지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χ^2 통계값은 22.3, 유의확률은 .000으로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수형자에게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중 단기사회적응훈련을 받고 있는지 설문한 결과, 전체 704명 중 51.6%인 363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직업훈련과정별로 보면, 기능사 과정 수형자는 전체 546명 중 52.6%인 287명, 산업기사 과정 수형자는 전체 108명 중 40.7%인 44명, 기사 이상 과정 수형자는 전체 50명 중 64.0%인 32명이 지원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수형자의 참여과정에 따라 단기사회적응훈련지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χ^2 통계값은 8.38, 유의확률은 .015으로서 유의수준 .05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4-27> 단기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지원

(단위: 명, %)

지원여부 \ 참여과정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이상 (전문숙련훈련과정 포함)	전체
지원받고 있음.	287 (52.6)	44 (40.7)	32 (64.0)	363 (51.6)
지원받지 않음.	259 (47.4)	64 (59.3)	18 (36.0)	341 (48.4)
전체	546 (100.0)	108 (100.0)	50 (100.0)	704 (100.0)

$$\chi^2 = 8.38 \quad (df=2, p=.015)$$

수형자에게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중 취업박람회 지원을 받고 있는지 설문한 결과, 전체 704명 중 45.5%인 320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직업훈련과정별로 보면, 기능사 과정 수형자는 전체 546명 중 44.5%인 243명, 산업기사 과정 수형자는 전체 108명 중 39.8%인 43명, 기사 이상 과정 수형자는 전체 50명 중 68.0%인 34명이 지원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수형자의 참여과정에 따라 취업박람회지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χ^2 통계값은 11.3, 유의확률은 .003으로써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4-28> 취업박람회 지원

(단위: 명, %)

지원여부 \ 참여과정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이상 (전문숙련훈련과정 포함)	전체
지원받고 있음.	243 (44.5)	43 (39.8)	34 (68.0)	320 (45.5)
지원받지 않음.	303 (55.5)	65 (60.2)	16 (32.0)	384 (54.5)
전체	546 (100.0)	108 (100.0)	50 (100.0)	704 (100.0)

$$\chi^2 = 11.3 \quad (df=2, p=.003)$$

수형자에게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중 자기이해 및 각종 진단검사를 받고 있는지 설문한 결과, 전체 704명 중 46.6%인 328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직업훈련과정별로 보면, 기능사 과정 수형자는 전체 546명 중 47.1%인 257명, 산업기사 과정 수형자는 전체 108명 중 38.0%인 41명, 기사 이상 과정 수형자는 전체 50명 중 60.0%인 30명이 지원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수형자의 참여과정에 따라 자기이해 및 각종 진단검사 지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χ^2 통계값은 6.89, 유의확률은 .032으로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4-29> 자기이해 및 각종 진단검사

(단위: 명, %)

참여과정 지원여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이상 (전문숙련훈련과정 포함)	전체
지원받고 있음.	257 (47.1)	41 (38.0)	30 (60.0)	328 (46.6)
지원받지 않음.	289 (52.9)	67 (62.0)	20 (40.0)	376 (53.4)
전체	546 (100.0)	108 (100.0)	50 (100.0)	704 (100.0)

$\chi^2=6.89$ ($df=2$, $p=.032$)

수형자에게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중 직업상담(취·창업, 직업훈련, 자격증 등)을 받고 있는지 설문한 결과, 전체 704명 중 60.5%인 426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30> 직업상담(취·창업, 직업훈련, 자격증 등) 지원

(단위: 명, %)

지원여부 \ 참여과정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이상 (전문숙련훈련과정 포함)	전체
지원받고 있음.	332 (60.8)	54 (50.0)	40 (80.0)	426 (60.5)
지원받지 않음.	214 (39.2)	54 (50.0)	10 (20.0)	278 (39.5)
전체	546 (100.0)	108 (100.0)	50 (100.0)	704 (100.0)

 $\chi^2=13.0$ ($df=2$, $p=.002$)

직업훈련과정별로 보면, 기능사 과정 수형자는 전체 546명 중 60.8%인 332명, 산업기사 과정 수형자는 전체 108명 중 50.0%인 54명, 기사 이상 과정 수형자는 전체 50명 중 80.0%인 40명이 지원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수형자의 참여과정에 따라 직업상담(취·창업, 직업훈련, 자격증 등) 지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χ^2 통계값은 13.0, 유의확률은 .002로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수형자에게 직업훈련 지원프로그램 중 특화된 취업정보 제공을 받고 있는지 설문한 결과, 전체 704명 중 46.9%인 330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직업훈련과정별로 보면, 기능사 과정 수형자는 전체 546명 중 46.9%인 256명, 산업기사 과정 수형자는 전체 108명 중 35.2%인 38명, 기사 이상 과정 수형자는 전체 50명 중 72.0%인 36명이 지원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수형자의 참여과정에 따라 특화된 취업정보 제공 지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χ^2 통계값은 18.6, 유의확률은 .000으로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4-31> 특화된 직업정보 제공

(단위: 명, %)

지원여부 \ 참여과정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이상 (전문숙련훈련과정 포함)	전체
지원받고 있음.	256 (46.9)	38 (35.2)	36 (72.0)	330 (46.9)
지원받지 않음.	290 (53.1)	70 (64.8)	14 (28.0)	374 (53.1)
전체	546 (100.0)	108 (100.0)	50 (100.0)	704 (100.0)

$$\chi^2 = 18.6 \quad (df=2, p=.000)$$

수형자에게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중 인터넷 활용 취업지원 시스템 운용을 받고 있는지 설문한 결과, 전체 704명 중 34.5%인 243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직업훈련과정별로 보면, 기능사 과정 수형자는 전체 546명 중 34.4%인 188명, 산업기사 과정 수형자는 전체 108명 중 29.6%인 32명, 기사 이상 과정 수형자는 전체 50명 중 46.0%인 23명이 지원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수형자의 참여과정에 따라 인터넷 활용 취업지원 시스템 운용지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χ^2 통계값은 4.06, 유의확률은 .131로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4-32> 인터넷 활용 취업지원 시스템 운용

(단위: 명, %)

지원여부 \ 참여과정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이상 (전문숙련훈련과정 포함)	전체
지원받고 있음.	188 (34.4)	32 (29.6)	23 (46.0)	243 (34.5)
지원받지 않음.	358 (65.6)	76 (70.4)	27 (54.0)	461 (65.5)
전체	546 (100.0)	108 (100.0)	50 (100.0)	704 (100.0)

$$\chi^2 = 4.06 \quad (df=2, p=.131)$$

나.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효과

수형자의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는 “직업상담(취·창업, 직업훈련, 자격증 등) 지원”이 3.6점으로 다른 6개 프로그램보다 가장 높았고, “취업특강 지원”, “단기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지원”, “자기이해 및 각종 진단검사”, “특화된 직업정보 제공”은 3.3점으로 동일한 지원효과를 나타냈다. 반면, “인터넷 활용 취업지원 시스템 운용지원”은 3.0점의 지원효과를 나타내 다른 6개 프로그램보다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3> 수형자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단위: 평균 점)

지원 프로그램	참여과정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이상 (전문숙련 훈련과정 포함)	전체 평균
취업특강 지원		3.4	2.9	3.1	3.3
단기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지원		3.3	3.0	2.8	3.3
취업박람회 지원		3.3	3.2	2.8	3.2
자기이해 및 각종 진단검사		3.4	3.3	2.8	3.3
직업상담(취창업, 직업훈련, 자격증 등) 지원		3.6	3.5	3.4	3.6
특화된 직업정보 제공		3.3	3.2	3.1	3.3
인터넷 활용 취업지원 시스템 운용		3.1	2.9	2.6	3.0

주: 1: 전혀 효과 없음 2: 별로 효과 없음 3: 보통 4: 다소 효과 있음 5: 매우 효과 있음

직업훈련과정별로 보면, 먼저 기능사 과정은 직업상담((취·창업, 직업훈련, 자격증 등) 지원”이 3.6점으로 다른 6개 프로그램보다 가장 높았고, “취업특강 지원”, “자기이해 및 각종 진단검사”는 3.4점으로 동일한 지원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인터넷 활용 취업지원 시스템 운용지원”은 3.1점의 지원효과를 나타내 다른 6개 프로그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산업기사 과정은 직업상담((취·창업, 직업훈련, 자격증 등) 지원”이 3.5점으로 다른 6개 프로그램보다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자기

이해 및 각종 진단검사”(3.3점)였다. 그러나 “취업특강 지원”과 “인터넷 활용 취업지원 시스템 운용지원”은 2.9점의 지원효과를 나타내 다른 5개 프로그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기사 이상 과정은 직업상담(취·창업, 직업훈련, 자격증 등) 지원”이 3.4점으로 다른 6개 프로그램보다 가장 높았고, “취업특강 지원”과 “특화된 직업정보 제공”은 3.1점으로 동일한 지원효과를 나타냈다. 반면, “단기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지원”, “취업박람회 지원”, “자기이해 및 각종 진단검사”, “인터넷 활용 취업지원 시스템 운용지원”은 2점대의 지원효과를 나타내 기사 이상 과정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과정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수형자의 직업훈련 만족도 및 개선점

가. 직업훈련의 만족도

수형자의 직업훈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수형자는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성이나 훈련방법”(3.7점)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업훈련기관”(3.5점), “직업훈련과정의 내용과 프로그램의 질”(3.4점)순이었다. 반면, 수형자는 “전문취업지원 상담”(2.7점)에 가장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과정별로 보면, 기능사과정은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성이나 훈련방법”(3.7점)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업훈련기관”(3.5점), “외부강사인력의 전문성이나 훈련방법”(3.4점), “직업훈련과정의 내용과 프로그램의 질”(3.4점)순이었다. 그러나 취업관련 항목인 “전문취업지원 상담”과 “자격증 취득 출소자의 적합한 구인처 확보”는 2.8점으로 가장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사 과정도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성이나 훈련방법”(3.6점)에 가장 만족하고, “전문취업지원 상담”(2.5

점)과 “자격증 취득 출소자의 적합한 구인처 확보”(2.6점)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기능사과정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기사 이상 과정은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성이나 훈련방법”이 3.8점으로 과정 내뿐 아니라 다른 과정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업훈련 시설장비”(3.5점), “외부강사인력의 전문성이나 훈련방법”(3.4점), “직업훈련과정의 내용과 프로그램의 질”(3.4점), “직업훈련기관”(3.4점)순이었다. 그리고 다른 과정과 마찬가지로 “전문취업지원 상담”(2.9점)에 가장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4> 수형자의 직업훈련 만족도

(단위: 평균 점)

만족도 내용	참여과정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이상 (전문숙련 훈련과정 포함)	전체 평균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성이나 훈련방법	3.7	3.6	3.8	3.7
외부강사인력의 전문성이나 훈련방법	3.4	3.1	3.4	3.3
직업훈련 시설장비	3.3	3.3	3.5	3.3
직업훈련과정의 내용과 프로그램의 질	3.4	3.3	3.4	3.4
직업훈련 전담관리인력(행정 및 취업지원)의 지원	3.1	3.0	3.2	3.1
직업훈련기관	3.5	3.4	3.4	3.5
전문취업지원 상담	2.8	2.5	2.9	2.7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3.2	3.0	3.1	3.1
자격증 취득 출소자의 적합한 구인처 확보	2.8	2.6	3.0	2.8
직업훈련 교보재	3.2	3.2	3.3	3.2
직업훈련 현장실습	3.2	3.1	3.3	3.2
직업훈련 참여 동료 수형자	3.3	3.1	3.2	3.3
직업훈련 동반 인성교육이나 사회적응교육	3.1	3.0	3.0	3.1

주: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수형자의 직업훈련 과정 이수 후의 가능성 정도에 대해서는 “사회복귀 적응 및 재범방지 가능성”이 3.4점으로 다른 요인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업훈련과정별로 보면, 기능사 과정은 수형자의 직업훈련과정 이수 후의 가능성

정도에 대해 “향후 본인의 취·창업에 도움이 될 가능성”, “동료 수형자에게 참여를 권하는 정도”, “사회복귀 적응 및 재범방지 가능성” 요인이 3.4점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산업기사 과정은 “향후 본인의 취·창업에 도움이 될 가능성”과 “사회복귀 적응 및 재범방지 가능성” 요인이 3.2점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사 이상 과정은 “사회복귀 적응 및 재범방지 가능성”이 3.5점으로 다른 두 요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35> 수형자의 직업훈련과정 이수 후의 가능성 정도

(단위: 평균 점)

가능성	참여과정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이상 (전문숙련 훈련과정 포함)	전체 평균
향후 본인의 취창업에 도움이 될 가능성	3.4	3.2	3.3	3.3
동료 수형자에게 참여를 권하는 정도	3.4	3.1	3.3	3.3
사회복귀 적응 및 재범방지 가능성	3.4	3.2	3.5	3.4

주: 1: 매우 작음 2: 작음 3: 보통 4: 큼 5:매우 큼

나. 직업훈련의 요구와 개선점

직업훈련의 요구와 개선점을 조사한 결과, “직업훈련 이수 후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4.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업훈련 이수 후의 취업지원 및 상담 강화”(4.2점), “직업훈련생에 대한 처우 및 지원 개선”(4.2점), “기업체 맞춤형 직업훈련 및 현장실습의 강화”(4.2점)순이었다.

<표 4-36>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요구와 개선점

(단위: 평균 점)

참여과정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이상 (전문숙련 훈련과정 포함)	전체 평균
직업훈련 요구나 개선				
우수한 직업훈련교사의 확보	3.7	3.8	3.6	3.7
우수한 외부강사인력의 초빙	3.9	3.9	3.9	3.9
수형자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훈련직종의 제공	4.1	4.3	3.8	4.1
직업훈련 이수 후의 취업지원 및 상담 강화	4.2	4.3	4.0	4.2
직업훈련 이수 후 자격증취득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4.3	4.4	4.1	4.3
직업훈련 교육 및 교수방법의 개선	3.7	3.7	3.5	3.7
직업훈련생에 대한 처우 및 지원 개선	4.2	4.4	4.2	4.2
직업훈련생의 선발기준 개선	3.8	3.8	3.8	3.8
충분한 직업훈련시설과 장비의 확보	4.1	4.1	3.9	4.1
기업체 맞춤형 직업훈련 및 현장실습의 강화	4.2	4.4	4.2	4.2

주: 1: 전혀 필요하지 않음 2: 필요하지 않음 3: 보통 4: 필요함 5: 매우 필요함

직업훈련과정별로 보면, 먼저 기능사 과정은 “직업훈련 이수 후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4.3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직업훈련 이수 후의 취업지원 및 상담 강화”(4.2점), “직업훈련생에 대한 처우 및 지원 개선”(4.2점), “기업체 맞춤형 직업훈련 및 현장실습의 강화”(4.2점) 등이 전체 평균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산업기사 과정은 “직업훈련 이수 후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직업훈련생에 대한 처우 및 지원 개선” 그리고 “기업체 맞춤형 직업훈련 및 현장실습의 강화”가 4.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형자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훈련직종의 제공”(4.3점)과 “직업훈련 이수 후의 취업지원 및 상담강화”(4.3점)순이었다.

끝으로, 기사 이상 과정은 “직업훈련생에 대한 처우 및 지원 개선”과 “기업체 맞춤형 직업훈련 및 현장실습의 강화”가 4.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업훈련 이수 후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4.1점)과 “직업훈련 이수 후의 취업지원 및 상담강화”(4.0점)순이었다.

제3절 논의 및 시사점

1. 수형자 직업훈련기관 실태조사의 결과요약 및 시사점

이상의 수형자 직업훈련기관의 실태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직업훈련기관의 담당인력 적정성 측면에서는 전담관리인력, 직업훈련교사, 외부강사 규모에 대해 수형자 직업훈련관련 담당자 중 44.4%가 적정하다고 인식한 반면, 55.6%는 적정하지 않다고 보았다.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수형자 직업훈련 관련 담당자는 전담관리인력 1명, 정규직업 훈련교사 2명, 외래강사 1명 수준에서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전담관리인력을 충원이 필요한 것은 직업훈련관리 외 행정업무가 과다하여 이를 분산하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였으며, 직업훈련 관련 교·강사의 증원 이유는 직업훈련교사의 최소정원을 확보하여 수업의 내실화를 꾀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또한, 직업훈련기관의 예산지원의 충분성 측면에서는 수형자 직업훈련 관련 담당자의 51.8%가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지원에 있어 현재 정부의 예산지원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직업훈련 내실화를 위해 예산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전담인력과 교사의 충원을 꼽았다. 그리고 현재 직업훈련 전담인력의 업무에서는 수형자 직업훈련 관련 담당자의 66.7%가 수형자 직업훈련과 관련된 행정업무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편, 수형자 직업훈련 관련 담당자들은 수형자들이 출소 후 취·창업과 구직기술의 연마를 위해 직업훈련을 시작한다고 보았다.

수형자 직업훈련기관에서의 직업훈련 이수 후 출소자를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여부 효과성 측면에서는 취업특강(92.2%), 직업상담(취·창업, 직업훈련, 자격증 등)(92.2%), 취업박람회(92.2%)가 활성화된 반면, 단기적 응훈련 프로그램(48.1%), 인터넷 활용 취업지원 시스템 운용(44.4%)은 다

른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약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형자 직업훈련기관의 담당인력의 전문성 측면에서는 담당관리인력의 전문성에 대해 직업훈련 관련 담당자의 63.0%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관리인력의 재교육이나 연수에는 직업훈련 관련 담당자의 44.4%가 참여하고 있었으며, 참여방법은 주로 자체 프로그램의 연수 실시(41.7%)와 정부교육 및 연수기관(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교육원, 대학의 연수기관 등)(41.7%)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교육이나 연수의 참여빈도는 직업훈련 관련 담당자의 75%가 “연 1~2회”정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담인력과 직업훈련교사의 재교육 및 연수 시 가장 필요한 내용으로는 담당과정에 대한 신기술 연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업정보(직종, 자격, 훈련 등) 수집과 탐색 및 평가방법, 수형자 대상 전문상담 및 각종 검사 기법과 결과 해석기술, 구직 및 구인방법 안내, 취업처인 기업체와의 교류 능력순이었다.

수형자 직업훈련기관의 실태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수형자 직업훈련 관련인력의 충원을 통해 기존 직업훈련 담당인력의 업무분담 및 역할에 대한 인배가 필요하다. 수형자 직업훈련기관의 담당자는 전담관리인력, 직업훈련교사, 외부강사에 대한 충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업훈련 외 행정업무 및 일반 교도작업의 병행으로 업무가 가중되면서 직업훈련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형자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과 관련된 전담부서나 팀의 구성을 통해 직업훈련 관련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수형자의 직업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예산지원을 통해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수형자 직업훈련 관련 담당자는 “직업훈련 이수

후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지원”(8명, 29.6%)과 “직업훈련과 관련시설 확충 지원”(5명, 18.5%)에 대한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전담인력과 교사의 충원지원”(14명, 51.9%)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수형자 직업훈련의 정부지원 시 우선 요구항목도 전담관리 인력과 교사충원으로 나타나 현재 수형자 직업훈련기관의 담당자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수형자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정부일반회계 및 교도작업특별회계 지원 외에 유관기관인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과의 협조를 통해 별도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수형자 직업훈련과 관련한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직업훈련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수형자 직업훈련기관은 교정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인적 교류, 정보교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교류 부족으로 최신 직업훈련동향이나 취업알선에 대한 정보접근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수형자의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향후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수형자의 직업훈련 참여 이유가 출소 후 취·창업을 위한 구직기술 습득에 있으므로 이러한 수형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은 수형자 직업훈련에 있어 가장 필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직업훈련 이수 후 출소자를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취업특강이나 취업박람회 등 실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응에 필요한 단기훈련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취업특강, 취업박람회, 직업상담, 특화된 직업정보 제공 등 취업관련 프로그램은 수형자 직업훈련기관의 절반 이상이 운영 및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단기적응훈련 프로그램은 절반 이하의 수형자 직업훈련기관에서만 운영 및 지원되고 있었다. 또한, 지원효과에서도 이들 취업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에 대해 비교적 효과가 있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 단기적응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인식하

고 있었다. 따라서 출소자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은 기존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및 특화해 나가면서 단기적응훈련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식정립을 통해 자립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담당관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재교육 및 연수과정이 필요하다. 수형자 직업훈련기관 담당자의 63.0%인 17명이 담당 관리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재교육이나 연수 참여자의 경우는 자체 프로그램이나 정부교육 및 연수기관에서 연 1~2회 정도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교육이나 취업정보는 시간과 관련이 많으므로 분기별로 재교육이나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업훈련 담당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직업훈련 담당인력의 재교육이나 연수는 담당과정에 대한 신기술 연수나 구직과 관련된 취업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수형자 직업훈련 만족도 와 요구조사의 결과요약 및 시사점

이상의 수형자 직업훈련 만족도 및 요구조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형자 직업훈련과정의 참여특성을 보면, 성별로는 남성의 76.7%, 여성의 88.7%가 훈련에 참여하고 있고, 연령별로는 30~40대, 학력별로는 고졸(61.8%)이 가장 많았다. 수형자 직업훈련과정의 훈련기간별 참여특성을 보면, 기능사 과정에서의 6개월~1년 과정(76.9%)이 가장 많았다. 직업훈련과정별 수형자의 직업훈련목적은 출소 후 취·창업하기 위해(50.6%)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형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여부 및 지원효과의 인식정도에서는 취업특강(62.5%), 직업상담(취·창업, 직업훈련, 자격증 등)(60.5%), 단기사회적응훈련(51.6%)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취업박람회(45.5%),

자기이해 및 각종 진단검사(46.6%), 특화된 취업정보 제공(46.9%), 인터넷 활용 취업지원 시스템 운용(34.5%)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형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효과에 대해 느끼는 정도는 “직업상담(취·창업, 직업훈련, 자격증 등) 지원”이 3.6점으로 다른 6개 프로그램보다 가장 높았다.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성이나 훈련방법”(3.7점)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업훈련기관”(3.5점), “직업훈련과정의 내용과 프로그램의 질”(3.4점)순이었다. 반면, 수형자는 “전문취업지원 상담”(2.7점)에 가장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형자의 직업훈련과정 이수 후의 가능성 정도에 대해서는 “사회복귀 적응 및 재범방지 가능성”이 3.4점으로 다른 요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요구와 개선점을 보면, “직업훈련 이수 후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4.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업훈련 이수 후의 취업지원 및 상담 강화”(4.2점), “직업훈련생에 대한 처우 및 지원 개선”(4.2점), “기업체 맞춤형 직업훈련 및 현장실습의 강화”(4.2점)순이었다.

수형자의 직업훈련 참여 만족도 및 요구조사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수형자들의 관심분야, 취업욕구, 연령 및 학력, 재범횟수 등을 고려한 직업훈련생 모집 및 특화된 훈련제공이 요구된다. 직업훈련 수형자들의 직업훈련 참여목적이 대부분 출소 후 취·창업을 통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직업훈련의 참여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취·창업” 및 “신기술 습득” 외에 “조기석방”이라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형자 직업훈련은 직업훈련생 선발기준을 강화하여 훈련생의 질 관리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둘째, 수형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수형자가 출소 후 취·창업이 가능하도록 적성, 흥미, 습득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지원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다. 수형자의 직업훈련 만족도 및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수형자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효과는 직업상담(취·창업, 직업훈련, 자격증 등) 지원에서만 있을 뿐 나머지 지원 프로그램은 효과가 미흡한 것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활용 취업지원 시스템 운용지원”은 직업훈련과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지원효과가 다른 지원 프로그램들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정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외부와의 정보공유가 제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수형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수형자의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노동환경 및 인력수급 현황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취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형자에 대한 취업지원은 수형자의 신분적 제약 때문에 전문취업상담 지원이 부재할 경우 구인처 확보에 애로사항이 클 수밖에 없다. 수형자의 직업훈련 만족도 및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수형자는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성이나 훈련방법에 대체로 만족하는 반면 전문취업지원 상담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현실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수형자에게 전문취업지원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과 취업관련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기업체와의 협약체결을 통해 수형자의 취업향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형자가 직업훈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 조성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수형자의 직업훈련 만족도 및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수형자는 직업훈련 이수 후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성취동기를 제고하는 한편, 사회적응 및 정착에 필요한 취업지원 및 상담강화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수형자는 충분한 직업훈련시설과 장비의 확보 등과 같은 작업환경의 개선과 함께 직업훈련생에 대한 행정적 지원 보안을 통해 훈련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수형자의 직업훈련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최신 장비도입 및 작업환경의 개선

과 함께 자격증 취득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수형자가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출소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기반 개선이 요구된다.

다섯째, 수형자가 출소 후 취·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직업훈련직종 적용 및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실습에 의한 기회제공이 가장 절실하다. 수형자가 출소 후 교정시설에 습득한 기술과 현실 사회에서의 기술숙련정도의 차이가 커 사회정착에 실패한다면 이들의 재범재발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수형자의 직업훈련은 각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훈련직종의 제공과 함께 이를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업체 대상 직업훈련 및 현장실습이 필요하다.

제 5 장 수형자 직업훈련 개선방안

김기홍

제1절 수형자 직업훈련 개선전략과 기본방향

지금까지 제2장~제4장에서 다룬 수형자 직업훈련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 수형자 직업훈련 현황과 문제점 분석, 수형자 직업훈련 운영실태 및 만족도 조사 분석 등을 통해 발전적인 시사점과 연구 과정에서 연구의 질을 보완하기 위해 이루어진 전문가협의회와 자문회의에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수형자 직업훈련 개선전략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수형자 직업훈련의 문제점을 정밀진단하고 실태 및 요구조사 분석을 통하여 향후 직업훈련체제의 재정비와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었다.

수형자의 사회복귀 과정은 일반적으로 수형자가 교정시설에 구금된 이후부터 출소하여 다시금 사회에 재통합(reintegration)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형자의 사회복귀 과정은 교정시설 내의 사회복귀능력 함양 단계(직업훈련 프로그램, 교육교화 프로그램), 사회복귀 준비 단계(사회복귀 교류활동, 사회복귀 준비 지원활동, 수형자 가석방), 사회복귀 처우 단계(보호관찰, 갱생보호)로 구분하고 있다(김영식·서호영, 2009).

사회복귀능력 함양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수형자의 직업훈련은 수형자가 출소 후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수형 중에 원하는 직업이나 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형자 직업훈련은 기본적으로 재사회화 모델, 재통합 모델, 시민화 모델에 이념적으로 기초하고 있다(정갑섭, 1997). 이러한 수형자 처우와 관련된 이론들은 직업훈련이 수형자들에게 과학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준법 생활을 통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수형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의 추이를 보면, 2007년에 4만 5,647명, 2008년에 4만 7,966명, 2009년에 4만 8,228명, 2010년 8월 현재 4만 6,461명이다. 이중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수형자는 2010년 3,700여명으로 8% 정도로 비율상으로 많지 않지만, 비직업훈련 이수 수형자보다는 재범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성년 가석방자에 대한 재범역률에 따르면, 2002년에 재범역률은 11.6%로 나타났다. 수형 기간 동안 기능자격을 취득한 뒤 가석방된 경우 재범역률은 7.5%로 낮다는 점이다. 특히 기사장 혹은 기능장 같은 고급 기술자격 취득자의 재범역 사례는 없다는 점에서 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석방 이후의 취·창업 지원 체제를 강화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한다면 직업훈련 이수 수형자의 재범률은 매우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수형자 직업훈련의 목적은 근로정신의 함양과 직업기술교육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범방지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출소자가 재범을 하는 주요 요인이 경제적인 빈곤이기 때문에 출소 후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구직수단만을 갖추기 위한 자격취득에 치우쳐 건전한 직업인으로 갖추어야 할 근로소양교육이나 직업가치관 교육 등에는 소홀히 하였고, 출소 후 취업을 하더라도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수형자 직업훈련은 단순히

기능·기술을 가르쳐 출소 후 취업을 위한 기본적인 자격증 취득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수형자 직업훈련은 건전한 직업인으로서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내면적인 근로정신의 함양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수형자 직업훈련이 지나치게 자격증 취득의 양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 사회에서 혹은 산업체가 요구하는 수형자의 진정한 취업능력이나 직업윤리 그리고 인성교육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향후 수형자 직업훈련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형자 직업훈련에 대한 개념적 의미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수형자 직업훈련의 목표는 고도로 숙련된 기술과 근로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이라 할 수 있으며, 부가하여 안정된 수용생활과 출소 후의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교화 차원에서 수형자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보다 효과적인 직업훈련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형자 직업훈련의 개선을 위한 전략적인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수형자는 일반 사회와 차단된 특수한 환경에서 생활하다가 훈련생으로 선발되어 피동적인 성향이 있고, 사소한 주변의 환경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직업훈련생으로 선발되면 직업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직업훈련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직업훈련교사의 자질향상이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선진화된 직업훈련을 지향해야 한다.

위와 같은 수형자 직업훈련의 정체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한 요구 및 시사점들을 종합하면, 교정시설 수형자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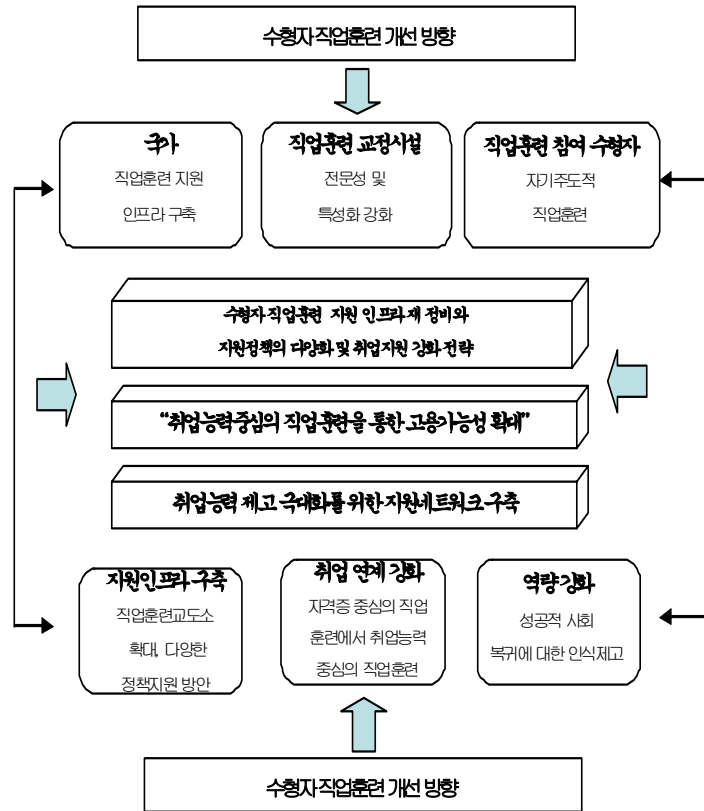
첫째, 교정시설에서의 직업훈련은 수형자가 사회적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다. 특히 수형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부정적인 편견이 심한 우리 사회에서 수형자가 별다른 교육훈련이나 인성교육 없이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직업훈련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우수한 행형 실적으로 출소하였더라도 원하는 기업에 취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만큼 수형자의 취업환경이 제한

되어 있고, 특별한 국가의 지원체제를 구축하지 않는 한 수형자의 직업훈련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형자의 직업훈련이 교도교육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수형자 직업훈련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은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특히 교정시설에서 수형자가 직업훈련을 통해 지식과 기술이 사회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수형자 직업훈련 지원 시스템의 개선과 자격취득 위주의 교육훈련 시스템에서 전문성 있는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수형자 직업훈련 인프라 구축은 수요자인 수형자와 산업체가 원하는 다양한 직종의 직업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산업체가 원하는 올바른 인성과 근로함양정신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여 수용자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즉, 수형자 직업훈련 인프라 구축은 직업훈련의 전문성확보와 특성화된 직업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이 가능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셋째, 수형자 직업훈련 인프라 구축은 직업훈련의 지원 시스템의 재정비, 직업훈련 중·장기계획 수립, 수형자의 진로 및 취업 상담 지원체계 등 수형 생활 중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원하는 수형자가 직업훈련을 통해 자신의 효율적인 사회적응과 취업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직업훈련 대상자인 수형자의 특성과 직업훈련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반영하여 직업훈련 지원의 차별화를 가져와야 하며, 또한 교정청별 직업훈련의 특성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형자 직업훈련 인프라의 재정비와 구축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수형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자료를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그림 5-1> 수형자 직업훈련 개선방향의 흐름도



제2절 수형자 직업훈련 개선방안

1. 수형자 직업훈련 인프라 구축 강화

가. 교정청별 직업훈련교도소 확대

전국 교정기관 중 직업훈련을 전담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기능사 양성과정의 정예 직업훈련교도소와 전문기술 숙련과정 교도소이다. 이들 교도소를 개칭한 후 최근 몇 년간의 괄목할 만한 교육훈련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써 직업훈련기관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교정 교화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모범사례로 성장하고 있어 긍정적인 직업훈련의 모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직업훈련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교정청별로 전문기술 숙련과정 직업훈련교도소를 확대한다면, 교정 시설 직업훈련은 여타의 일반 직업훈련기관과 견줄 수 있으며, 긍정적 효과는 크게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정시설 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정예화와 전문화를 위해서는 전문기술 숙련과정 직업훈련교도소가 확대되어 교정청별로 1개 기관 이상의 전문직업훈련기관이 신설되어 직업훈련교사의 능력 향상과 더불어 상호 간 활발한 인적·물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직업훈련교도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정청 소재지에 향상과정만을 통합 형태로 지역별 특성화된 직종을 제공하는 종합직업훈련교도소로 재편하는 방안, 즉 직업훈련과정에서 양성과정과 향상과정을 이원화하는 형태로 향상과정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둘째, 숙련과정을 제공하는 기존의 정예직업훈련교도소를 경북직업훈련교도소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같이 지역청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형자의 직업

훈련 참여 희망이 전체 수형자 대비 20% 정도가 되어야 하고, 특히 수형자가 직업훈련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시적 유인가인 직업훈련 후의 가석방이나 취업알선 및 창업을 위한 재정지원책이 현재보다 많아야 한다.

교정청별 전문직업훈련교도소의 확대를 통해 직업훈련생 신분인 수형자가 연고지 인근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훈련생의 권익이나 교육훈련 효과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나. 교정청별 직업훈련 특성화

전국의 교정청별로 훈련직종을 세분화하여 동일직종 분야의 훈련공과는 하나로 그룹화하여 교도소별로 분류 수용하고, 직종 분야별로 통합화되고 특성화된 직종을 특정 교도소로 전담시켜 직업훈련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직업훈련 기준에 준하는 직업훈련교사의 확보

교육훈련수요 욕구에 맞게 직업훈련교사 1인이 여러 직종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한두 개의 공과로 통폐합하여 한 개의 공과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을 지향하여 수준이 있는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종별 훈련생의 총원 기준이 30명을 초과하면 직업훈련교사 2인(실기교사 포함) 기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선 직업훈련 현장에서는 직업훈련교사 1인이 모든 교육훈련을 감당하는 경우가 많아 직업훈련의 교육 효과 달성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 외에 근로의식 함양이나 취업소양교육을 위한 전문교사를 교정청별 직업훈련교도소에는 배치하여 지역의 관할 교정시설에서 순회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직업훈련교사의 적정인원 확보와 더불어 이들 직업훈련교사들은 필기시험 면제에 충족하는 직업훈련교사와 산업기사 자격 취득을 위해 강의와 실무가 가능한 직업훈련교사로

충원해야 한다. 또한, 교양교육, 즉 직업생활, 체육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교사를 교정청별 종합직업훈련교도소에 배치하여 지역에서 순환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배치할 필요가 있다.

라. 직업훈련 기준에 준하는 직업훈련 교육시설과 장비의 확보

직업훈련 교육 시설과 장비는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기준 등에 명시된 훈련직종별 시설기준 면적이나 장비의 기준에 최소한의 요건만을 지키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훈련요건을 정한 것이므로 실습장과 이론 강의실의 법무부 시설 기준 면적 이상을 확보하고, 훈련종목에 따른 시설 기준 장비와 기준 외 장비 등을 적절히 보유하여 효과적인 직업훈련이 되도록 한다.

마. 적정 직업훈련 예산의 확보 및 일반회계로의 전환

현재는 직업훈련 예산으로 정부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별도의 세입·세출 예산을 경리하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별도의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하고, 예산책정이 해마다 이루어지는 형식이라 적정한 직업훈련 예산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경비를 세출로 하는 일반회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안정적인 예산확보로 중장기적인 직업훈련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직업훈련 장비나 시설을 시의적절하게 확충하는 등 체계적인 직업훈련계획이 가능하게 된다. 특별회계예산으로 정부예산에서 별도로 직업훈련 예산이 책정되는 시스템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계획적인 직업훈련을 어렵게 하고, 직업훈련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바. 수형자 직업훈련 유관기관 간의 협력망 구축

수형자 직업훈련과 관련된 유관기관들(산업인력공단 산하 폴리텍대학 유사직종과 협력, 대한상의직업훈련소 유사직종과 협력)은 교정기관별 협력망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정기관별 협력망은 직업교육을 받은 수형자가 출소 후 연고지에서 안정된 직업을 찾고자 할 경우, 인근 교정기관의 직업훈련 부서에서 취업처를 찾도록 협력하는 관계망을 구축하는 등 수형자 취업분야에 대한 지원형식이 우선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업·취업 분야에 있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나 소상공인 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사. 수형자에 대한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체제

수형자 취업의 특성은 수형생활 전에 종사하던 직종에 종사하려는 진직회귀성향이 있고, 오랜 수형생활의 고난(苦難)을 겪어 고향이나 친·인척 거주지 등 연고지로 귀향하여 직업을 찾으려는 성향이 강하다. 또한, 수형자의 특성상 심층적 상담의 종착점은 훈련생의 범죄행적(교도소 입소 계기)과 연관되므로, 친밀성이 떨어지는 직업상담사와의 면담보다는 담당 훈련교사와의 진로상담이 친밀한 유대감으로 인해 취업상담의 효과가 클 수 있다. 따라서 수형자 진로상담은 1, 2차로 구분하여 1차적으로 담당 직업훈련교사와 취업상담을 하고 2차적으로 전문직업상담사와 면담하여 취업의 효율을 극대화시켜 재범방지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진로상담은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출소 초기까지의 실질적인 취업상담은 직업훈련을 담당한 교도소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직업훈련생이 수형자 신분이므로 형기 종료 전에 일반 사업장으로의 취업 면접(동행 출장)이 아주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 유관기관의 취업지원 연계체제의 구축이 절실하다. 만약 출소자가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취업한 사업장에 장기 적응

능력이 떨어지므로 일정 기간 취업보호 관찰기간을 두어 이직 시의 지원 방안까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취업알선 후 사후관리를 위해 기록카드를 작성하여 2년 정도 사후지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는 전과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이 뿌리 깊어 사업장내 재범 발생 우려 등으로 취업가능 사업장이 소수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며, 또한 사업장에서 전과자 신분노출로 채용기피나 근로조건에 대한 타협점을 찾기 어려워 취업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한 후 출소하는 수형자에게 보다 효과적이며 강력한 취업지원체계가 요구된다.

아.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표준화

수형자의 직업훈련은 안정된 수형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측면과 출소 후 안정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배양한다는 실리적 측면이 함께 병존한다. 전자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일반적인 수형 생활에 극도의 부적응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수형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면, 강력사범(살인, 조폭, 마약, 성폭력 등) 출신 등의 훈련생을 선발하여 훈련의 목표를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사범(절도나 무직 생활로 인한 생계형 범죄 전력자 등)이나 우발적 범법행위자 등과 구분이 없이 혼합 교육하는 것은 일반 직업훈련생에게 강력사범들의 악성적 범죄 성향을 모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출소 후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교육적 효과의 측면뿐 아니라 재범의 예방적 측면에서도 직업훈련 대상자를 수용자 경비 등급으로 더욱더 세분화하여 엄정한 선정을 위한 표준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직업훈련생 선발의 표준화는 크게 일반교도소의 직업훈련 대상자 선발 과정, 공공 집체직업훈련소, 직업훈련교도소 등 각각의 교정기관이 뚜렷하게 지향하고 있는 직업훈련 목적에 맞는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자. 수형자 직업훈련 지원 전담기구의 설치·운영

수형자 직업훈련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형자 직업훈련 전반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로 새롭게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전담기구로 가칭 ‘중앙직업훈련지원센터’와 ‘교정청별 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향후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직업훈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취업능력을 가진 수형자의 출소 후 취업알선 및 취업진로 상담, 각종의 취업관련 검사 등을 수요자 중심의 지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와 같이 교정시설의 수형자 직업훈련이 중앙과 지역 교정시설 간에 행정체제로만 조직되어 있다면 소규모적인 직업훈련체제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 장기적으로 전체 수형자 중에 직업훈련 대상자의 비율을 높여 직업훈련을 위한 인프라를 보완해야 예산투입 대비 직업훈련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칭 ‘중앙직업훈련지원센터’는 법무부 교정국의 산하 지원기관으로 설치·운영하거나, 매년 일정 센터 운영 보조금을 지원을 통해 중앙단위 직업훈련 전문기관에 위탁사업의 형태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전담지원 기구로서 ‘중앙직업훈련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첫째, 수형자 직업훈련에 관하여 법무부와 관련 부처의 통합적인 정책에 관한 연구기능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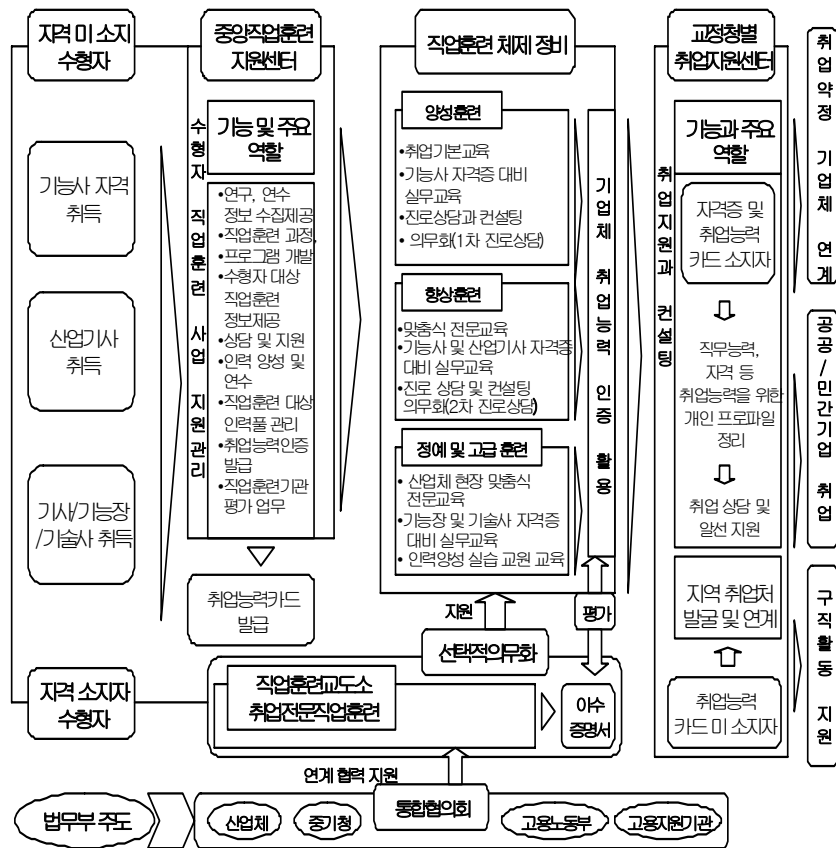
둘째, 수형자 직업훈련에 필요한 DB자료의 생성·수집·가공·분배의 기능 및 수형자 직업훈련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수형자 직업훈련에 관한 교정청별 전달체계의 구축과 조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지역단위 ‘교정청별 취업지원센터’와 효율적인 연계망을 구축하여 수형자와 기업 등 수요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별 고용노동부의 지역고용센터, 산업인력공단 혹은 한국폴리텍대학 등 타 관련기관과 연계를 해야 한다.

넷째, 수형자 직업훈련에 관해 개발된 정보와 프로그램을 현장에 보급·지

도하거나 수형자 직업훈련과 취업 및 진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양성하고 연수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5-2> 수형자 직업훈련 지원체제 재정비 방안



다섯째, 수형자 직업훈련과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데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며, 공식·비공식적인 협의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연구협력 및 정보자료의 상호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수형자 직업훈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형자의 취업능력을 인증할 수 있는 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직업훈련지원센터’는 수형자의 취업능력을 인증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 관리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중앙단위에서 ‘중앙직업훈련지원센터’는 법무부의 산하기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단위 전담기관으로 교정청별 ‘취업지원센터’는 ‘중앙직업훈련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지역의 직업훈련 참여 수형자에 대한 취업능력카드의 관리와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에 필요한 제반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 두 수형자 직업훈련 지원기관의 운영을 위한 예산은 법무부의 일반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 취업능력카드제 도입을 통한 취업능력 위주의 직업훈련체제 전환

수형자 직업훈련이 자격취득을 위한 수단만이 아닌, 수형자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취업능력을 길러 주는 직업훈련 체제로 혁신해야 한다. 이러한 체제혁신의 중심에 취업능력 카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취업능력카드제는 직업훈련 참여 수형자가 교정시설에서 배운 직업훈련은 물론 사회에서 취득한 경력을 인증하여 포트폴리오(portfolios) 형식으로 관리하고, 수형자가 자신의 향후 계획과 자신이 경험한 일이나 기술에 관한 직무능력 사항들을 문서화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바로 원하는 직장으로의 취업을 용이하게 지원하는 정보자료로서 기존의 구직카드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취업능력카드에는 사회취업 계획과 목표, 취업능력에 대한 내용, 전문기술자격, 교육훈련, 취업상담 및 정보제공, 각종 검사 등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기록·관리함으로써 사회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2. 수형자 직업훈련 이수과정과 프로그램 강화

가. 단계별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화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분기별(3개월), 반기별(6개월), 연간(1년), 2년(산업기사반) 등으로 이수단위를 세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직업훈련의 직종은 훈련과정 입소 전에 결정되어 대부분 6개월이나 1년여 간 동일 직종을 이수하는 시스템이므로 훈련 도중에 직종을 변경하거나 다직종, 다기능을 취득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형기가 길더라도 직업훈련 기간이나 기회는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직업훈련생의 선택의 폭을 넓혀 단계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보다 좋은 교육훈련의 질적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다. 그 예로, 기능사(6개월) 과정 취득 후 연계하여 산업기사(2년), 전문학사 과정(2년)으로 개연성이 있는 훈련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단순 기능사 과정에서 다기능 과정으로의 확대

단순 기능사 과정에서 취득한 기능사라는 국가기술자격증이 사회에서 큰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자격증 취득 후에도 다기능 과정의 기술숙련만이 직접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자격증에 대한 인정이나 활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직업훈련생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건축시공과의 경우 직업훈련생의 건축분야 기능사 자격증 분포는 타일, 미장, 조적 등을 비롯하여 10여 종 이상이 되어 직업훈련생 상호 간에도 미취득 자격 종목이 많고, 산업현장의 취업전망을 보아 취업에 직접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선정하여 자격증 취득 과정을 보조적으로 운영하고 대처하고 있다.

다. 취업 유망 직종을 고려한 직업훈련 직종의 개발

직업훈련의 궁극적인 목표가 훈련생이 출소 후 안정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술습득에 있으므로 취업유망직종을 새로이 개발하여 어려운 취업현실에 대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수형자 직업훈련의 특성 중 신분상으로 볼 때 별정직 직업훈련교사의 전공분야, 임용특징, 기존장비의 활용적인 측면 등 인적·물적 고정적 요소로 인해 취업유망 직종을 고려해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특성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직업훈련 종목 중 동일 계열 중에서도 좀 더 취업에 유망한 직종을 선별하여 특정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산업체와 연계된 현장실습 프로그램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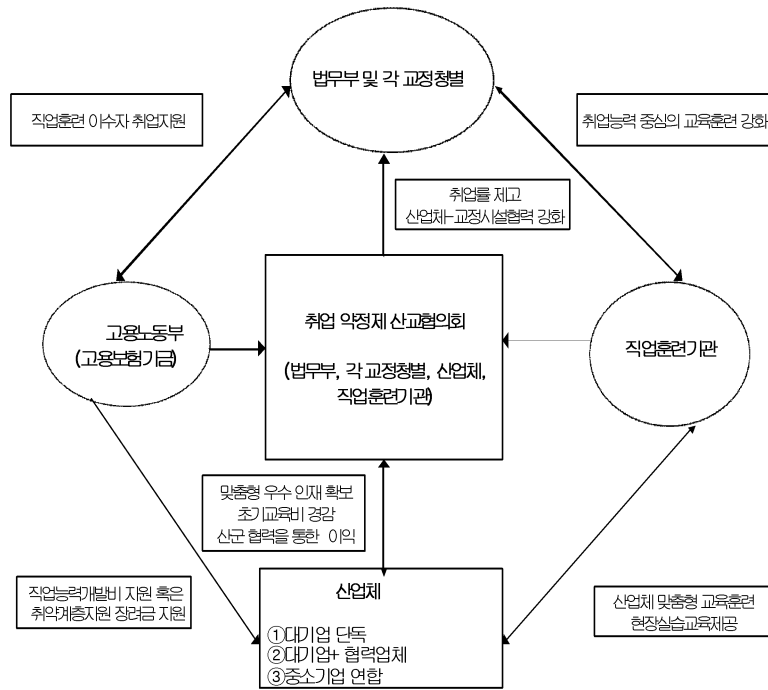
수형자 직업훈련에 있어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실습은 일반 수형자와 처우상의 형평성 문제, 훈련생의 계호측면 등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체와 연계된 현장실습 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산업체를 선별하거나 산업체의 인프라를 훈련장 안으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나 산업체의 임직원이 훈련장 외래강사로 교육하는 방법 등이 있다.

마. 취업률 제고를 위한 가칭 ‘맞춤형 취업약정제’ 프로그램의 운영

‘취업약정제’ 프로그램은 교정시설과 산업체와의 취업연계협력의 하나로 교정시설과 산업체가 직업훈련을 통한 자격취득 후 출소 전까지 수형자 중 산업체 맞춤형 향상 교육훈련을 통해 매년 일정한 수형자를 취업시킬 수 있도록 상호 약정하여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취업약정제’는 강제적인 의무 약정제는 아니지만, 산업체의 맞춤형 인력 요구와 직업훈련

이수 수형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다.

<그림 5-3> 취업약정제 프로그램 도입



‘취업약정제’ 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산업체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산업체는 맞춤형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인턴십 및 현장실습을 허용하고 공동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교육훈련 이수 수형자를 고용해야 한다. 이러한 교정시설과 산업체와의 협력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부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사. 수형자 직업훈련에 대한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

수형자 직업훈련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고, 교정시설별 많은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일반인이나 수형자가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실정이다. 직업훈련 표준 매뉴얼은 수형자, 직업훈련교사, 직업훈련 전담 행정인력, 산업체,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일반 직업훈련과정과 지원에 대한 준거와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해야 하며, 수형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현장실습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지침, 취업능력카드제의 내용 등을 함축해야 한다.

3. 직업훈련교사에 대한 지원 강화

교육훈련의 내용적인 측면의 질적 수준이나 교육효과를 결정짓는 척도가 직업훈련교사의 자질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교육훈련에 따른 책임 또한 직업훈련교사에게 있다. 그렇지만, 직업훈련에 매진할 수 있는 지원여건 없이는 우수한 교육적 자질을 갖춘 직업훈련교사라도 좋은 교육훈련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수형자 직업훈련은 대부분 별정직공무원의 신분으로 있는 직업훈련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업훈련교사의 별정직 신분을 일반직화하거나 직급을 상향하는 등의 구조적인 체계의 조정이 필요하고, 국내외의 각종 교육훈련 연수나 우수 직업훈련교사에 대해서는 자격이나 교육훈련의 교재연구수당 등의 지급이 필요하다.

가. 직업훈련교사의 일반직화 및 직급 조정

교육훈련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위치에 있는 직업훈련교사는 직업훈련교육의 주체라 할 수 있다. 직업훈련교사의 일반직화는 별정직 신분에 있을 때

보다도 더 안정적인 지위에 있게 되므로 보다 발전된 형태의 직업훈련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비슷한 근속 연한에 있는 경우, 일반직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직급으로 직업훈련교사의 직급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나. 직업훈련교사의 연수 강화 지원

수형자 직업훈련의 주체인 직업훈련교사의 연수기회는 법무(교정)연수원이거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신기술 연수교육 및 전문 집체교육 등 1~2주간의 한정된 연간교육 이수가 전부인 실정이다. 직업훈련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직업훈련교사의 자질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한국폴리텍대학 수준의 교원연수(장·단기 국외연수 등)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다. 우수 직업훈련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훈련생의 교육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취업실적 등으로 성과급의 차등 지원, 차별화된 수당 지급 등의 금전적인 보상을 지원하는 방안과 승진 및 전보 기회 등 인사상의 차별화 등 인센티브를 세분화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4. 수형자에 대한 지원 강화

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행형 성적 반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 즉 훈련자원의 중요성은 직업훈련에 앞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지원자가 많으면 훈련과정(직종)에 적합한 훈련생을 적절히 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훈련기관이 멀거나 훈

련환경이 불리하면 지원하려는 훈련생이 많지 않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직업훈련 대상자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행형 성적은 수용자 분류 등급 체계나 가석방 심사 등에 반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직업훈련 수료 후 자격 취득자에 대해서는 합동집견 및 가족만남의집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혜택 부여가 필요하다.

나. 국가기술자격 취득과 학점은행제와 연계한 전문학사 과정 개설

학점은행제와 연계한 전문학사 과정 개설을 언급하기 전에 이에 맞는 수용자 신분의 학력이 먼저 선행조건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예 : 고졸이상의 학력자). 현행 제도하에 기술자격별 학점인정 범위는 산업기사(12학점), 기사(24학점) 등이다. 국가기술자격 취득 과정은 기능사나 산업기사(기능사 취득 후 1년 경력이면 응시 가능) 과정을 운용하여, 자격취득을 하게 된다. 자격취득 후 실무적 과정을 거친 훈련생은 곧바로 기사 취득(기능사 취득 후 3년, 산업기사 취득 후 1년 경력) 자격이 발생되므로, 산업기사나 기사를 취득한 훈련생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센터에 등록하도록 하여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 취득의 길을 열어 줄 수 있다. 또한, 전문학사 자격취득에 요구되는 학점은행제의 전공필수나 이론전공 이수학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원격수업방식(온라인 강좌)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시스템의 체계적 구축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전문학사 과정의 학점인정 전담직업훈련교사와 학점인정교과 등을 세부 전공별로 선별하여 학점은행에 등록하여 교육훈련 이수 후에는 학점을 병행하여 취득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다. 다기능 기술자격 취득 기회 제공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같은 교정(직업훈련)기관 내에 개설된 직종은 훈련생이 희망 시 반기별로 전공을 바꿀 수 있는 전과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타소에 개설된 공과라도 훈련생이 희망하면 중도에 직업훈련기관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라. 취업자에 대한 사후지도 강화 및 창업지원

직업훈련을 수료한 출소자에 대한 취업관련 사후지도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형기 종료 후에 일어나는 일을 사후지도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침해로 여겨질 소지가 크다. 이로 인해 직업훈련과정 중에 맺어진 훈련교사와의 친분을 활용하여 사후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하 지역고용센터 등에서는 직업훈련생이 출소 후에 구인업체 이력서 제출, 면접, 상담 등을 전문적으로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 직원을 통한 전담부서 지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업훈련을 마치고 출소하여 창업할 경우, 현 제도하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창업지원금은 미소금융이나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이러한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 교육이 필요하다. 다만, 수형자 대부분이 신용불량자가 대부분인 만큼 금융지원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성공 가능성이 높은 직업훈련 이수 수형자에게는 정부의 신원보증이나 별도의 창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마. 수형지의 자기주도적인 취업능력 강화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교도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형자 자신에게 있다. 그만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수형자 개인의 취업능력 강화가 중요하다. 수형자 자신이 취업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의 참여는 물론 자신의 취업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에도 소홀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수형자는 자신의 취업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

첫째, 수형자 자신은 성공적인 사회복귀의 일차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출소 후의 생애 진로에 대한 설계를 거시적으로 계획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수형자는 자신의 고용가치를 높이는 노력으로 향후 자신을 고용하게 될 기업에 대한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취업능력의 습득이 필요하며,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자격을 직업훈련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표화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5. 수형자 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

가. 정부의 보증과 세제혜택부여

수형자 채용 기업에 대해 막연히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은 법 감정상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행 제도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수형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교정 기관에서 기업 홍보를 해 주거나 필요한 물품의 조달이나 공사계약 등에 소액 수익계약 내지는 입찰 우선권 및 세제혜택을 주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나. 수형자 채용 기업에게 기업지원 자금

수형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기업지원자금의 혜택이나 정부가 일정기간 인턴 형식의 월급을 지원하거나, 2년 이상 장기간 채용할 경우 월급의 50%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자격취득 수형자의 취업률 제고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정책방안의 추진주체와 추진계획

1. 추진주체별 정책방안

정책방안		개별 교도소	교정청	범 정부 차원
수형자 직업훈련 인프라 강화	·교정청별 직업훈련교도소 확대		●	●
	·교정청별 직업훈련 특성화	●	●	●
	·직업훈련기준에 준하는 직업훈련교사 확보	●	●	●
	·적정 직업훈련 예산의 확보 및 일반화체로의 전환	●	●	
	·수형자 직업훈련 유관기관 간의 협력망 구축	●	●	●
	·수형자에 대한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체제 구축	●	●	
	·직업훈련 대상 선정의 표준화	●	●	
	·수형자 직업훈련 지원 전담기구 설치운영	●	●	
수형자 직업훈련 이수 과정과 프 로그램 강화	·취업능력카드제 도입을 통한 취업능력 위주의 직업훈련 강화	●	●	●
	·단계별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화	●	●	
	·단순 기능사 과정에서 다기능 과정으로의 확대	●	●	
	·취업 유망 직종을 고려한 직업훈련직종의 개발	●	●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실습 프로그램 연계 강화	●	●	●
직업훈련교사에 대한 지원	·취업률 제고를 위한 가칭 '맞춤형 취업 약정제' 프로그램 운영	●	●	●
	·직업훈련교사의 일반직화 및 직급 조정	●	●	
	·직업훈련교사의 연수 강화 지원	●	●	●
수형자에 대한 지원	·우수 직업훈련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행정 성적 반영	●	●	
	·국가기술자격 취득과 학점은행제를 연계한 전문학사 과정 개설		●	●
	·다기능 기술자격 취득기회 제공	●	●	
수형자 채용기업 에 대한 지원	·취업자에 대한 사후지도 및 창업지원	●	●	
	·수형자의 자기주도적인 취업능력 강화	●		
수형자 채용기업 에 대한 지원	·정부의 보증과 세제혜택 부여			●
	·수형자 채용 기업에 자금지원			●

2. 정책방안 추진계획(안)

정책방안		추진 일정		
		단기 (2년)	중기 (4년)	장기 (6년)
수형자 직업훈련 인프라 강화	·교정청별 직업훈련교도소 확대			
	·교정청별 직업훈련 특성화			
	·직업훈련기준에 준하는 직업훈련교사 확보			
	·적정 직업훈련 예산의 확보 및 일반회계로의 전환			
	·수형자 직업훈련 유관기관 간의 협력망 구축			
	·수형자에 대한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체제 구축			
	·직업훈련 대상 선정의 표준화			
	·수형자 직업훈련 지원 전달기구 설치운영			
	·취업능력카드제 도입을 통한 취업능력 위주의 직업훈련 강화			
수형자 직업훈련 이수 과정과 프로그램 강화	·단계별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화			
	·단순 기능사 과정에서 다기능 과정으로의 확대			
	·취업 유망 직종을 고려한 직업훈련직종의 개발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실습 프로그램 연계 강화			
	·취업률 제고를 위한 가칭 '맞춤형 취업 약정제' 프로그램 운영			
직업훈련교사에 대한 지원	·직업훈련교사의 일반직화 및 직급 조정			
	·직업훈련교사의 연수 강화 지원			
	·우수 직업훈련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수형자에 대한 지원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행정 성적 반영			
	·국가기술자격 취득과 학점은행제를 연계한 전문학사 과정 개설			
	·다기능 기술자격 취득기회 제공			
	·취업자에 대한 사후지도 및 창업지원			
	·수형자의 자기주도적인 취업능력 강화			
수형자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의 보증과 세제혜택 부여			
	·수형자 채용 기업에 자금지원			

제4절 결론 및 제언

1. 결론

교정시설 수형자는 자신의 형기를 마치면 언젠가는 사회로 복귀를 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 기간 사회와 단절된 장소인 교도소에서 구금생활을 해야 한다. 수형자는 구금생활 중에 자신의 선택에 의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수형자의 직업훈련은 출소 후 취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하게 하여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의 수형자 직업훈련은 기본적인 지원 인프라 체제의 미흡, 직업훈련시설과 예산의 부족, 전담관리인력과 적정 직업훈련교사의 미확보, 자격증 취득 후의 취업상담 및 알선 지원 미흡 등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시스템이 사회의 노동시장 현실과 괴리가 있고, 또한 수형자에 대한 사회인들의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수형자가 고급의 기사자격증을 취득하여도 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격증만 취득하고 별다른 경력이 없는 경우 고임금을 주는 자리에 채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수형자의 직업훈련 직종은 현대화가 되는 것은 필요하나, 다만 지나치게 사회의 지식기반 첨단 분야나 IT 분야로 확대하여 기존의 대학이나 특성화된 전문계고등학교 등에서 배출된 인력과 경쟁을 하는 체제로 되어서는 안된다.

2008년 현재 직업훈련 이수자의 취업률은 24.3% 정도로 75.7%는 미취업 상태에 있다. 이는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이 한편으로 사회의 직업과 연계성이 낮거나 취업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 범죄의 전력이 취업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업훈련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출소자의 재범률은 직업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일반 재소자의 재범률보다 낮다는 점이다.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다른 어떠한

교육보다 직업훈련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직업훈련과 더불어 일의 가치와 남을 배려하는 인성교육, 그리고 직업인으로서의 윤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로함양교육이 필요하다.

정부는 안정된 수용생활과 출소 후의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교화 차원에서 수형자 직업훈련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출소자가 구직에 필요한 노력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도움과 유관기관 간의 역할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수형자 직업훈련은 예산투입(input) 보다도 더 큰 직업훈련생의 기술 습득이 결과물로 산출(output)되어야 한다는 실리적인 기대 측면에서 보면, 직업훈련이 절실히 필요한 경제사범 위주의 생계형 범죄 전과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다. 전과자 양성이라는 신분보다는 구제교육의 일환으로 법정 봉사시간과 기능시험을 통해 재교육을 연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수형자 직업훈련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수형자의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일선 교도소의 특징상 보안 위주의 경직된 환경의 틀 안에서 자체 훈련생을 선발하여 기능사양성 과정과 수료교육 후 전문기술숙련 과정의 훈련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안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2. 제언

이 연구는 이러한 수형자 직업훈련 강화 및 개선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수형자 직업훈련이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수형자가 수형생활 중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수형자 직업훈련과 관련된 이론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 수형자 직업훈련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분석, 수형자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분석, 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 만족도와 의견 및 요구

조사 분석, 수형자의 직업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과 다양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수형자 직업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과 다양한 개선방안들이 정부와 관련부처의 수형자 직업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에 반영되어 실행된다면, 수형자 직업훈련 정책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시적·미시적 방안들이 정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및 중기청 등의 관련정책에 반영되고, 수형자 직업훈련을 활성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안정적인 지원제도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책적 배려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요구된다. 또한, 제시된 강화 및 개선 방안들은 정부와 관련부처의 역할과 책무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수형자 직업훈련에 관련이 있는 수형자 개인의 과제도 포함되어 있다. 그만큼 장기복무자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정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 수형자 개인, 사회 모두의 관심과 지원 협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된 방안들이 정부나 관련부처의 정책방안으로 실천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와 법무부 및 관련부처는,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인 직업훈련의 강화는 국가의 책무이며, 수형자의 직업훈련을 통해서 재범률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국가적 사업임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수형자 직업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단기적 정책 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단계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향후 수형자 직업훈련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지원계획을 세워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형자 직업훈련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반의 직업훈련 인프라 구축과 개선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수형자 직업훈련의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적·재정적·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정부와 관련부처는 이러한 지원 추진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 유지, 정책 추진과정의 점검과 정책에 대하여 효과성 분석이 뒤따르도록 한다.

셋째, 직업훈련 참여 수형자 개인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관련 부

처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며, 정부와 기업 및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직업훈련 이수 수형자의 취업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제한된 연구인력과 시간 속에서 수형자 직업훈련의 실태 및 개선과 관련한 광범위한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였기 때문에, 거시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정책과제나 개선방안들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였다. 향후 이와 관련한 후속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구안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SUMMARY

The Actual conditions and Improvement of Vocational training for inmates in priso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 Education & Training

Research-in-charge : Kim, Ki-Hong

Research Staff : Kim, Sun-Tae

Research Staff : Lee, Eon-Dam

Research Staff : Choi, Eun-ha

1. Research Overview

Vocational training for inmates in prison means to learn a capabilities and skills required to employ after returning to society. the purpose of vocational training for inmates in prison is to do a support that can engage in the normal social life and career after returning to society.

According to recommitment ratio for 48,767 people of adult parolee from 2002 to 2006, re-prisoners were 5,659 people(11.6%). but the case of paroled 5,735 people after earning ability to qualify during the imprisoned period is that re-prisoners were low to 431 people(7.5%). especially, it is that there is no recommitted case of advanced

technology qualification holders such as engineer or master mechanic. that is, it mean that vocational training has an effect to reduce likelihood of a second conviction.

However, vocational training for inmates in prison has a difficult structure to cope with labor market or career change with composure unlike typical vocational training in society. in addition, although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strategies about vocational training for inmates in prison have been established, there has limits that didn't an actualization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Moreover, the systematic basic research and policy studies related to mid- and long-term development for vocational training for inmates in prison is highly insufficient.

This study is to grope a plan for supporting an reorganization of vocational training and a successful reintegration of prisoners in the future through survey analysis about inmates and training teachers with getting at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vocational training for inmates in prison in terms of lifelong vocational man-power development.

2. Research Results

We can be drawn the following implications through survey analysis about inmates and training teachers.

The training teachers are necessary to improve their work environment and expertise through the support of the following.

- Arrangement for work sharing and role of the existing training teachers through the recruitment of the training teachers

- Substantiality of vocational training and job placement through the expansion of budget support
- Revitalization of vocational training through a cooperation with institutions related to vocational training
- Revitalization of short-term training programs associated with social adjustment for a suitor after the completion of vocational training
- Enlargement of regular reeducation and training courses for an expertise improvement of the training teachers

The inmates are necessary to do a role of the public interest reducing possibility of a second conviction by helping a steady social settlement through the support of the following.

- Providing recruitment of vocational trainee and specialized training with consideration for areas of interest, job needs, age, educational standards and number of a second conviction
- Strengthening an employment support to enable an employment and the commencement of an enterprise after release from prison
- Consolidating an information exchange related to employment with government agencies such a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Improving job placement through a convention with companies in the local community
- Improving of a work environment and an incentives to participate in vocational training
- Expanding a vocational training and field training of corporate target

The political support of the following have to be preceded for

revitalizing the support of the inmates and training teachers.

first, the institutions related to government and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recognize that vocational training is an important national undertaking to reduce a second conviction rate.

second, it is necessary to found a long-term financial support plan through revision of law related to vocational training of inmates as well as a short and long term policy vision and execution plan to activate a vocational training.

third, it is necessary to run parallel a construction and improvement of infrastructure through a variety of administrative, financial and legal support to be settled a vocational training system of inmates.

fourth, it should have been diffused a social awareness that the cooperation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for raising a job skills of the inmates to participate in vocational training is necessary and it is necessary to propel a continuous improvement of system linked to government, company and local community for job support and employment promotion of inmates who had completed a vocational training.

〈부 록〉

〈부록 1〉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기관 운영 실태 의견조사 설문지

〈부록 2〉 교정시설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조사 설문지

〈부록 3〉 교정시설 수형자의 직업훈련 만족도 및 요구조사 결과
(혼인여부 및 교정횟수)

〈부록 1〉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기관 운영 실태 의견조사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기관 운영 실태
의견조사**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0년도에 기본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실태분석 및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수형자 직업훈련기관의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이 연구는 교정시설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 현황과 문제점 및 관련 지원 정책을 진단하고 분석하며, 수형자 직업훈련 기관의 운영 실태 및 직업훈련 참여 수형자의 직업훈련 만족도와 효과성을 조사 분석하여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연구 결과는 법무부 교정시설 직업훈련 정책에 반영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이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의견은 연구용도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 교정본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생직업교육연구실

응답하신 조사는 법무부 교정본부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mail: 책임연구원 김기홍 khkim@krivet.re.kr
위촉연구원 최원석 yonseips@hanmail.net

팩 스: 02) 3485-5140

문 의: 책임연구원 김기홍 02) 3485-5184
위촉연구원 최원석 02) 3485-5044

※ 조사 대상 : 교정시설 수형자직업훈련 담당관(기관당 1대 작성)

I. 다음은 수형자 직업훈련과 관련된 **일반적 운영 현황과 인프라**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 기관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하거나 번호에 √ 표를 해주십시오.

1. 최근 4년간 귀 기관의 수형자 **직업훈련 과정**은 몇 개입니까?

과정별 연도별	총계 (A)	공공직업훈련				일반직업훈련			
		계 (B)	양성훈련 (집체 훈련)	향상훈련 (집체 훈련)	전문 숙련 훈련	계 (C)	양성 훈련	향상 훈련	고급 훈련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예정									

※ 총계(A)는 공공직업훈련(B)+일반직업훈련(c)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2. 최근 3년간 귀 기관의 수형자 **직업훈련 수료자**는 어떠합니까?

연도별	직업훈련 인원					수료 인원				
	계 (A)	기능장 (B)	기사 (C)	산업 기사 (D)	기능사 (E)	계 (F)	기능장 (G)	기사 (H)	산업 기사 (I)	기능사 (J)
2007년										
2008년										
2009년										

※ 직업훈련 인원(A)는 B+C+D+E가 일치하여야함. 수료인원(F)는 G+H+I+J가 일치하여야 함.

3. 최근 3년간 귀 기관의 수형자 **직업훈련 참여자의 중도탈락률**은 어떠합니까?

연도별	직업훈련 참여자(명) (A)	중도탈락자(명) (B)	중도탈락율(%) (B/A)×100
2007년			
2008년			
2009년			

4. 최근 3년간 직업훈련 이수자의 자격증 취득 인원과 취득율은 어떠합니까?

연도별	취득 인원					취 득 율(%)			
	계 (A)	기능장 (B)	기 사 (C)	산업 기사 (D)	기 능 사 (E)	기능장	기 사	산업 기사	기 능 사
2007년									
2008년									
2009년									

* 취득인원(A)는 B+C+D+E가 일치하여야 함. 취득율은 B/A×100으로 산정함.

5. 현재 귀 기관의 직업훈련 전담 관리 인력(행정 및 취업전담직원)과 직업훈련 교사와 외부 강사의 현황은 어떠합니까?

구분	2010년		
	현원	과부족(+, -)	비고 (과부족 사유)
전담 관리 인력(B)			
정규 직업훈련교사(C)			
외부 교강사(D)			
합계(A)			

* 합계(A)는 B+C+D와 일치하여야 함.

5-1. 귀 기관의 전담 관리 인력과 직업훈련교사 및 외부강사 규모가 직업훈련을 담당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예(☞ 6번으로) ___ ② 아니오(☞ 5-1-1,2,3,4,5번으로)

5-1-1. 전담 관리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몇 명 정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1명 ___ ② 2명 ___ ③ 3명 ___ ④ 4명 이상

5-1-2. 정규 직업훈련교사가 충분하지 않다면, 몇 명 정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1명 ___ ② 2명 ___ ③ 3명 ___ ④ 4명 이상

5-1-3. 외래 강사가 충분하지 않다면, 몇 명 정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귀 기관의 2010년도 직업훈련을 위한 장비 현황은 어떠합니까?

구분	① 훈련 직종 (훈련 인원)	② 장비명	③ 노동부 고 시 기 준 (30)명 수량	④ 현 보유 장비현황						⑥ 장 비 과부족 (종)
				규격	단위	⑤ 수량	취득 단가	취득가격 (교특,일 반)	구입 년도	

7-1. 귀 기관의 직업훈련을 위한 훈련 장비 증감 내역은 어떠합니까?

구분	훈련 직종	장 비 명	증	감	현 보유	비 고 (증감사유)

8. 귀 기관의 수형자 직업훈련과 관련된 운영 재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분	정부일반회계 지원	교도작업특별회계지원	기타	합계
비율	()%	()%	()%	()%

8-1. 수형자 직업훈련·취업알선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전담 인력을 운용 하기에 현재의 정부의 예산 지원은 어떻습니까?

- ___ ① 전혀 충분하지 않음(☞ 8-2번으로)
- ___ ② 충분하지 않음(☞ 8-2번으로)
- ___ ③ 보통임
- ___ ④ 충분함
- ___ ⑤ 매우 충분함

8-2. 수형자 직업훈련을 내실화를 위한 어느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___ ① 전담 인력과 교사의 충원 지원
- ___ ② 직업훈련 이수 후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 ___ ③ 구인·구직 알선 지원
- ___ ④ 직업훈련과 관련 시설 확충 지원
- ___ ⑤ 기타 : ()

10. 수형자 직업훈련과 관련한 **유관기관 간의 연계협력**은 어떠한가?

유관기관간의 연계 협력 정도	매우 미흡함	미흡함	보통	충분함	매우 충분함
1. 인적 교류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⑤ _____
2. 물적 교류(시설 및 장비)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⑤ _____
3. 정보 교류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⑤ _____
4. 교육훈련 프로그램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⑤ _____
5. 취업지원 전산망 연계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⑤ _____

11. 귀 기관의 수형자 직업훈련 전담 인력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우선순위로 2개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
|---|
| ① 수형자 직업훈련과 관련 행정업무
② 수형자 직업훈련과 관련 직업지도
③ 수형자 직업훈련과 관련 상담 및 적성 검사 업무
④ 수형자 직업훈련과 관련 취업 알선 업무
⑤ 수형자 직업훈련과 관련 집단 프로그램 제공
⑥ 수형자 직업훈련과 관련 정보 자료 제공
⑦ 기타 : (_____) |
|---|

12. 귀 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수형자들은 어떠한 이유로 직업훈련을 시작한 **다고 보고 있습니까?** 아래 【보기】에서 **우선순위로 2개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
|--|
| ① 출소 후 취창업을 하기 위해
② 좀 더 조기 가석방을 위해
③ 장기간의 교도소 생활을 견디기 위해
④ 구직 기술을 배우기 위해
⑤ 여가 선용이나 건강을 위해
⑥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⑦ 기타 : (_____) |
|--|

Ⅱ. 수형자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및 전담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 기관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해주십시오.

1. 직업훈련 이수 후 출소자를 위한 취업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하지 않음	지원 하고 있음	지원하고 있다면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전혀 효과 없음	별로 효과 없음	보통	다소 효과 있음	매우 효과 있음
1. 취업 특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①___ -	②___ -	③___ -	④___ -	⑤___ -
2. 단기 적응훈련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①___ -	②___ -	③___ -	④___ -	⑤___ -
3. 취업 박람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①___ -	②___ -	③___ -	④___ -	⑤___ -
4. 자기이해 및 각종 진단 검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①___ -	②___ -	③___ -	④___ -	⑤___ -
5. 직업상담(취창업, 직업훈련, 자격증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①___ -	②___ -	③___ -	④___ -	⑤___ -
6. 특화된 직업정보 제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①___ -	②___ -	③___ -	④___ -	⑤___ -
7. 인터넷 활용 취업지원 시스템 운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①___ -	②___ -	③___ -	④___ -	⑤___ -
8. 취업지도 담당자 연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①___ -	②___ -	③___ -	④___ -	⑤___ -
기타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①___ -	②___ -	③___ -	④___ -	⑤___ -

2. 직업훈련 이수 출소자의 취업 지원하고 있는 업무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담당 관리 인력의 전문성 확보는 어떠합니까?

- ① 전혀 충분하지 않음 ② 충분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충분함
 ⑤ 매우 충분함

3. 취업 지원하고 있는 업무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담당 관리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교육이나 연수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① 예 (예 3-1, 2번으로) ② 아니오(예 4번으로)

Ⅲ. 귀 기관의 수행자 직업훈련 운영 애로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 기관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 표를 해주십시오.

1. 수행자 직업훈련 운영시 겪는 예산 및 전문 인력 외에 **문제점 사항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문항별로 해당 번호에 √ 표를 해주십시오.

문제점 사항	매우 심각함	심각함	보통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1. 직업훈련을 위한 별도 예산재정 확보	①	②	③	④	⑤
2. 시설장비	①	②	③	④	⑤
3. 정규 직업훈련교사 확보	①	②	③	④	⑤
4. 정규 직업훈련교사의 직업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5. 취업보다는 가석방을 위한 자격증 취득	①	②	③	④	⑤
6. 수행자가 원하는 취창업 직업훈련 과정의 제공	①	②	③	④	⑤
7. 직업훈련 대상자 선발에서 인가직종위주의 지원	①	②	③	④	⑤
8. 직업훈련 과정별 훈련 기간(6개월 혹은 1년 단위)	①	②	③	④	⑤
9. 산업체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제공	①	②	③	④	⑤
10. 전문 취업 지원 상담	①	②	③	④	⑤
11. 정책 결정자의 이해 및 관심	①	②	③	④	⑤
12. 자격증 취득 출소자의 적합한 구인처 확보	①	②	③	④	⑤
13. 정부, 지자체 등 관련기관간의 공조 및 네트워크	①	②			
14. 기관의 직업훈련에 대한 홍보	①	②	③	④	⑤
15. 기타: ()	①	②	③	④	⑤

2. 수행자 직업훈련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원한다면, **우선적으로 요구 하고 싶은 항목**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우선순위로 3개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직업훈련 예산 및 경비 지원 확대
- ② 직업훈련 시설 및 장비 지원
- ③ 우수기관 선정 등을 통한 홍보
- ④ 새로운 직업훈련 과정의 확대
- ⑤ 전담 관리 인력과 교사의 충원
- ⑥ 직업훈련 전담 인력과 교사의 연수 제공
- ⑦ 직업훈련 이수 출소자 취업지원 네트워크 강화
- ⑧ 기관프로그램·인력에 관한 DB 구축 및 보급
- ⑨ 기타 : ()

IV. 수형자 직업훈련 제도와 정책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직업훈련 제도 및 정책 개선 과제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을 √ 표로 기술하여 해주십시오.

1. 수형자 직업훈련 인프라와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타당한지 √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 과제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1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 체제 구축	①	②	③	④	⑤
2	지역차별 직업훈련의 특성화·전문화	①	②	③	④	⑤
3	직업훈련을 위한 별도의 일반예산 확보	①	②	③	④	⑤
4	적정 정규 직업훈련교사 및 직업안정성 확보	①	②	③	④	⑤
5	직업훈련 대상자 선발 및 진로 상담 지원 시스템 구축	①	②	③	④	⑤
6	직업훈련 과정에서 통합적 인성 교육 강화	①	②	③	④	⑤
7	지역 단위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기관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①	②	③	④	⑤
8	수형자가 원하는 취창업 과정의 제공	①	②	③	④	⑤
9	일정 지역산업과 연계된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①	②	③	④	⑤
10	수형자 직업훈련 매뉴얼 개발 보급	①	②	③	④	⑤
11	직업훈련 우수 기관에 대한 지원금 확대(운영 및 진로 상담 인력 확보)	①	②	③	④	⑤
12	직업훈련 이수 수형자 우수 취업지원 기관과 전담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①	②	③	④	⑤
13	기타 의견 : ()					

V. 귀 기관과 응답자의 일반 현황과 특성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 되는 번호에 √ 표나 기술하여 해주십시오.

1. 귀하의 소속 기관명은 무엇입니까? 기관명 : ()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___① 남 ___② 여
3. 귀하의 직책과 주요 담당 업무는 무엇입니까?
 직책: _____ 담당 업무: _____

4. 귀하의 **연령대**는 어디에 속합니까?
____ ① 20대 이하 ____ ② 20대 ____ ③ 30대 ____ ④ 40대
____ ⑤ 50대 이상
5. 귀하의 **학력**은 무엇입니까?
____ ① 전문대졸 이하 ____ ② 대졸 ____ ③ 대학원 이상
6. 귀하는 상담, 사회복지, 평생교육, 교정교육 등 **관련 자격증의 소지 여부**
는 어떠합니까?
____ ① 예 ____ ② 아니오
7. 귀하의 수형자 직업훈련 **업무 담당 근무 경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_____ 년 _____ 개월

☞ 장시간 응답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교정시설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조사

교정시설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조사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0년도에 기본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실태분석 및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교정시설에서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수형자인 여러 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이 연구는 교정시설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 현황과 문제점 및 관련 지원 정책을 진단하고 분석하며, 수형자 직업훈련 기관의 운영 실태 및 직업훈련 참여 수형자의 직업훈련 만족도와 효과성을 조사 분석하여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연구 결과는 법무부 교정시설 직업훈련 정책에 반영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이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의견은 연구용도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 교정보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생직업교육연구실

응답하신 조사지는 반송용 봉투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팩 스: 02) 3485-5140

문 의: 책임연구원 김기홍 02) 3485-5184
위촉연구원 최원석 02) 3485-5044

※ 조사 대상 : 직업훈련생용(각 기관별 : 양성훈련, 향상훈련, 숙련과정 등의 개설 인원에 비례 설문 인원 분배 요청)

I. 다음은 귀하가 참여하고 있는 **직업훈련**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해주십시오.

1. 귀하가 **참여하는 직업훈련의 등급 과정**은 무엇입니까?
 ① 기능사 ② 산업기사 ③ 기사 이상(전문숙련훈련 과정 포함)
2. 귀하가 **참여하는 직업훈련의 기간**은 어떠합니까?
 ① 6개월 과정 ② 6개월~1년 과정 ③ 1년 과정 이상~2년 과정
 ④ 2년 이상
3. 귀하가 **어떠한 이유이나 목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였습니까?**
 아래 【보기】에서 **우선순위로 2개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 |
|---------------------|---------------------|
| ① 출소 후 취창업을 하기 위해 | ② 좀 더 조기 가석방을 위해 |
| ③ 지루한 수용 생활의 변화를 위해 | ④ 새로운 구직 기술을 배우기 위해 |
| 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 ⑥ 면회자의 편의를 위해 |
| ⑦ 기타 : (_____) | |

II. 수형자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만족도 및 개선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해주십시오.

1. 귀하가 참여하고 있는 직업훈련 이수 과정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효과**는 어떠합니까?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하지 않음	지원 하고 있음	지원하고 있다면 그 효과성은 어떻습니까?				
			전혀 효과 없음	별로 효과 없음	보통	다소 효과 있음	매우 효과 있음
1. 취업 특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①	②	③	④	⑤
2. 단기 사회 적응훈련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①	②	③	④	⑤
3. 취업 박람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①	②	③	④	⑤
4. 자기이해 및 각종 진단 검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①	②	③	④	⑤
5. 직업상담(취창업, 직업훈련, 자격증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①	②	③	④	⑤
6. 특화된 직업정보 제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①	②	③	④	⑤
7. 인터넷 활용 취업지원 시스템 운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①	②	③	④	⑤
8 기타 (_____)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①	②	③	④	⑤

2. 귀하가 직업훈련 과정에서 느끼는 **만족도의 정도**에 따라 문항별로 해당 번호에 표를 해주십시오.

만족도 내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직업훈련 교사의 전문성이나 훈련 방법	①	②	③	④	⑤
2. 외부 강사 인력의 전문성이나 훈련 방법	①	②	③	④	⑤
3. 직업훈련 시설장비	①	②	③	④	⑤
4. 직업훈련 과정의 내용과 프로그램의 질	①	②	③	④	⑤
5. 직업훈련 전담 관리인력(행정 및 취업지원)의 지원	①	②	③	④	⑤
6. 직업훈련 기간	①	②	③	④	⑤
5. 전문 취업 지원 상담	①	②	③	④	⑤
6.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①	②	③	④	⑤
7. 자격증 취득 출소자의 적합한 구인처 확보	①	②	③	④	⑤
8. 직업훈련 교보재	①	②	③	④	⑤
9. 직업훈련 현장실습	①	②	③	④	⑤
10. 직업훈련 참여 동료 수행자	①	②	③	④	⑤
11. 직업훈련 동반 인성교육이나 사회적응교육	①	②	③	④	⑤

3. 귀하가 참여하고 있는 **직업훈련 과정 후의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문항별로 해당 번호에 표를 해주십시오.

가능성 내용	매우 작음	작음	보통	큼	매우 큼
1. 향후 본인의 취창업에 도움이 될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2. 동료 수행자에게 참여를 권하는 정도	①	②	③	④	⑤
3. 사회복귀 적응 및 재범 방지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4. 수행자 직업훈련에 대한 요구나 개선점에 대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직업훈련 요구나 개선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우수한 직업훈련 교사의 확보	①	②	③	④	⑤
2	우수한 외부 강사 인력의 초빙	①	②	③	④	⑤
3	수행자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훈련 직종의 제공	①	②	③	④	⑤
4	직업훈련 이수후의 취업 지원 및 상담 강화	①	②	③	④	⑤
5	직업훈련 이수후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①	②	③	④	⑤
6	직업훈련 교육 및 교수 방법의 개선	①	②	③	④	⑤
7	직업훈련생에 대한 처우 및 지원 개선	①	②	③	④	⑤

8	직업훈련생의 선발 기준 개선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9	충분한 직업훈련 시설과 장비의 확보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10	기업체 맞춤형 직업훈련 및 현장실습의 강화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11	기타()	①___	②___	③___	④___	⑤___

Ⅲ. 응답자의 일반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 표나 기술하여 해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___ ① 남 ___ ② 여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디에 속합니까?
 ___ ① 20대 이하 ___ ② 20대 ___ ③ 30대 ___ ④ 40대
 ___ ⑤ 50대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무엇입니까?
 ___ ① 중졸 이하 ___ ② 고졸 ___ ③ 대졸 ___ ④ 대학원 이상
4. 귀하는 **결혼**은 어떠합니까?
 ___ ① 기혼 ___ ② 미혼 ___ ③ 이혼 ___ ④ 기타()
5. 귀하의 **교정 생활 횟수(범수)**는 어떠합니까?
 ___ ① 1회(초범) ___ ② 2회 ___ ③ 3회 ___ ④ 4회 이상

☞ 장시간 응답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3〉 교정시설 수형자의 직업훈련 만족도 및 요구조사 결과
(혼인여부 및 교정횟수)

1. 혼인여부

<표-1> 수형자 직업훈련과정의 혼인유형별 참여특성(혼인여부)

(단위: 명, %)

혼인여부	참여과정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이상 (전문숙련훈련 과정 포함)	전체
기 혼	208(38.1)	26(24.1)	13(26.0)	247(35.1)
미 혼	237(43.4)	55(50.9)	30(60.0)	322(45.7)
이 혼	91(16.7)	25(23.1)	6(12.0)	122(17.3)
기 타	10(1.8)	2(1.9)	1(2.0)	13(1.8)
전 체	546(100.0)	108(100.0)	50(100.0)	704(100.0)

<표-2> 수형자 직업훈련기간의 혼인유형별 참여특성(혼인여부)

(단위: 명, %)

혼인여부	훈련기간				
	6개월 과정	6개월 ~1년 과정	1년 과정 이상 ~2년 과정	2년 이상	전체
기 혼	46(56.8)	147(33.8)	45(29.4)	9(25.7)	247(35.1)
미 혼	26(32.1)	198(45.5)	76(49.7)	22(62.9)	322(45.7)
이 혼	8(9.9)	80(18.4)	30(19.6)	4(11.4)	122(17.3)
기 타	1(1.2)	10(2.3)	2(1.3)	-	13(1.8)
전 체	81(100.0)	435(100.0)	153(100.0)	35(100.0)	704(100.0)

<표-3> 수형자의 직업훈련 참여목적 1순위(혼인여부)

(단위: 명, %)

참여목적	혼인여부				
	기혼	미혼	이혼	기타	전체
출소 후 취/창업을 하기 위해	130(36.5)	141(39.6)	78(21.9)	7(2.0)	356(100.0)
좀 더 조기가석방을 위해	27(34.2)	41(51.9)	10(12.7)	1(1.3)	79(100.0)
지루한 수용생활의 변화를 위해	20(36.4)	29(52.7)	6(10.9)	-	55(100.0)
새로운 구직기술을 배우기 위해	64(32.3)	103(52.0)	26(13.1)	5(2.5)	198(100.0)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	2(100.0)	-	-	2(100.0)
면회자의 편의를 위해	2(100.0)	-	-	-	2(100.0)
기타	4(33.3)	6(50.0)	2(16.7)	-	12(100.0)
전체	247(35.1)	322(45.7)	122(17.3)	13(1.8)	704(100.0)

<표-4> 수형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지원여부(혼인여부)

(단위: 명, %)

취업지원 프로그램명	지원여부	혼인여부				전체
		기혼	미혼	이혼	기타	
취업특강	있음	164 (37.3)	195 (44.3)	75 (17.0)	6 (1.4)	440 (100.0)
	없음	83 (31.4)	127 (48.1)	47 (17.8)	7 (2.7)	264 (100.0)
	소계	247 (35.1)	322 (45.7)	122 (17.3)	13 (1.8)	704 (100.0)
단기사회 적응훈련 프로그램	있음	137 (37.7)	158 (43.5)	62 (17.1)	6 (1.7)	363 (100.0)
	없음	110 (32.3)	164 (48.1)	60 (17.6)	7 (2.1)	341 (100.0)
	소계	247 (35.1)	322 (45.7)	122 (17.3)	13 (1.8)	704 (100.0)
취업박람회	있음	114 (35.6)	146 (45.6)	57 (17.8)	3 (0.9)	320 (100.0)
	없음	133 (34.6)	176 (45.8)	65 (16.9)	10 (2.6)	384 (100.0)
	소계	247 (35.1)	322 (45.7)	122 (17.3)	13 (1.8)	704 (100.0)
자기이해 및 각종진단검사	있음	112 (34.1)	154 (47.0)	59 (18.0)	3 (0.9)	328 (100.0)
	없음	135 (35.9)	168 (44.7)	63 (16.8)	10 (2.7)	376 (100.0)
	소계	247 (35.1)	322 (45.7)	122 (17.3)	13 (1.8)	704 (100.0)
직업상담	있음	144 (33.8)	197 (46.2)	77 (18.1)	8 (1.9)	426 (100.0)
	없음	103 (37.1)	125 (45.0)	45 (16.2)	5 (1.8)	278 (100.0)
	소계	247 (35.1)	322 (45.7)	122 (17.3)	13 (1.8)	704 (100.0)
특화된 직업정보 제공	있음	117 (35.5)	148 (44.8)	60 (18.2)	5 (1.5)	330 (100.0)
	없음	130 (34.8)	174 (46.5)	62 (16.6)	8 (2.1)	374 (100.0)
	소계	247 (35.1)	322 (45.7)	122 (17.3)	13 (1.8)	704 (100.0)
인터넷 활용 취업지원 시스템 운용	있음	89 (36.6)	106 (43.6)	45 (18.5)	3 (1.2)	243 (100.0)
	없음	158 (34.3)	216 (46.9)	77 (16.7)	10 (2.2)	461 (100.0)
	소계	247 (35.1)	322 (45.7)	122 (17.3)	13 (1.8)	704 (100.0)

<표-5> 수형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지원 효과(혼인여부)

(단위: 평균점)

혼인여부 취업지원 프로그램명	기혼		미혼		이혼		기타		합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취업특강	3.43	1.074	3.15	1.095	3.28	1.085	3.67	.516	3.28	1.085
단기사회적응훈련프로그램	3.27	1.128	3.18	1.013	3.35	1.010	4.00	.894	3.26	1.058
취업박람회	3.27	1.170	3.10	1.128	3.19	1.125	5.00	.000	3.19	1.150
자기이해/각종 진단검사	3.37	1.082	3.21	1.001	3.37	.981	4.67	.577	3.30	1.081
직업상담	3.66	1.129	3.50	1.077	3.57	.952	3.88	.835	3.57	1.070
특화된 직업정보 제공	3.31	1.156	3.24	1.028	3.20	1.147	3.80	1.095	3.27	1.095
인터넷활용 취업지원 운용	3.08	1.325	2.85	1.315	3.13	1.358	3.67	1.155	3.00	1.325

주: 1: 전혀 효과 없음 2: 별로 효과 없음 3: 보통 4: 다소 효과 있음 5: 매우 효과 있음

<표-6> 수형자의 직업훈련 만족도(혼인여부)

(단위: 평균점)

교정생활회수 만족도	기혼		미혼		이혼		기타		합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성이나 훈련방법	3.77	1.028	3.65	1.016	3.78	1.016	3.38	1.121	3.71	1.022
외부강사인력의 전문성이나 훈련방법	3.39	1.124	3.30	1.007	3.28	1.081	3.46	1.127	3.33	1.055
직업훈련 시설장비	3.41	1.004	3.33	1.012	3.18	1.037	3.54	1.198	3.34	1.018
직업훈련과정의 내용과 프로 그램의 질	3.45	.965	3.36	.964	3.30	.968	3.46	1.050	3.38	.966
직업훈련 전담관리인력(행정 및 취업지원)의 지원	3.21	.994	2.99	1.026	2.95	.952	3.15	1.281	3.07	1.011
직업훈련 기관	3.60	.884	3.42	.851	3.48	.774	3.77	1.092	3.50	.850
전문 취업 지원 상담	2.87	1.058	2.65	1.061	2.72	.981	2.92	1.256	2.74	1.053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3.23	.953	3.11	.917	3.07	.901	3.00	1.155	3.14	.932
자격증 취득 출소자의 적합 한 구인처 확보	2.90	1.047	2.76	1.019	2.73	1.053	2.92	1.256	2.81	1.040
직업훈련 교보재	3.30	.984	3.17	.993	3.21	.911	3.31	1.251	3.23	.981
직업훈련 현장실습	3.27	1.068	3.19	1.044	3.14	1.039	3.38	1.261	3.21	1.055
직업훈련 참여동료 수형자	3.32	.841	3.25	.888	3.25	.846	3.08	1.320	3.27	.873
직업훈련 동안 인성교육이나 사회적응교육	3.10	.999	3.06	.942	3.07	.981	3.15	1.345	3.08	.976

주: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표-7> 수형자의 직업훈련과정 이수 후의 가능성 정도(혼인여부)

(단위: 평균점)

교정생활횟수	기혼		미혼		이혼		기타		합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형후 본인의 취/창업에 도움이 될 가능성	3.46	1.157	3.24	1.111	3.42	1.177	3.15	1.519	3.35	1.150
동료 수형자에게 참여를 권하는 정도	3.46	.982	3.24	.946	3.29	1.040	3.08	1.382	3.32	.988
사회복귀 적응 및 재범방지 가능성	3.56	1.170	3.27	1.132	3.32	1.208	3.15	1.676	3.38	1.175

주: 1: 매우 작음 2: 작음 3: 보통 4: 큼 5:매우 큼

<표-8> 수형자의 직업훈련요구 및 개선점(혼인여부)

(단위: 평균점)

교정생활횟수	기혼		미혼		이혼		기타		합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우수한 직업훈련교사의 확보	3.74	.978	3.72	1.004	3.81	.956	3.31	1.377	3.73	.965
우수한 외부강사인력의 초빙	3.93	.885	3.79	.964	4.02	.808	3.62	1.261	3.87	.921
수형자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훈련 내용의 제공	4.12	.769	4.03	.877	4.22	.698	3.69	1.377	4.09	.826
직업훈련 이수후의 취업지원 및 상담강화	4.22	.793	4.12	.826	4.25	.722	3.62	1.387	4.17	.814
직업훈련이수 후 자격증취득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4.32	.785	4.28	.844	4.28	.816	3.46	1.391	4.28	.837
직업훈련 교육 및 교수방법의개선	3.77	.834	3.64	.893	3.74	.881	3.00	1.291	3.69	.885
직업훈련생에 대한 처우 및 지원 개선	4.25	.754	4.19	.877	4.26	.747	3.69	1.316	4.21	.826
직업훈련생의 선발기준 개선	3.84	.848	3.72	.890	3.94	.865	3.38	1.261	3.80	.883
충분한 직업훈련 시설과 장비의 확보	4.15	.762	4.06	.850	4.18	.750	3.77	1.363	4.11	.816
기업체 맞춤형 직업훈련 및 현장 실습의 강화	4.30	.765	4.16	.877	4.31	.751	3.77	1.536	4.23	.838

주: 1: 전혀 필요하지 않음 2: 필요하지 않음 3: 보통 4: 필요함 5: 매우 필요함

2. 교정횟수

<표-9> 수형자 직업훈련과정의 교정횟수별 참여특성(교정횟수)

(단위: 명, %)

교정횟수 \ 참여과정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이상 (전문숙련훈련 과정 포함)	전체
1회 (초범)	302(55.3)	67(62.0)	23(46.0)	392(55.7)
2회	99(18.1)	19(17.6)	7(14.0)	125(17.8)
3회	71(13.0)	18(16.7)	10(20.0)	99(14.1)
4회	74(13.6)	4(3.7)	10(20.0)	88(12.5)
전체	546(100.0)	108(100.0)	50(100.0)	704(100.0)

<표-10> 수형자 직업훈련기간의 교정횟수별 참여특성(교정횟수)

(단위: 명, %)

교정횟수 \ 훈련기간	6개월 과정	6개월~ 1년 과정	1년 과정 이상~2년 과정	2년 이상	전체
1회 (초범)	47(58.0)	238(54.7)	92(60.1)	15(42.9)	392(55.7)
2회	15(18.5)	79(18.2)	23(15.0)	8(22.9)	125(17.8)
3회	11(13.6)	55(12.6)	23(15.0)	10(28.6)	99(14.1)
4회	8(9.9)	63(14.5)	15(9.8)	2(5.7)	88(12.5)
전체	81(100.0)	435(100.0)	153(100.0)	35(100.0)	704(100.0)

<표-11> 수형자의 직업훈련 참여목적 1순위(교정횟수)

(단위: 명, %)

참여목적 \ 교정횟수	1회 (초범)	2회	3회	4회	전체
출소 후 취/창업을 하기 위해	192(53.9)	61(17.1)	53(14.9)	50(14.0)	356(100.0)
좀 더 조기가석방을 위해	50(63.3)	11(13.9)	12(15.2)	6(7.6)	79(100.0)
지루한 수용생활의 변화를 위해	35(63.6)	12(21.8)	3(5.5)	5(9.1)	55(100.0)
새로운 구직기술을 배우기 위해	105(53.0)	40(20.2)	29(14.6)	24(12.1)	198(100.0)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2(100.0)	-	-	-	2(100.0)
면회자의 편의를 위해	2(100.0)	-	-	-	2(100.0)
기타	6(50.0)	1(8.3)	2(16.7)	3(25.0)	12(100.0)
전체	392(55.7)	125(17.8)	99(14.1)	88(12.5)	704(100.0)

<표-12> 수형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지원여부(교정횟수)

(단위: 명, %)

취업지원 프로그램명	지원여부	교정횟수				전체
		1회(초범)	2회	3회	4회	
취업특강	있음	225 (51.1)	82 (18.6)	67 (15.2)	66 (15.0)	440 (100.0)
	없음	167 (63.3)	43 (16.3)	32 (12.1)	22 (8.3)	264 (100.0)
	소계	392 (55.7)	125 (17.8)	99 (14.1)	88 (12.5)	704 (100.0)
단기사회 적응훈련 프로그램	있음	199 (54.8)	62 (17.1)	57 (15.7)	45 (12.4)	363 (100.0)
	없음	193 (56.6)	63 (18.5)	42 (12.3)	43 (12.6)	341 (100.0)
	소계	392 (55.7)	125 (17.8)	99 (14.1)	88 (12.5)	704 (100.0)
취업박람회	있음	164 (51.3)	55 (17.2)	50 (15.6)	51 (15.9)	320 (100.0)
	없음	228 (59.4)	70 (18.2)	49 (12.8)	37 (9.6)	384 (100.0)
	소계	392 (55.7)	125 (17.8)	99 (14.1)	88 (12.5)	704 (100.0)
자기이해 및 각종진단검사	있음	172 (52.4)	66 (20.1)	46 (14.0)	44 (13.4)	328 (100.0)
	없음	220 (58.5)	59 (15.7)	53 (14.1)	44 (11.7)	376 (100.0)
	소계	392 (55.7)	125 (17.8)	99 (14.1)	88 (12.5)	704 (100.0)
직업상담	있음	223 (52.3)	81 (19.0)	58 (13.6)	64 (15.0)	426 (100.0)
	없음	169 (60.8)	44 (15.8)	41 (14.7)	24 (8.6)	278 (100.0)
	소계	392 (55.7)	125 (17.8)	99 (14.1)	88 (12.5)	704 (100.0)
특화된 직업정보 제공	있음	166 (50.3)	59 (17.9)	49 (14.8)	56 (17.0)	330 (100.0)
	없음	226 (60.4)	66 (17.6)	50 (13.4)	32 (8.6)	374 (100.0)
	소계	392 (55.7)	125 (17.8)	99 (14.1)	88 (12.5)	704 (100.0)
인터넷 활용 취업지원 시스템 운용	있음	120 (49.4)	43 (17.7)	41 (16.9)	39 (16.0)	243 (100.0)
	없음	272 (59.0)	82 (17.8)	58 (12.6)	49 (10.6)	461 (100.0)
	소계	392 (55.7)	125 (17.8)	99 (14.1)	88 (12.5)	704 (100.0)

<표-13> 수형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지원 효과(교정횟수)

(단위: 평균점)

교정생활횟수 프로그램명	1회 (초범)		2회		3회		4회		합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취업특강	3.45	1.129	3.26	.940	3.07	1.105	2.95	.983	3.28	1.085
단기사회적응훈련프로그램	3.39	1.100	3.26	.940	2.95	1.141	3.04	.796	3.26	1.058
취업박람회	3.38	1.159	3.13	1.001	3.10	1.111	2.75	1.197	3.19	1.150
자기해/각종 진단검사	3.42	1.076	3.35	.920	3.09	.985	3.02	1.000	3.30	1.031
직업상담	3.66	1.094	3.52	1.001	3.34	1.101	3.53	1.023	3.57	1.070
특화된 직업정보 제공	3.34	1.136	3.31	1.055	3.16	1.048	3.11	1.056	3.27	1.065
인터넷활용 취업지원 운용	3.13	1.384	3.05	1.272	2.78	1.235	2.74	1.272	3.00	1.325

주: 1: 전혀 효과 없음 2: 별로 효과 없음 3: 보통 4: 다소 효과 있음 5: 매우 효과 있음

<표-14> 수형자의 직업훈련 만족도(교정횟수)

(단위: 평균점)

교정생활횟수 만족도	1회 (초범)		2회		3회		4회		합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성이나 훈련방법	3.79	.990	3.58	1.041	3.71	1.033	3.55	1.103	3.71	1.022
외부강사인력의 전문성이나 훈련방법	3.43	1.058	3.22	.966	3.35	1.013	3.02	1.144	3.33	1.055
직업훈련 시설장비	3.44	1.012	3.18	.962	3.18	.941	3.26	1.160	3.34	1.018
직업훈련과정의 내용과 프로그램의 질	3.47	.967	3.23	.977	3.32	.879	3.28	1.017	3.38	.966
직업훈련 담당관리인력(행정 및 취업지원)의 자원	3.17	1.039	2.90	.990	3.02	.926	2.91	.967	3.07	1.011
직업훈련 기관	3.59	.854	3.44	.734	3.32	.855	3.38	.938	3.50	.850
전문 취업 지원 상담	2.84	1.065	2.60	.992	2.66	.960	2.63	1.021	2.74	1.063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3.24	.914	3.04	.979	3.00	.845	3.03	.969	3.14	.932
자격증 취득 출소자의 적합한 구인처 확보	2.88	1.072	2.67	1.022	2.80	.915	2.68	1.034	2.81	1.040
직업훈련 교보재	3.30	.983	3.13	.984	3.22	.910	3.08	1.031	3.23	.981
직업훈련 현장실습	3.30	1.063	3.09	1.016	3.15	.962	3.09	1.151	3.21	1.055
직업훈련 참여동료 수형자	3.38	.891	3.16	.827	3.14	.714	3.13	.969	3.27	.873
직업훈련 동반 인성교육이나 사회적교육	3.18	.972	2.92	1.005	3.00	.808	2.92	1.074	3.08	.976

주: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표-15> 수형자의 직업훈련과정 이수 후의 가능성 정도(교정횃수)

(단위: 평균점)

교정생활횃수	1회 (초범)		2회		3회		4회		합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향후 본인의 취/창업에 도움이 될 가능성	3.42	1.177	3.23	1.130	3.40	.999	3.13	1.192	3.35	1.150
동료 수형자에게 참여를 권하는 정도	3.37	1.015	3.24	.987	3.39	.843	3.17	1.008	3.32	.988
사회복귀 적응 및 재범방지 가능성	3.40	1.197	3.36	1.132	3.40	1.087	3.26	1.246	3.38	1.175

주: 1: 매우 작음 2: 작음 3: 보통 4: 큼 5: 매우 큼

<표-16> 수형자의 직업훈련요구 및 개선점(교정횃수)

(단위: 평균점)

교정생활횃수	1회 (초범)		2회		3회		4회		합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우수한 직업훈련교사의 확보	3.68	1.010	3.92	.867	3.77	.867	3.67	1.191	3.73	.995
우수한 외부강사인력의 초빙	3.83	.916	3.98	.889	3.86	.881	3.91	1.024	3.87	.921
수형자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훈련과정의 제공	4.11	.788	4.14	.776	4.09	.822	3.90	1.029	4.09	.826
직업훈련 이수후의 취업지원 및 상담강화	4.15	.780	4.30	.773	4.20	.845	4.06	.963	4.17	.814
직업훈련이수 후 자격증취득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4.29	.800	4.33	.831	4.26	.790	4.18	1.045	4.28	.837
직업훈련 교육 및 교수방법의 개선	3.64	.897	3.78	.768	3.78	.815	3.68	1.045	3.69	.885
직업훈련생에 대한 처우 및 지원개선	4.20	.808	4.27	.755	4.22	.864	4.16	.958	4.21	.826
직업훈련생의 선발기준 개선	3.82	.844	3.76	.902	3.86	.881	3.69	1.021	3.80	.883
충분한 직업훈련 시설과 장비의 확보	4.13	.794	4.07	.785	4.17	.770	3.97	.988	4.11	.816
기업에 맞춤형 직업훈련 및 현장실습의 강화	4.22	.802	4.28	.819	4.22	.828	4.18	1.023	4.23	.838

주: 1: 전혀 필요하지 않음 2: 필요하지 않음 3: 보통 4: 필요함 5: 매우 필요함

참고문헌

- 김미란·손유미·임찬영(2004). 『수형자 직업훈련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부·법무부.
- 김영식·서호영(2009). 『수형자 사회복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교정연구』 제42호, 163~192쪽.
- 김용구·김재경(2009). 『수형자 교정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법학연구』 제33집, 381~406쪽.
- 김종덕(2003). 『범죄자처우의 모델의 결합론적 모색』, 『교정연구』 제21호, 교정학회, 157~184쪽.
- 문영호·이인순·박강우(1993). 『수형자 직업훈련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법무부(1987). 『대한민국교정사』.
- _____(2006).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 법무부 교정본부(2010). 『대한민국교정사』.
- 변동운(1998). 『범죄 방지와 수형자 직업훈련제도』, 『교정연구』 제8호, 443~458쪽.
- 송광섭(2004). 『범죄자처우의 원칙과 교정처우의 모델』, 『교정연구』, 교정학회.
- 오원선(2003). 『수형자 직업교육훈련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21호, 249~274쪽.
- 이언담(2009). 『교정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교정시설의 직업훈련』, 월간 교정. 법무부.
- 이영근(2001). 『수형자 직업훈련에 관한 발전 방안』, 『교정연구』 제13호, 189~206쪽.
- 이준일(2007). 인권법(사회적 이슈와 인권). 흥문사.
- 주희중(1999). 『교정이념의 변천과정과 교정 정책의 방향』, 『교정연구』, 교정학회.
- 장규원(2007). 『교도작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1223~1246쪽.
- 장희숙(2009). 『교도소 직업훈련생들의 만족도와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교

정연구』 제42호, 109~135쪽.

정갑섭(1997). 『교정처우모델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7호.

최영신(2007).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처우 연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영신·전영실·이천현(2003). 『수용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허영(2008). 한국헌법론, 박영사.

Cullen, Francis T./ Ginert, Karen E.(1982). Reaffirming Rehabilitation, Cincinnati: Anderson.

Allen, Francis A.(1964). The Borderland of Criminal Justi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저자 약력

- 김기홍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김선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최은하
 - 한국사이버대학교 교수
- 이연담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실태 및 개선방안

- | | |
|-----------|--|
| · 발행연월일 | 2010년 12월 30일 인쇄
2010년 12월 31일 발행 |
| · 발행인 | 권대봉 |
| · 발행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5-949,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47길 46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화: (02)3485-5000, 5100
팩스: (02)3485-5200 |
| · 인쇄처 | 에덴복지재단 (02)2271-3130 |
| · 등록일자 | 1998년 6월 11일 |
| · 등록번호 | 제16-1681호 |
| · I S B N | 978-89-6355-130-2 93330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값 5,000원>